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선묘의 섬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22일) · 주간

제879호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가 있으니 몸을 찍게 되는 것은
나쁜 말 때문이다. 〈오분율〉

“불교는 개혁의 종교”

계간 ‘불교평론’ 통권50호 기념 전권특집

“히말라야를 황금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다시 배로 늘린다 해도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물질적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불교는 무엇보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제상이 온통 물질주의로 치달을 때 정신주의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범어사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이 최근에는 법주사까지 번졌다. 한 후보자 스님은 다른 후보자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는 중앙종회 소위에서 찬 · 반이 엇갈리며 3월 종회에 안건 상정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계간 〈불교평론〉(주간 홍사성)은 통권 50호를 기념해 ‘한국불교 개혁을 꿈꾸다’ 를 주제로 전권 특집호를 펴냈다.

홍사성 주간은 권두언에서 “불교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 추진된 개혁의 사명을 역사사회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불교는 개혁의 종교였고, 개혁의 종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의 총론 ‘한국불교, 어떻게 개혁을 지향해 왔나’ 를 시작으로 경허 용성 박한영 만해 성철 이기영 광덕 휴암 등 근현대 선지식의 삶과 사상을 통해 개혁을 진단했다. 또, 정화운동 비상종단 개혁회의 종단정체성 등 별도의 주제를 통해 한국불교를 입체적으로 조망 · 진단했다.

차차석 교수는 한국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라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용성 · 만해 등이 부르짖은 자주 자강 자립의 실현 ▷사찰재정의 투명성 제고 ▷도제양성 ▷불교정체성을 담보한 종헌종법 제정 ▷확고한 불교적 신념의 전파 ▷종단 통계의 현실화 ▷산중불교, 제의불교 타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조계종 문화부 차장은 “불교 중흥 제일 과제는 교단의 청정성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교단정화운동을 통해 불교의 정치성이 확립됐다. 그러나 교단정화 운동서 세속 권력 개입을 초래한 것은 한계”라며 “교단 사부대중 공동체 의식과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최근 진행 중인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이 교단정화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경허 선사부터 휴암 스님까지 18편 논문 통해 한국불교 진단
조계종 교단정체성 등 재조명
이론 · 대안 정리, 이제는 실천

박부영 불교신문 전략기획실장은 비상종단(1983~1984)이 전면적 개혁을 시도 했으나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재형 법보신문 기자는 “개혁회의(1994)를 불교교단의 치부를 도려낸 자정운동이었다”라며 “세간의 민주화 · 자주화 이념을 초월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조계종의 종단 정체성은 정통과 전통을 아우르는데 있다”고 말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정법이 아닌 모든 것은 정법으로 회귀시켜야 한다. 불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거기에 불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최근 진행중인 자성과 쇄신 결사운동은 불교 생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개혁에 다름 아니다.

책에서 필자들은 표현은 달랐지만 현재의 불교계가 변화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번 〈불교평론〉의 진단으로 근 ·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대안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 집대성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관련기사 7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고불총림 방장 수산지종대종사 원적

법랍 73세 · 세수 91세, 11일 백양사서 원로회의장 엄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대종사가 3월 7일 오전 8시 44분 원적했다. 법랍 73세. 세납 91세.

대종사는 “구십년 삶이 이 허공 꽃과 같은지라/ 오늘 환을 여의고 본가로 돌아가노라/ 꽃잎 떨어져 흩날리며 까치 소리하는 가운데 / 하하 웃고 한번 뒤집으니 공겁 밖이로다(九十年生是空花 今日離幻歸本家 落花翩翩鵲鳴中 呵呵一翻空劫外)”라는 임종게를 남겼다.

대종사는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년상을 모두 마친 19세(1940년)에 백양사를 찾았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부전을 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종사는 “가진 것이 있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다”며 평생 은행통장을 가지지 않았다.

수산지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1일 오전 11시 백양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관련기사 3면 · 차주상보

조동섭 기자



유물로 성철 스님 만나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8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개최했다. 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전시에는 스님의 유품과 유필 등 50여 점과 영상물 등이 전시 상영된다. 개막식에서 20여 년간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백련불교재단 이사장) 스님이 스님의 유품 중 누더기 두루마기를 관람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전시는 6월 3일까지 열린다. 박재완 기자

국민70%, 종교인 정치참여 반대

종자연, 정교분리 시민의식 연구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월 27일 19세 이상 남 · 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결과, 이 같은 통계를 얻었다고 3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만해축전심포지엄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 기조자료로 활용키 위해 더 플랜(대표 박병석)에서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7.2%가 ‘찬성’ 했다. 이 가운데 ‘전적으로 찬성’ 45.7%+ ‘대체로 찬성’ 2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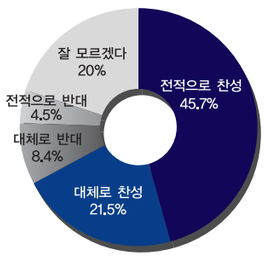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도 67.1%(‘대체로 반대’ 27.9% + ‘전적으로 반대’ 39.2%)가 반대했다.

종교행사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바람직함’ 이 30.9%였다. 과반 이상인 52.9%가 ‘바람직하지 않음’ 을 택했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 64.9%는 ' 찬성'했다.

정치인들이 종교중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46.2%, ‘잘 모르겠다’ 15%로 응답했다.

정교분리 원칙 (2012.2.28 조사결과)



종자연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정교분리원칙이 준수되길 원하는 시민이 다수이다. 특히, 최근 종교인으로서 정치참여를 선언하거나, 종교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사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종자연 박광서 소장은 “종교인이 종교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심포지엄에서는 장대익 서울대 교수가 ‘정교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 를, 허진민 변호사가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의 문제점과 정교분리원칙’ 을,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 를 주제발표 했다.

장대익 교수는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시절, 한국 개신교가 선택한 가치는 성장주의였다. 이과정에서 개신교의 뿌리 깊은 배타주의가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조찬기도회로 상징되는 정교유착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교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교유착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관련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 법 · 국민 무시해서야”

국가조찬기도회 중단 촉구

“국가 미래 농단하는 국가조찬기도회 중단하라.”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제44회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소장 박광서)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9일 성명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무릎기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번 기도회에서 대통령은 성경에 가슴을 품고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가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교세를 확장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월주 스님 등 7인 만해대상 선정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지구촌공생회 월주 스님 등 7인을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평화 운동가 아키 라(39)와 함께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천부문에 천주교 前 안동교구장 르네 뒤퐁(83),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 불교장관 오타니 몬슈 고신(32),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커트 그리블(48)이, 문예부문에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70), 김재홍(65) 문학평론가가 각 부문에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8월 만해축전 기간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4면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879호 CONTENTS

종합 3
수산 지종 대종사 원적
문화재청 5년간 3조8천억 투입

시방세계 5
성철 스님 특별전



신춘기획 13
종립대학을 가다

문화 21
대담 · 불교와 죽음과 문학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 추대식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추대식을
봉행하오니 원로 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3월 28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13대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자승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9호 부석사조사당



선묘의 섬

정 숙

멀고도 높은 봉황산 큰 섬이시여
한 오백 년 잠 못 들어 눈먼 지팡이 나무
만다라 송이들 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버팀목으로
무량수전 고드름 되어 땅으로 내려오시는 대사님
아직도 오체 깎아 녹여 내리고 계시는지요

어둠 속 길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발 뻗고 있는
어리석은 뿌리들에게
사람이 서로 다 섬이지만 물 밑으론 발등
지그시 눌러주고 있다며
굳은 하늘문 열어 주시려는

그 깊고 넓은 마음, 훤히 열려 있어도
어둠이 더 깊어 눈 뜬 장님인지라
더듬더듬 날마다 부석이 되는
한 여자

그윽한 그 눈빛 기루어
소지 몇 장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정숙 시인은… 경북 경산 출생. 1991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신처용가〉 〈위기의 꽃〉 등.

국내 최초, 핵 피해자 증언대 오른다

23~24일 합천 비핵 · 평화대회

세계 핵 피해자의 실태를 전하고 핵과 방사능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2012 합천 비핵 · 평화대회'가 3월 23~24일 합천군민예술회관,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다.

행사는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 · 사진)과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가 주최하고 국내 원폭피해자단체, 원폭2세환우회 등 피해자 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에너지정의행동 등 탈핵 · 평화 · 환경 · 여성 · 종교단체 등 30개 단체가 참여 ·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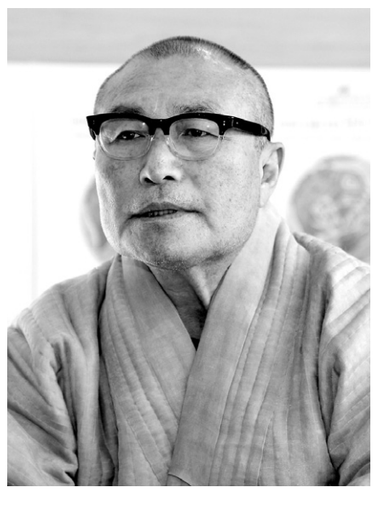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핵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 피해의 실태를 증언한다. 이들은 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섬,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히로시마 · 나가사키 핵 피해자들로 증언을 통해 핵무기 사용과 실험, 원전사고 및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폭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는 23일 오후 1시 합천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윤여준 평화의집 원장(前 환경부장관)과 다카하시 데쓰야 동경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서경식 도쿄경제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홍성담 화가, 주영수 공동대표(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핵 현장 리포트 영상&토크쇼'가 진행된다.

불교계 단체 주최로 국제행사
미국 · 소련 등 피폭자들 참여
증언대회 · 평화콘서트 외
설치미술전 퍼포먼스도 진행

24일 오전 9시부터는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합천평화의 집 등에서 '피폭자와의 만남과 현지 필드워크'가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합천군민예술회관에서 '세계 핵 피해자 증언대회'가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합천군민체육관에서 가수 안치환 백청강 합천평화씨알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핵 없는 세상,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이와 함께 핵 피해의 심각성과 생명과 평화의 절박함을 전하는 영상전과 사진전, 콘서트, 설치미술전, 퍼포먼스와 안 평화콘서트, 청소년 평화체험을 위한 야외 부대행사 등도 합천군 내 거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비핵 · 평화사진전에는 저명 사진작가인 네프쯔거(독일), 코다마 후사코(일본), 정주하 백제예술대 교수가 출품했다. 또, 홍성담 · 최병수 작가 등은 비핵퍼포먼스 설치미술전을 선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서경식 동경경제대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일반인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비핵 ·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지원 스님(위드아시아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 각지의 핵 피해자들을 초청해 그 목소리를 듣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실천적 노력을 구체화 하기 위한 세계 핵 피해자와 함께 시민연대 교류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 ·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폭당한 70만명 가운데 10%인 7만명이 조선인이었다. 생존자 3만 명 중 2만3000명이 귀국했다. 이 가운데 70%가 경남, 특히 합천 출신이 많았다. 때문에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다. 한편,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는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맞아 탈핵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춘천 삼운사, 탈북자 강제송환철회 기원법회

지역생활 탈북자 등 200여 명 참석

국제적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최초로 관련 법회가 열렸다.

춘천 삼운사(주지 도웅)는 3월 7일 '열반대재 맞이 탈북자 강제송환 철회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중국 정부에 구금돼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회는 최근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북동포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북자 강제송환 철회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춘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춘천사암연합회장 법선 스님(춘천 부흥사)와 춘천사암연합회 총무 동운 스님(춘천 지암사), 진철 스님(춘천 보타사), 소지 스님(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허천 제18대 국회의원, 조완구 춘천소방서장, 차주건 강원서부하나센터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탈북자들을 위한 연등을 밝혔다.

삼운사 주지 도웅 스님은 기원사에서 "북한주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국경을 넘고 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이들이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발원했다. **조동섭 기자**

군부대 무단토지 점유 파악 나서

조계종, 조석희 교수 자문위원 위촉

조계종이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찰토지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군부대 사찰 점 · 사용토지 관련 자문위원에 조석희 강원대 교수를 위촉했다.

조계종은 향후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현황 파악과 함께 국방부와의 중재에 나서게 된다.

조석희 신임 자문위원은 30여 년간 여군으로 복무한 불자로, 지난해 중령으로 예편한 환경분야 전문가다. **조동섭 기자**

승가대학도 사이버로 수업을

필수교과목 e-러닝 동영상 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3월 1일 청암사승가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승가대학을 대상으로 e-러닝 동영상 교육을 시작했다.

동영상 강의는 개편교과에 따른 상주교육교역자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강사 강의를 제공해 학인스님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각 지방승가대학에서는 지도교수스님 지도하에 조계종 디지털대학 홈페이지(www.edubuddha.net/)로 접속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강의를 듣는다.

특히, 수강이후 질의는 '질의 · 응답'란에 올리면 강사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쌍방향 소통이 가능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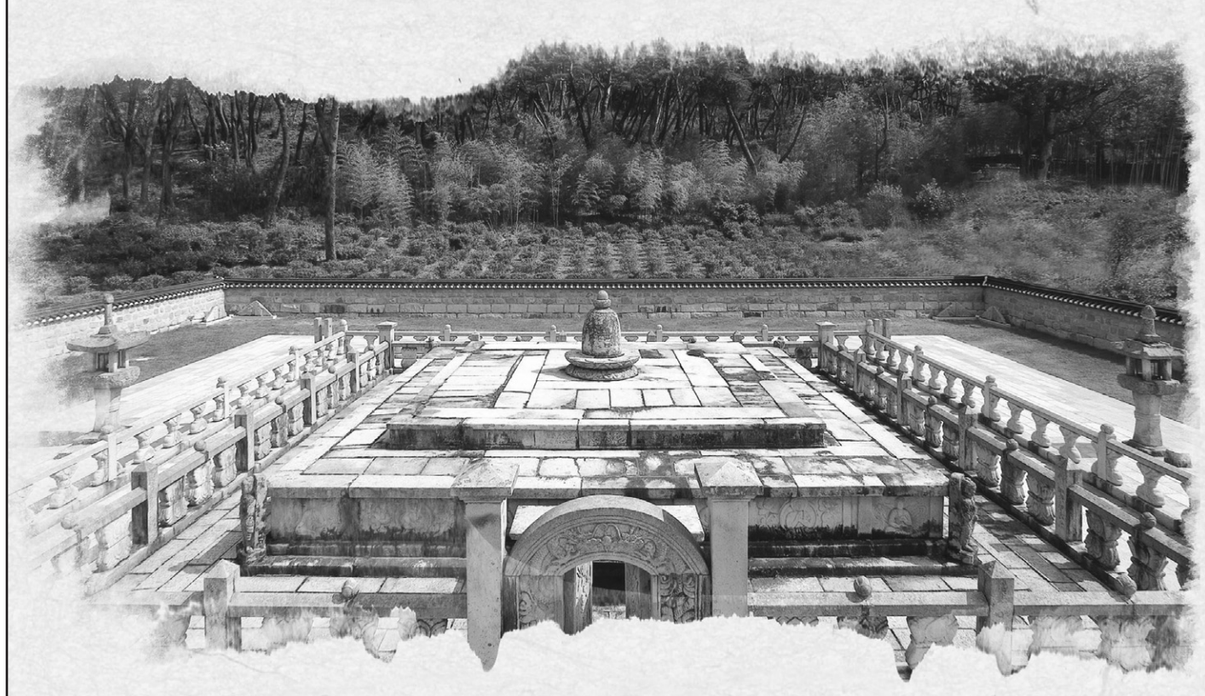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불심으로 우승하겠습니다 "불교계 성원과 응원으로 LPG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세계여자골프(LPGA) 랭킹 2위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가 3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최나연 선수는 매시합 때마다 가방에 단주를 넣고 다닐 만큼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최나연 선수에게 단주와 향로를 선물하며 "골프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국위선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임진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 재 : 2556년 3월 26일(음 3. 5) 월요일
▶회 향 : 2556년 3월 28일(음 3. 7) 수요일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 대화상 : 중산 혜남

• 동 참 금 : 5만원(새마을금고 : 6269-09-005031-0 예금주 : 통도사)
• 문의 및 접수처 :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각 말사(암) 종무소
• 차량안내 :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9시
• 울산 공업탑R 제일주유소 오전 8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구십년 삶이 허공 꽃과 같은지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대종사 원적…법납 73세 · 세수 91세

대종사의 법명은 지종(知宗)이요 법호는 수산(壽山)이다. 1922년 3월 2일 전북 순창에서 출생했다. 수산 스님은 14세 때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모시고, 탈상하자마자 그 이듬해 17세 때에 모친이 돌아가시자 또다시 삼년상을 모시게 됐다. 이에 인생무상을 깊이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19세에 백양사에 입산하여 1941년 20세에 만암 스님을 계사로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로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그 다음해 비구계를 수지했다.

수산 스님은 1944년 백양사 강원과정을 마치고 나자, 만암 스님이 백양사 산내암자인 청량원에 머물게 했다.

만암 스님은 “모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이뭣고’나 참구하거라”라고 말했다. 이에 수산 스님은 참구정진에 몰입했다.

스님은 1945년 동안거를 백양사 운문암, 1946년 하안거를 정혜사 만공 스님 회상에서 정진했다. 그 해 동안거부터 1948년 동안거까지는 인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나주 다보사에서 용맹정진했다. 이 때 상기되어 수산 스님의 머리가 푹 익어버릴 지경이 됐다. 이를 본 인곡 스님은 “화두를 놓아버리라”고 했으나 수산 스님은 정진을 쉬지 않았다. 스님은 훗날 “화두를 놓을 래야 놓아지지 않는지라 그대로 화두일념에 맡겨두고 지냈다”고 말했다.

화두를 내는 중에 확연히 불조의 도리가 확연히 밝아졌다. 수산 스님은 “수중일월(袖中日月)이요 장악건곤(掌握乾坤)이라”고 토로했다. 스님은 1949년부터는 목포 정혜원에서 만암 스님을 조실로 서옹 스님을 선원장으로 모시고 반선반작(半禪半作)의 안거정진을 했다. 1953년 가을에 만암 스님에게 입실해 ‘고혜무견정 사해부증간 념진언궁처 외연일수산(高兮無見頂 四海不曾間 念盡言窮處 巍然一壽山)’의 전법게와 함께 ‘수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수산 스님은 완도 신흥사, 영광 불갑사 포교당, 부안 개암사, 태백 흥복사 등 어려운 사찰 주지소임을 맡아 15여년 이상 가람수호와 포교에 진력했고, 백양사 본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1966년, 1969년, 1973년 주지소임을 맡아 근검절약과 공심(公心)으로서 해결해 놓고 미련 없이 걸망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1975년 이후 목포 반야사에 머물며 청년포교에 힘을 기울였고, 영광 불갑사 가람을 중수했다.

1986년부터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했고, 1989년부터는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여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1998년 불갑사 선원을 개원하여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2001년 이후 10여 년의 복원불사를 지도해 오늘날 백제불교초전성지 불갑사를 대대적으로 복원 중창했다. 영광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성역불사에도 크게 공헌했다.

2004년부터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으로 주석하며 후학들을 제접했다.

수산 스님은 평소에 당신 스스로를 ‘물코막이’라고 지칭했다. 만암, 서옹 두 어른 스님 들의 말씀을 받드느라고 어려운 절, 어려운 곳만 끄달려 다니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데 평생을 보냈다는 뜻이다. 수산 스님은 항상 공심(公心)과 신심(信心)을 강조했고, 반선반농(半禪半農)의 가풍을 평소 그대로 실천해 왔다.

스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한 요가 후에 예불을 모시고 아침공양시까지 좌선을 했다.

스님은 “중노릇 잘 하려면 조석예불 꼭 참석하고 하루 세끼 공양 빠지지 않으면 절반은 이룬 것이요, 일상 속에서 망상부리지 않고 화두 챙기면 성공하는 것이다. 중벼슬 닭벼슬 만도 못한 것이니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묶이지 말라”고 자주 말했다.

수산 스님은 2012년 3월 7일 오전 8시 44분 영광 불갑사에서 법납 73세, 세납 91세로 세연을 다하고 원적에 들었다.

정리=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3월 8일 수산지종 대종사 법구가 영광 불갑사에서 장성 백양사로 이운됐다.

백양사 방장 유시 놓고 ‘내홍’

진우 스님 새 주지 임명에 시몽스님 “임회 무효”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3월 3일 백양사 향적전에서 임회를 열고 총림 현안 타개를 위한 방장스님의 유시를 발표하고 유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받들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방장스님의 유시에 따라 임회에서는 파행적 행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現 주지 시몽 스님을 경질하고 신임주지로 진우 스님을 추천했다. 또, 부방장에 광제 스님, 수좌에 지선 스님, 선원장에 무아 스님을 위촉했다.

이에 대해 주지 시몽 스님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임회는 종무소와 상의 없이 불갑사 측이 주도한 임회 소집이었다. 방장스님의 환우가 깊었기에 최근까지 어떠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지경이었다. 따라서 임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재난관리통합시스템 · 방재연구센터 등 설립

문화재청, 문화재관련 5개년 계획 발표…3조8348억원 투입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이 계획은 이전 계획인 ‘문화유산 2011(2007~2011)’의 추진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2~2016년 정책 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계획을 통해 도시화, 정보 · 통신 · 과학기술의 발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 ①소통과 융합 ②수요자 중심 정책 ③세계화 · 정보화 ④특성화 · 지역화 ⑤가치창출과 확산의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8개 정책 대과제와 109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사업 362억원 ▷고도육성 사업 1946억원 ▷무형유산 세계화와 보호 사업 161억원 ▷현대문화유산 보존 사업 85억원 ▷IT 재난관리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458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구축(1231억원) 등 주요사업에 3조8348억원(국비 2조3825억원, 지방비 7179억원, 기금 73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사업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입 지원과 도시기본관리 계획상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다.

고도육성 사업을 통해서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도 보존계획 확정에 따른 보존 · 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무형유산 세계화와 보호 사업에는 무형문화유산 전국조사, 국가급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작성,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이 담겼다.

현대문화유산 보존 사업에는 자치단체별 근 · 현대문화유산 조사, 근 · 현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이 진행된다.

IT 재난관리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 사업에는 문화재청 상황실과 14개 시 · 도별 상황실을 연계한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 강화 등이 추진된다.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문화재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황우석 연구소 방문

논문 조작 이후 처음 “연구 격려차원일 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7일 오후 서울 오류동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 황우석 박사를 격려했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방문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방문에서 황우석 박사와 1시간 가량 환담을 나눴다. 또, 연구원 수술실에서 황 박사가 개 복제 시술을 하는 장면을 15분간 지켜보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황우석 박사는 난관 안에 있던 난자 10개를 주사기로 채취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자승 스님 일행은 채취한 난자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했다고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방문 목적을 “황우석 박사 연구 격려차 왔다”고 짧게 답했다.

조동섭 기자

“재가자 불교 주체임 자각해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화쟁아카데미 특강서

“스님들의 수가 적어 출가자 본연의 구도행보다 사찰 관리 임무에 투입되기 바쁘다. 재가자를 전문종무원으로 양성해 사찰 관리 업무 등을 맡겨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기 화쟁아카데미 입학식에서 ‘한국불교, 선자리와 갈 길’을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불교는 1700년 전 유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민족의 세계관, 생사관, 윤리관 등 민족사상과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현응 스님은 “불교를 빼고는 한국의 윤리 · 문화 등을 말할 수 없다”며 “불교와 한국문화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1700년의 불교 전통이 근래 100년 동안 단절 ·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현대 한국불교가 근현대기를 거치며 전통과 단절돼 초기 · 아비달마 · 선불교 · 대승불교의 수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출가자로는 불교 개혁에 한계가 있다. 재가자들이 불교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재가자부터 불교정신 · 체제에 투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지하라

강정마을 공사 강행 불교계 비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대표 퇴휴, 이하 불씨넷)도 3월 8 · 9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구럼비 발파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강행된 구럼비 바위 발파행위로 일어난 결과는 복구될 수 없는 환경피해”라며 ▷합의되지 않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비롯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환경적 · 문화적 · 사회적 평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화쟁위는 성명서에서 “구럼비는 그 경관의 아름다움이나 지형의 희귀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높은 보존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며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불씨넷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 폭파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헌법과 생명평화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씨넷은 “정부는 즉각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종교계 등을 포함한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圓 寂

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壽山堂 知宗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56(2012)年 3月 7日(陰 2月 15日) 午前 8時 44分 靈光 母岳山 佛甲寺에서 法臘 73年, 歲壽 91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禪覺 合掌

■ 焚 香 所 : 長城 白羊寺
■ 永訣日時 : 佛紀 2556(2012)年 3月 11日(陰 2月 19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長城 白羊寺
■ 茶 毘 場 : 長城 白羊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長城 白羊寺 ☎(061)392-7502

大韓佛教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일 주 문



장기기증 작은 콘서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17일 마포 BBS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생명나눔 작은 콘서트'를 개최한다.



통도사 염불공덕회 창립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5일 설법전 문수법당에서 염불공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보살계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4월 22일 선운사 금강계단에서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사우디 주요대학 MOU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9일 접견실에서 투르키 파흐드 알아이야르 사우디문화원장과 동국대 · 사우디아 주요대학 간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삼론종 제4세 종정 혜승 스님 추대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진봉)은 3월 3일 포천 늘봄웨딩 연회장에서 '제3세 종정 이임 및 제4세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대표자들과 포천군 인사, 삼론종 종도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원장 해불 스님의 고불문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제3세 혜공 스님의 종정 이임과 제4세 종정 혜승 스님의 종정 추대, 제4세 부종정 인봉 스님의 추대가 차례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봉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제4세 혜승 종정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위법망구의 자세로 공부하고 포교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의 추대사에 이어 제4대 종정 혜승 스님에게 추대패 증정, 5대성물 봉정이 이어졌다.

혜승 스님은 "손가락으로써 달을 가르키되, 달이 손가락에 있지 않고, 말로써 법을 설파하되, 법이 말에 있지 않도다"는 취임 법어를 내렸다. 한편, 삼론종 제4세 종정 혜승 스님은 1943년 충주 출생, 1963년 충주 대원사에서 승현 우암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3년 불이성 법륜사에서 태고종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한 스님은 1984년 서울 룸비니 포교원을 개원했다. 1988년 대한불교 삼론종 창종위원회 추대된 이래 문화원장 포교원장 사정원장 종회의장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삼론종 부종정으로 추대. 1990년 포천 보문정사를 개원했다. 포천불교사암회 회장, 포천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역임했다.

제4세 부종정 인봉 스님은 1998년 우암정사에서 창종주이신 대산 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경남교구원장, 종회의원, 포교원장 승정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명상 · 상담 통해 군포교 주력"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 센터장



"군 장병 포교는 청년 불자 포교의 핵심이자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 산하 센터인 여성인재개발센터가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 · 사진)'로 새롭게 단장했다. 여성 불자에만 국한됐던 포교활동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역량을 넓히기 위해서다.

명상리더십센터는 올해 첫 주요 사업으로 군 불자 인재양성과 군법당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황수경 명상리더십센터장은 "군 포교 활동을 명상을 통해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군 장병들은 집단생활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해결하지 못한 가족문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경 센터장은 "군포교 봉사활동을 통해 군 장병들에 대한 심리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됐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제대를 하면 청년 불자가 됩니다. 또 이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면 불자가정이 됩니다. 가장 힘든 군 생활을 불교상담을 통해 극복한다면 자연스레 불심도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군부대에는 500여 법당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한 군장병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명상리더십센터는 그 해결방안으로 군종특별교구와 협력해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승과 군종병사, 군 교육지도자에게 명상과 상담교육, 집단상담, 법회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센터장은 "지도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켜 군 자체에서 명상 프로그램과 상담활동이 자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명상리더십센터는 3월 안으로 '군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8월과 10월 예비군승과 불교 군종병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수경 센터장은 "앞으로 청년불교의 희망인 군 포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2)722-2101 국민 023501-04-143851(사)지혜로운여성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월주 스님 등 7인 2012 만해대상

만해대상실천선양회(종재 자승)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 7인을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월주 스님은 캄보디아 평화 운동가 아키 라(39)와 함께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실천부문에 천주교 前 안동교구장 르네 뒤퐁(83), 인도 우타라칸드 주정부 불교장관 오타니 몬슈 고신(32),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커트 그리블(48)이, 문예부문에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알 사바(70), 김재홍(65) 문학평론가가 각 부문에 선정됐다.

이번 만해대상 수상자들은 다양한 종교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수상자 연령층은 낮아졌다. 만해대상실천선양회 측은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젊은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밝혔다.

월주 스님은 2003년부터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파고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많은 나라에 교육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힘쓰고 있다.

아키 라는 캄보디아의 평화운동가이자 지뢰제거 전문가로, 1993년부터 독자적으로 캄보디아 전국에 묻혀 있는 대인지뢰를 제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월주 스님


오타니 몬슈 고신


르네 뒤퐁


김재홍


커트 그리블


수아드 알 사바


아키 라

르네 뒤퐁 前 교구장은 1954년 한국에서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농촌 빈민문제 개선에 앞장선 인물이다. 오타니 몬슈 고신 장관은 인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우타라칸드 주 정부의 불교부 장관으로 불교사회운동가이다. 장관은 인도 안에서 불교부흥은 물론 구호활동,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커트 그리블 시장은 2008년 취임한 이래 2011종교평화회의, 다문화와 시민다회의 평화연설과 터키인의 독일 이민 50년사 등 다양한 평화활동에 주력해 온 인물이다.

수아드 알 사바 시인은 시를 통해 쿠웨이트 여성들의 삶과 인권문제, 아랍민족주의 등을 이야기해 왔다. 김재홍 문학평론가는 한국 현대시의 미학적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업적과 다양한 비평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만해대상은 각 부문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8월 초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기간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내실있는 종단 운영 지원에 최선을"

사암단체총聯, 국회서 워크샵 성료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지암, 이하 전사련)는 3월 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운융창 민족대화합기원 및 지부종단 연대결성 워크샵'을 개최했다.

전국 171개 종단대표자가 참석한 행사는 출범 2주년을 맞는 전사련이 모범적인 한국불교단체로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선도할 명실상부한 법인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 각 종단대표자들은 한국불교종단단체의 편견과 한계를 공동극복하고 자체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선진화된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불교단체가 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사련은 3월 현재, 171개 종단과 1만여 사찰이 등록된 최대 규모의 불교단체로 조직화되고 있다.

전사련 회장 지암 스님(임제불교조계종 종정)은 "전사련은 모든 종단 단체들이 발전적인 불교단체로 성장할 정보교류와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법인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윤기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성종단의 명성에만 치우치지 않고 진짜 내실 있는 종단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종무행정을 지원하며 종단대표자들의 리더십이 확보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사련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종단종무행정 실무에 대해 상호 연구해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포교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불교단체로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02)2198-5022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자승 스님, 종지협 이사장 재선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3월 9일 롯데호텔에서 '2012년도 이사회와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공동대표의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사(공동대표)에는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인준했다.

공동대표의장 자승스님은 5월 2일로 임기가 만료하나, 재선출로 5월 3일부터 2년간 공동대표의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세계평화순례단 명상수행 워크샵

세계평화순례단(단장 법산)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태국 스님 16명을 초청해 10일간 명상수행 워크샵을 진행했다. 세계평화순례단은 국가를 넘어선 봉사와 종교를 넘어선 수행을 통해 평화세계구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2011년 한국스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워크샵에서는 한국스님들의 지도로 한국전통의 참선명상을 오후에는 태국스님 지도하에 남방위빠사나 수행의 비교수행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조계사 방문, 태국구호단체 방문, 북한산 둘레길 걷기명상 등 일정이 진행됐다.

태국 끼띠 스님은 "평소 한국의 새마을운동정신을 흠모해왔다. 4월 중 태국에서 열리는 2차 워크샵에서 양국 불교발전을 더욱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료식에서는 ▷국가를 넘어선 봉사 ▷종교를 넘어선 수행 ▷세계평화순례 ▷세계언어통일 ▷세계평화경전편찬 등 5대선언이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노덕현 기자**

능엄신주 독송기도, 영가천도 봉행

꿈바위불교교육원(원장 공세화)은 2월 29일 서울 종로한일관 연회장에서 '능엄신주 독송기도 및 영가천도 법회'를 봉행했다. 5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공세화 원장은 "능엄경 7번째 능엄신주는 병든 마음을 닦는 거울이어서 진솔한 마음으로 항상 독송하면 모든 업장을 녹일 수 있다'고 말하고 직접 독송과 의미 해석을 강연했다. **노덕현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 해에 실시됩니다.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을 견제 · 감시하는 의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적임자인지 선거를 통해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종파를 떠나 국가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둘째,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눈 감아 주지 말고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줍시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넷째,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당 · 후보자의 정책 ·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아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합시다.

다섯째, 유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2012. 3. 9.

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홍 재 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김 희 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김 주 원 (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 (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임 운 길 (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①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 스님들이 성철 스님 석고상을 유심히 보고 있다.
② 특별전을 참관한 불자들이 백련결사 초록 등을 보고 있다.
③ 성철 스님의 친필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④ 성철 스님의 덧신
⑤ 성철 스님의 누더기 장삼



성철 스님 법향 봄바람 타고 솔솔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맞아 특별전 등 다채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위한 삶을 일러주신 성철 스님의 행적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

"스님의 철저한 구도정신과 청정한 계행, 청빈한 삶을 따라 실천하는 원력을 갖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한국 불교의 거목 성철(性徹·1912~199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인 3월 11일에 즈음해 스님의 정신을 잇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일대기 특별전 6월 3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8일 조계종 출범 50주년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겸해 개최한 '성철 스님 일대기 특별전'은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총무원장특보단장 원담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 불교중앙박물관회 손양호 회장, 가천대 윤범모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주제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에는 '탄신과 출가', '수행과 결사', '동구불출과 사자후', '해인총림과 백일법문' '종정과 한글법어' '열반과 다비식' 등을 주제로 한 유품 50점이 전시됐다. 또 '종단의 큰스님과 성철 스님' 코너가 별도로 편성돼 서옹·숭산·광덕 스님 등과의 교우관계도 조명됐다.

특별전에 참가한 100여 대중들은 스님의 누더기 장삼과 백련결사 초록을 보며 성철 스님의 유품과 행적을 보며 감탄을 토했다.

개포동에서 온 수연화 보살은 "스님의 일대기와 다비식을 담은 영상, 스님의 수행 행적을 담은 전국 지도를 통해 스님의 행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다. 청빈한 수행가풍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원택 스님은 "10년 전 묘엄 스님을 뵐 때 특별전을 기획하게 됐다. 최근 3000배에 대한 평가가 성철 스님의 금권 권력으로부터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긍정평가되는 현실에서 문도회 차원에서도 특별히 유념해 특별전을 준비했다"며 개최 계기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성철 스님은 종단의 정신적 초석 등을 다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는 법문을 들려준 선지식"이었다며 "본래면목을 바로보고 권고독보하는 길을 이번 특별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날 특별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성철 스님 다비식 만장도 특별히 전시됐다. 다비식 만장은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들이 다비식에서 쓰인 1000여 개 중 776점을 수거해 민속자료로 보관해오던 것이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은 "당시 비로 인해 젖은 것을 보관하다 이번 전시전에 제공하게 됐다"며 "성철 스님 특별전은 종교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백련암 등 3박4일 아비라 기도

성철 스님의 탄생일인 11일에는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백련암과 전국 사찰에서 1000여 명이 3박 4일간 '아비라 기도'를 올리는 등 수행열기도 이어갔다.

아비라 기도는 성철 스님이 당대(唐代) 총림(叢林)에서 진행되던 수행법을 응용해 만든 기도법으로 1967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처음 시작됐다.

생전 성철 스님은 "기도의 참뜻은 문자 해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염송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백련암에서 아비라 기도에 참가한 대중들은 스님의 뜻을 받아 108배 예불 참회, 장궤합장 비로자나법신진언 염송, 능엄주 독송 등을 한 시간 단위로 1회씩 총 24회를 진행했다.

또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도 10일부터 3000배 정진이 철야로 이어졌으며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탄신 100주년 다례재가 봉행됐다.

성철 스님의 1967년 동안거 법문 내용을 담은 〈백일법문〉에 대한 공부 열기도 식지 않고 활발히 진행됐다.

〈백일법문〉강좌 매주 월요일

불교인재원은 3월 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원택 스님과 서재영 박사, 김성철 금강대 교수 등을 초청해 백일법문 강좌를 개설했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1967년 해인총림 방장이 된 뒤 첫 동안거(冬安居)를 맞아 해인사에서 설한 법문이다.

성철 스님은 상권에서 초기불교 교리와 중도(中道)·중관(中觀)·유식(唯識) 등을 하권에서 천태종과 화엄종 및 선종 사상, 조사어록, 돈오돈수·돈오점수론을 다뤘다.

첫 강사로 나선 원택 스님은 "책 출간 후 성철 스님이 오타가 있다고 꾸지람을 하셔서 법정 스님에게 물었더니 '나도 3권을 찍을 때서야 오자가 다 잡힌다'고 답을 하셔 '다행히 2000권만 찍었으니 다음에 수정하면 됩니다'라고 전했다"는 일화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스님은 〈백일법문〉이 출간된 사연부터 발행된 과정을 소개해가며 50여 강좌 참가자들의 학구열을 높였다.

강좌는 총 12회로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또 백련불교문화재단과 불교인재원은 성철스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모두 24곳의 수행도량을 순례하며 성철 스님 추모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례는 오는 31일 생가인 경남 산청 겁외사를 시작으로 매월 1개 사찰을 찾아가며, 2013년 서산 간월암, 보은 법주사, 문경 대승사 등 수행처를 거쳐 2014년 8월 스님이 열반하신 백련암에서 회향한다.

글=노덕현 기자 · 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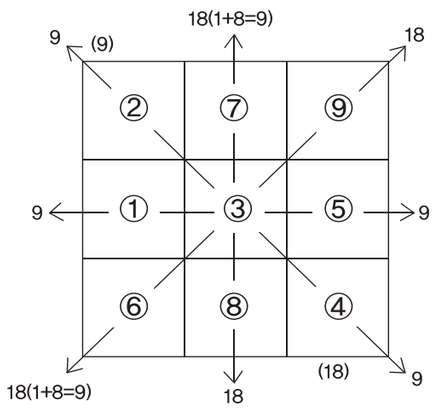
집중 5일 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천왕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만세력 없이도 일생을 꿰뚫어 보는 비술



[구단구궁 원리도]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부산, 경상, 호남, 충청, 강원지역 교육안내!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천왕사불교대학분원

강의 일정표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특별 교수초청 학과 안내
❖ 정봉 스님 ❖
◈ 퇴마,빙의 치유 5일 완성
빙의, 우울증상, 불면증 등 각종 문제 해결
◈ 작명 성명학 속성 3일 완성
음오행, 수리오행, 삼원오행, 한자획수를 이용한 작명비법!
◈ 민중의술 5일 완성
(침 · 뜸 · 사혈)

• 구궁법 창시자 법화종헌스님 외에 강의 및 인쇄물, 저작물 등을 배포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 인터넷 · TV ·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도 포함 됩니다.

교육전문도량 불교대학 천왕사 (주지 도성혜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20번지 교무접수처 ☎ 031)421-1268 / 010-7415-0803 / 010-4803-8733

심성프로그램 통해 교육사업 주력

포교원,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위원장 위촉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자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에 나섰다.

포교원은 3월 8일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위촉시켰다. 자문위원회(위원장 혜거)에는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인경 스님, 불교상담연구원 원장 담교 스님이 위촉됐다.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단은 십여 년 전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다양한 명상 · 수행 프로그램들에 대해 지도자,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종단 인증에 대한 심의를 시행한다.

또 개별적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문화 · 표준화 시켜 자문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2011년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개발한 어린이청소년 심성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입문과정을 심화 · 개발하거나 신규 프로그램들을 발굴한다.

정헌열 포교연구실 상임연구원은 "기존 운영됐던 프로그램들은 공모를 통해 1차적으로 심사한 뒤, 5~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개별 운영 프로그램 종단 심의인증
선정된 프로그램 종단에서 지원
교육기관 통해 전문지도자 양성
학교 정규 교육과정 활용에 힘쓸 것



5명의 명상 · 수행 지도자들이 청소년 마음치유에 적극 나섰다. (왼쪽부터)법상 스님, 담교 스님, 용타 스님, 지원 스님, 혜거 스님, 인경 스님, 송묵 스님

이어 "프로그램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프로그램 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교원은 이번 심성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교육사업에 주력한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방과 후와 주말을 통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포교원 정유탁 팀장은 "중 ·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단 교육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원장 스님은 "청소년심성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마음치유와 수행을 경험하고 폭력이 아닌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지난 2월 25일 불교어린이 · 청소년 지도사 고시를 통해 68명의 어린이 · 청소년 지도사를 선발하고, 그간 선발된 400명의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3월 17~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5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청소년지도사들에게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교육과 사례발표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신도등록 체계화 나서

포교원 발심품계법회 시행
3월 22일 호압사 첫 봉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단위 사찰에서도 신도품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도등록 체계화에 나섰다.

포교원은 2011년 신도등록을 신도품계로 제정하면서 신도등록과 연계된 발심품계 법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 측은 "신도품계의 가장 기본인 발심품계가 잘 정착돼야 신도확보와 초발심신도들이 신심을 굳건히 해 불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발심품계법회를 통해 입교의례를 체계화 시키고, 조계종 신도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3월 22일 서울 호압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신도이거나 기존 신도 중 신도 미등록 자를 대상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시행한다. 법회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신도 참석인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대형사찰의 경우에는 매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중소형 사찰의 경우 연합법회 형태로 매월 1회 또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사찰에 법사 파견, 입교의례 지침서 제공, 발심품계법회 양식 및 법문안 등을 제공하고, 법회는 ▷초발심의 중요성 ▷사찰과 종단의 신도로서의 의미 ▷발심품계의 의미와 가치 ▷삼귀오계 수계 등의 내용을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포교원, 모바일 포교 콘텐츠 공모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미디어 · 문화포교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 모바일 포교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눠 시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3월 19일~4월 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에게는 포교원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홈페이지 참조)

한편, 포교원은 현장에서 모범적인 포교활동을 펼쳐온 사찰과 단체를 선정해 1500만원 이내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찰 선정은 3월 23일까지 '지역포교모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www.buddhism.or.kr 이은정 기자

"지구는 한가정, 인류는 한생명"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원로배우 전무송 · 월드스타 강수연 ·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를 3월 8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설립 후 캄보디아 · 라오스 · 스리랑카 · 미얀마 · 몽골 · 네팔 · 케냐 등에서 우물파기와 학교건립 등을 통한 식수와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월주 스님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만해대상의 평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자동 지구촌공생회 사무실과 아차산 영화사에서 진행된 위촉식에는 전무송 · 선우용녀씨가 참석했다. 또, 올레그룹 최석군 회장이 참석해 지구촌공생회 홍보사절단 '향기를 이끄는 사람들'로 위촉됐다.

월주 스님은 "지구는 한가정, 인류는 한생명이다. 각자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홍보대사들이 지구촌 이웃을 위한 이타행을 통해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이웃을 돕는 사람들, 방과후 교실 개관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지현)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이하 희망교실)'이 3월 7일 동대문구 용두동에 신축 이전했다.

용두2동 주민자치센터에 575.01㎡ 규모에 신축된 희망교실은 지상5층 건물로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어린이 영어도서관, 다목적실 등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현 스님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새출발을 한 희망교실과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희망교실에서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 무단방임이 예상되는 아동과 초등학생 3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0%가 저소득 아동으로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아동도 한부모 가족이거나 결손 · 실직가정 등으로 대부분 부모가 일시적인 일에 종사해 교육과 정서의 안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02)722-9055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3월의 환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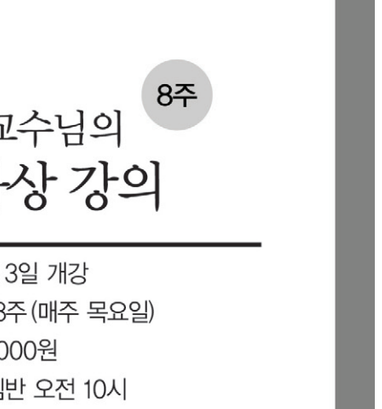
맥쿤알브라이트증후군 투병 중인 양서정 어린이

다섯 살 서정이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있다. 몸이 아파 장난을 칠 여유가 없다. 서정이는 생후 15개월이던 2008년 11월 맥쿤알브라이트증후군(성 조숙증) 진단을 받았다.

맥튼알브라이트증후군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예후를 관찰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외래 수시 관찰이 필요한 병이다. 잦은 골절과 세균 감염이 일어나 주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서정이의 가족은 앞으로 발생할 예상 치료비를 가늠할 수 없어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막막하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정이의 부모는 지난 해 이혼을 했다. 아버지 홀로 서정이를 간호하느라 경제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맥쿤알브라이트증후군 증상 중 하나인 갈색 반점이 서정이의 얼굴을 비롯해 전신에 나타나고 있다. 당장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계산하기조차 어려워 치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양서정 어린이(5세 · 여)

BULKWANG ACADEMY
佛光
불광 아카데미

불광사는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12주
불광연구원 주최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
개 강 일 2012년 4월 11일 개강
수강기간 총 12주(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 강 료 100,000원

1강	4월 11일	동양과 서양의 생각의 차이 이도흠(한양대 교수)
2강	4월 18일	무아론과 하이데거의 존재론 김형효(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3강	4월 25일	사성제이론과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 김석(건국대 교수)
4강	5월 2일	중관사상과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홍성기(아주대 교수)
5강	5월 9일	중관사상과 니체철학 박경일(경희대 명예교수)
6강	5월 16일	유식사상과 칸트의 인식론 한자경(이화여대 교수)
7강	5월 23일	유식사상과 융의 무의식 김경일(경성대 교수)
8강	5월 30일	화엄 철학과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장왕식(감신대 교수)
9강	6월 13일	불성론과 칼 마르크스의 인간관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10강	6월 20일	원효의 화쟁사상과 자크 데리다 이도흠(한양대 교수)
11강	6월 27일	불교사상과 질 들뢰즈 김상환(서울대 교수)
12강	7월 4일	보조지눌과 메를로—뽕띠 박진영(American대 교수)

10주
각묵 스님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개 강 일 4월 2일 개강
수강기간 총 10주(매주 월요일)
수 강 료 100,000원
강의시간 오후반 1시 30분부터
저녁반 7시 30분부터
아비담마 강의는 법(dhamma)에 관하여 논하는 강의입니다. 법은法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Dhamma)이기도 하며, 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 심의 현상(dhamma)들이기도 합니다.

8주
목경찬 교수님의
유식사상 강의
개 강 일 5월 3일 개강
수강기간 총 8주(매주 목요일)
수 강 료 60,000원
강의시간 아침반 오전 10시
저녁반 오후 7시 30분
마음의 형식을 여덟 가지로 구분하여 '세상이 마음에 의해 조성된다'는 가르침을 낸 것이 유식(唯識)사상 입니다. 중관사상과 더불어 대승불교 사상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가르침으로 8주에 걸쳐 유식사상의 주요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 불광사 불광법회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60-1 02-417-2551 www.bulkwangsa.org

근현대 불교 개혁 경허부터 휴암까지

계간 '불교평론' 통권 50호 기념 특집호서 집중 조명

계간 〈불교평론〉 제50호에서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경허 선사(1849~1912)의 수선결사는 당시 교학 중심이었던 불교계를 선 수행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결사가 일제강점기 선학원 운동으로 발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종수 HK연구교수는 "경허 선사의 수선결사를 통한 개혁운동은 한국불교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허우성 덕성여대 교수는 대각교운동을 통해 대각사상을 펼친 용성 스님(1864~1940)의 구세의 욕구가 자아완성의 욕구만큼이나 치열했다고 평가했다.

허우성 교수는 "용성이 탄식했던 '불교 멸망의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원인의 결과였다"며 "오늘날 정관(正觀)하는 용성의 눈을 빌려서 한반도 주변의 천하대세를 관찰하고 나라와 불교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석전 박한영(1870~1948)의 불교강사론과 불교개혁의 지향점을 살폈다. 박 교수는 "석전은 미래 불교의 새로운 씨앗을 가꿀 청년 세대의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 교육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병기 교수는 "불교개혁의 첫 단추는 승가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석전의 불교강사론 수용 ▷청년불자 및 일반인들을 위한 홍법의 장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조계종이 추진 중인 종교평화선언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추진 중인 일로 관제(官制)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박 교수는 만해(1879~1944)의 눈을 빌어 "불교와는 다른 진리관이나 이웃 종교를 인정하는 태도는 불교 고유의 진리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속에서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세는 화두라는 최고 방편을 통한 선수행을 통해 수행자 개개인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만해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헌 서울대 외래교수는 전통강원 교육과 근대적 불교교육의 과도기를 살다 간 권상로(1879~1965)에 집중했다. 이 외래 교수는 "권상로 불교개혁론은 불교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이 전제되고 있다"며 "권상로는 정신교육과 불교 단체 단합을 통한 역량 결집과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인재 육성을 도모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진영 원불교 교무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은 암울한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잃지 않고 정신개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영재(1900~1927) 스님의 불교혁신론이 1929

수선결사 통해 전통 이은 경허
구세 욕구가 성불에 우선한 용성
청소년에게서 미래불교 본 석전

년 승려대회에 일정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진각종 회당 손규상(1902~1963) 정사를 조명했다. 회당 정사는 불교가 발전하려면 일원적인 불교를 넘어 종파가 분파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원화를 교단의 분열이 아닌 불교의 발전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회당은 기존 질서 파괴가 아닌 새로운 변용으로 개혁의 가치를 찾았다"며 "생활불교 · 실천불교의 새불교운동을 통해 회당이 추구한 것은 인간심성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실천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권상로는 불교 현실 투철히 비판
회당은 다원화에서 발전 기대
성철은 불교 정체성 최우선 강조

는 성철(1912~1993) 스님은 과학적 사고의 수용, 미신적 신앙의 부정, 승려교육제도의 현대화 등 이른바 현대성을 추구하는 한편, 불교 전통을 보수하려는 근본주의를 추구했던 선사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은 불교의 정체성 확립 없이는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교가 정치 이념의 산실이 돼야 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세속을 불교화시켜야지 불교가 세속화하면 불교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수는 고봉 황성기(1919~1979)를 조명했다. 하 교수는 "고봉 황성기는 중생구제 · 사회정화 · 자아완성 등 육도만행을 강조했다. 그의 철학적 · 사상적 · 실천적 기반이요 개혁사상의 토대는 보살 · 대승불교였다"고 설명했다.

고봉은 "선만이 유일한 불교수행 방법이요, 다른 것은 외도 짓이라는 이론만으로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보살행)이 없는 공리공론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은 "불교유신과 관련한 사항들, 곧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 전통사회가 겪는 문제점들이 이기영(1922~1996) · 서경수(1925~1986) 박사에게서 그대로 제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 서 박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자본주의적 체제,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에서 유래되는 분배의 문제 등이 결국 보살의 이타적 행위이며 부처님 말씀의 현장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는 "광덕(1927~1999) 스님의 불광사상 · 불광운동을 일관하는 기본적 동기는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 · 사회의식이었다"라며 "광덕의 불광사상 · 불광운동은 우리 시대 개혁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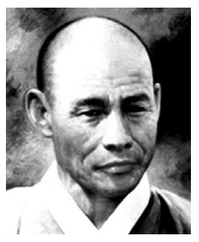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휴암(1941~1997) 스님은 ▷교육개혁 ▷출가제도 개선 ▷문중 개념 타파 ▷법회 중심의 사찰 운영 ▷사찰 수입 공금화 등을 주장했다"며 "이는 현재 한국불교계가 추진 중인 개혁과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경허 스님


용성 스님


박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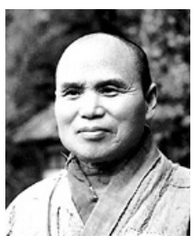

만해


권상로


박중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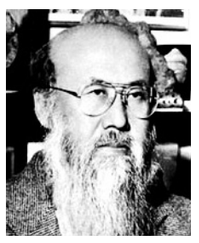

이영재


손규상


성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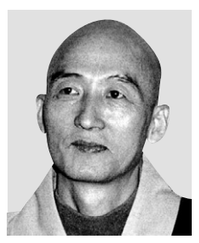

황성기


이기영


서경수



통권 제50호를 기념해 전권 특집으로 한국불교 개혁을 진단한 계간〈불교평론〉


광덕 스님


휴암 스님

붓다와 서양철학자들이 만난다면?

불광아카데미, 초기불교 및 불교인문학 강좌 개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4월 11일 불교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불광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불광아카데미는 인접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인문강좌, 불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불교원전학습을 위주로 진행된다. 개강 첫 학기인 올해 봄에는 인문강좌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와 각묵 스님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목경찬 교수의 '유식사상' 강의가 개설된다.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 강좌는 12주 동안 불교사상과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를 비교 고찰한다. 불광연구원에서 기획한 강좌는 근현대 철학자 12인을 중심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서양철학',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라는 교차접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불교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칸트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화이트헤드 융 마르크스 등 근대 서양사상가와 자크 라캉, 데리다, 들뢰즈, 메를로 뽕띠 등 현대철학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초대된다. 강좌는 이들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과 비교되는 불교사상가를 등장시켜 진행될 예정이다.

칸트와 융은 유식불교와 비교하고, 비트겐슈타인과 니체는 중관사상가 비교되는 식이다. 원효 스님은 데리다와 비교선상에 놓이게 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 역시 김형효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해당분야 있어 국내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했다.

불교원전학습으로는 아비담마와 유식사상을 개설했다. 아비담마길라잡이 강의는 초기경전을 번역하고 있는 각묵 스님이 4월 2일부터 10주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 저녁 7시30분 직접 강의한다. 최근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은 니까야에 대한 읽기를 넘어 주석서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불교의 이해의 권위 있는 주석서를 읽어 나가는 강의로 기획되었다. (02)417-2551

조동섭 기자

"밝은 정치 기원 담았습니다"

숭례문 상량문 지은 성태용 교수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3월 8일 국보 제1호 숭례문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식의 하이라이트격인 상량문은 2500여 자의 한글로 이뤄졌다. 불자 성태용 교수(건국대)가 지은 것이다.

성 교수는 지난 2월 초 문화재청 숭례문복구팀의 청탁을 받고 상량문을 짓기 시작했다.

과거 궁궐 건축물 등 국가 주도 대형공사에서 상량문은 당대의 저명한 문인 · 학자의 몫이었다. 수원 화성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華虹門)의 상량문은 학자군주였던 정조가 썼고, 고종 때 중건한 광화문 상량문은 훗날 영의정에 올랐던 문인 이유원이 지었다.

성 교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곧장 서예가 정도준 선생과 숭례문 복구현장을 찾았다. 글을 쓰기 위해 현장을 보고 느낌을 갖기 위해서였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옛문집에 나온 상량문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고 글을 지었다. 꼬박 20일이 걸렸다.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성태용 교수는 숭례문 상량문에서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잊고 지냈음을 반성하고 숭례문 복구를 계기로 새롭게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성 교수는 상량문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숭례문,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었다.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하게 방치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숭례문이 몸을 태움으로써 보여준 경계를 받아들여 숭례문을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려냄으로써 문화창달의 밝은 내일을 일구어내는 계기를 이루자"고 했다.

성태용 교수는 숭례문의 의미를 남쪽이 상징하는 '밝은 정치'와 '예'로 정의했다.

성 교수는 "통치자가 남쪽을 향해 정사를 본 것은 밝은 정치를 펼친다는 의미였다. 밝음을 상징하는 남쪽의 문인 숭례문을 복구하면서 밝은 정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예'는 오늘날 '문화'와 같은 의미라고 했다. 그는 "경제논리만 강조하는데 이제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면서 "남대문이 소신(燒燼)했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봉축 4월 21일부터 시작

21일 오후 7시 전주종합경기장 광장 기원탑 점등

연등설치는 5월 1일부터
자비나눔 실천에 주안점
군부대 · 불우시설 방문도

전북지역의 올해 '부처님 오신날'(5월 28일) 봉축일정이 결정됐다.

전북도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금산사 주지)는 3월 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지역 각 종단과 대표사찰, 신행 포교단체장 등 스님과 불교지도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봉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계획안과 예산 세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전라북도 봉축행사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28일간의 봉축기간동안 전라북도 내 각 도심의 주요도로에 연등을 설치하는 한편 기원탑, 봉축선전탑, 현수막을 게시해 봉축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규모 연등축제와 어린이 청소년관련 행사, 도내 각 불우시설을 방문해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른 4월 21일 전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봉축행사는 5월 9일 지역향토사단인 35사단의 세병호 연등제와 5월 12일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주관으로 전북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고 15일에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도립국악원과 불교연합합창단이 참여하는 팔만대장경 공연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이 밖에 각 시군 지역별로 연등축제를 개최하고 군부대, 교도소, 불우시설들을 방문해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6월 9일의 청소년 모악축제를 마지막으로 올 봉축행사를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봉축행사 일정 및 계획

행사명	일 시	장 소	비 고
기원탑 점등식	4월21일 오후7시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	
35사단 연등제	5월9일 오후7시	35사단 세병호	35사단
어린이 큰 잔치	5월12일 09:00	실무자 협의	
팔만대장경공연	5월15일 19:00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연등축제	5월19일 19:00	전주시청 광장	
6탄약창 연등제	5월23일		임실 6탄약창
장학사업	5월28일	금산사, 선원사 등	
청소년 모악축제	6월9일 09:00	금산사 경내	
위문법회	5월1~28일	교도소, 군부대, 불우시설	

화엄불교대학 입학식



지성불교 실천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이래 20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의 대표적인 불교대학중의 하나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이 3월 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에서 불교학과 제24기 71명, 화엄학림원 19기 30명의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원행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은 지역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추진해온 교육, 문화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대승보살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고 실천함은 물론 제반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화불교대학 2012학년도 입학식



강화지역 유일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인 강화불교대학(학장 승석, 전등사 주지)은 3월 7일 전등사에서 2012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강화불교대학은 강화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입학에는 제2기 입학생 56명이 등록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적석사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여 모두가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불교대학은 전등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강의가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호남에서 미륵시대 열자

한국불교미륵종 창종 20주년 행사 개최



사진설명

미륵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종)이 창종 20주년을 맞아 기념대법회와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3월 6일 광주 미륵사 부설 수자타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종단운영의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임명장 수여 및 미륵종 20년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제1부 법회는 미륵사 육법공양에 이어 미륵사 주지 혜법 스님의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송정 스님에 대한 공로패 등 수여, 경과보고, 종도스님들의 헌화, 법어, 축가가 진행됐다.

제2부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도대표들에 대한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법문에서 "지난 20년간 우리 종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종도들이 힘을 모아 오늘에 이르렀다. 호남은 미륵신앙의 본거지로, 앞으로 호남에서 미륵의 시대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개최된 미륵사는 2010년 미륵종 호남본산으로 지정돼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을 운영하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3인의 선지식 · 명사법문 들으세요

매월 보름마다 광주 증심사서

2011년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가 3월 7일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2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증심사(주지 연광) 명사초청법회는 광주지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출 · 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이다.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자본주의는 욕망에 기승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이런 욕망에 탐착되어 그 한계가 있으며, 거짓 행복에 속아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며 "참 행복은 지혜와 선정을 통해 욕망을 잘 조절해야 이뤄지며, 언제 어디서나 청정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평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신임 주지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은 평등을 상징하며, '행복한 동행'은 자비행을 의미한다. 글의 의미처럼 증심사에 살면서 대중들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신행생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증심사는 이날 지환 스님에 이어 4월 5일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5월 5일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6월 5일 김병조(방송인), 7월 4일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9월 10일 해강 스님(실상사 주지), 10월 3일 도법 스님(조계종결사추진본부장), 11월 28일 유정길(에코붓다 대표), 12월 27일 선재 스님(사찰음식 전문가)을 매월 보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7일 광주 증심사에서는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맨 왼쪽)을 법사로 모시고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7회 졸업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은 3월 2일 제7회 졸업(수료)식 및 제9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마음공부를 열신히 배우고 밝혀 주인공으로 거듭나 실천하는 포교사 역할로써 생활불교로 전환시켜 대승보살도 실현과 함께 천태불자 금강인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삼독심을 버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대자대비심을 실천하는 천태불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수현 학장은 인사말에서 "마음공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아헹가 요가센터 대구에 문 열어

조계종 청량선원 현천 스님(아헹가 요가협회장)이 아헹가 요가 대구센터를 서울 강남에 이어 2번째로 개원했다.

현천 스님은 3월 3일 대구 수성구청 옆 건물 2층에서 대구전문센터 개원식을 갖고 아헹가 요가 센터 전파에 나섰다.

현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요가를 하다보면 기도가 되고 마음과 육신이 평온하게 된다"면서 불자들에게 요가 수련을 권했다.

아헹가 요가는 인도 아헹가 선생이 고대로부터 전래돼 온 여러 갈래의 요가를 집대성하고 의학과 과학을 접목시켜 현대화시킨 요가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서중 · 고교 입학식

불교계 사학인 경북 청도의 '참 좋은 이서 중 · 고등학교'가 3월 3일 신입생 입학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입학식에서 학교법인 무일학원 이사장인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은 220여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이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우학 스님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입생과 재학생 125명에게 9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불화에는 조상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재가연대서 특강

참여불교재가연대는 3월 6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정우택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불화로 읽는 불교이야기’를 강연했다. 정우택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불화에서 종교를 통해 인간이 얻고자하는 신념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인간이 지은 업에 따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윤회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정우택 교수는 불화는 특정 종교를 떠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밝혔다.

불화에는 생로병사가 담겨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태어나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관직에 몸담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을 누리다 늙어서 죽게 됩니다. 불화에는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화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거나 마차 바퀴에 깔리거나, 낙사를 당하거나 노안이 들거나, 심지어 싸우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을 읽기도 하고 설법을 통해 알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불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에 가면 다양한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림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면 글자로 불교를 아는 것 보다 훨씬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얼굴을 보고도 과연 이 부처가 어떤 부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나발이고 장신구를 걸치지 않은 형상은 ‘부처’ 또는 ‘여래승’이라고 합니다. 관을 쓰고 뒤에 광배가 있으며, 장신구를 많이 걸친 부처의 형상은 ‘보살상’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김새가 다르듯, 이 두 부처도 같은 부처가 아닙니다. 때문에 성격도 다릅니다.



인간의 염원이 만들어 낸 부처

부처님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처는 석가모니부처입니다. 석가모니부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끝없는 집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은 자기 뜻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소산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긴 것이 경전입니다. 경전은 부처님 재세 시 만들어진 경전과 열반 후에 만들어진 경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전의 말들은 모두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부분 대웅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극히 일부에서 부처님 아래에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두 동물은 바로 코끼리와 사자입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분은 문수보살이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은 보현보살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부처와 보살을 만들어냈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사여래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여래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사여래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약사여래는 손에 약호 · 약기 · 약합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관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태양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다리가 세 개인 까마귀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 관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광보살 · 월광보살이라 부릅니다.

〈화엄경〉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등장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며 평등심 · 구원을 상징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손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주로 보광전, 비로전, 적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약사여래와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 현세를 의미를 부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를 궁금해 합니다. 미륵은 미래를 구원받기 위해 생겨난 부처입니다. 미륵은 두 가지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솔천에 계실 때는 보살의 모습이지만, 땅에 내려오면 석가의 모습입니다. 미륵은 앉은 모습이 결가부좌가 아닌 걸터앉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난세를 상징하는 부처 중에는 치성광여래가 있습니다. 치성광은 북극성을 뜻합니다. 보통 치성광여래 그림은 도교적 성격이 짙게 나타납니다. 도교에서는 별자리를 의인화 시켰는데, 하늘이 인간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보살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재물을 주고 극락으로 인도해 줍니다.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선 관세음보살은 매우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관세음보살은 공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간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 외에 다른 모습을 한 관음을 변화관음이라고 말합니다. 관음 중에는 천수천안이 있습니다. 손이 천개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단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많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모든 곳에 손을 뻗쳐서 구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인간 집착으로 부처 · 보살 구분
그림 파악하면 불교 쉬워져
불화는 인간의 내세까지 담아
현세를 다시 되돌아 보게해

1550년대에 그려진 ‘관음탱’은 인종이 죽자, 인종의 부인이 인종을 극락에 모시고 싶어 제작한 그림입니다. 지금은 교토 지원이라는 절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32가지의 몸으로 변해 중생을 구원하는 관음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그림에서 관세음보살은 비구니, 아기, 야차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현세를 되돌아보게 해

모든 종교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음 생으로 현생이 이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않는 종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는 내세를 말할까요. 현실에서 고통을 받아 종교를 믿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다지 나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때 지금 쌓아온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극락세계입니다. 그곳을 만들지 않으면 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가 바로 아미타부처입니다.

아미타부처는 인간이 죽기직전 나타나십니다. 불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미타부처는 엄지와 중지를 동그랗게 맞닿은 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서있습니다. 이는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보통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아미타부처와 많은 보살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좌를 들고 나타납니다. 현세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많은 보석이 박힌 대좌를 들고 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자에게는 다른 이와 물질로도 구분합니다.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승려나 귀족들이 아미타부처를 그려놓고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더 많은 중생들을 극락으로 태워가기 위해 그림에 배를 등장시켰습니다. 즉, 나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배는 가장 크고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배를 반야용선이라 불렀는데, 배에 머리 쪽이 용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선악을 구분 짓기 위해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화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

불화는 단순히 불교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적 가치가 담겨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화에는 고려시대에 어떤 악기가 연주됐고, 산수와 초상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중에서 고대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는 특정적 종교를 떠나 우리가 앞으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긴 탁자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쉽게 ‘최후의 만찬’을 떠올립니다. 이는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곧 교육이 돼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화의 가치와 선조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제14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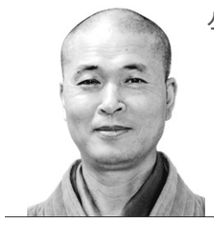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14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등상불(等像佛)과 무상불(無相佛)	제한 없음	-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3편			
밀 교 일 반	3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 수 마 감 – 2012년 5월 18일(금)
당선작 발표 – 2012년 6월 22일(금)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2년 12월 13일(목)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6편 (편당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정수현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525-0751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뜬 나무의 구멍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問 盲龜値浮木孔時如何 師云 不是偶然事

〈잡아함경〉〈열반경〉 등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해(大海)에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이 거북이는 수명을 모를 정도로 오래 살았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바다 표면에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구멍 뚫린 나무판자가 떠다니다가 거북이가 바다 표면으로 고개를 내밀 때 나무구멍 위로 목이 쑥 나오게 되면 매우 편안하게 목이 걸쳐지게 되므로 그때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이것이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판자를 만나다(盲龜遇木)라는 설화이다. 망망한 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처럼, 사람이 불법을 만난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금생에 꼭 깨달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이다.

학인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주 선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듯이 불법을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생에 작은 복이라도 지은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하니, 다른 생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서 즉시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음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그대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오랫동안 바위굴이나 산골짜기에 기거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완전히 숨지 못하는가?"

問 久居巖谷時如何 師云 何不隱去

출가수행자가 된 사람이라면 복잡한 세속을 벗어나 산골짜기나 동굴에서 은신하면서 도를 닦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뜻은 가상하나 반드시 올바른 수행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매일 마을에서 음식을 빌어먹도록 당부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잊지 않는데 있다. 이 몸을 만들어준 부모님과 나에게 음식을 베풀어주는 사람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도를 이루면 그들에게 좋은 진리를 설해주어서 나를 나아주고 먹여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대승정신을 심어준 것이다.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는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씩 걸식하러 마을에 나오는 자식을 보고 안심하게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은둔이 아닌 대중 속의 불교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은둔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주 선사의 이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숨으려 한들 네 몸이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완전히 숨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책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예배이다."
학승이 앞으로 나아가 무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조주 스님은 사미(沙彌) 문원(文遠)을 불렀다. 문원이 오자 스님은 꾸지람을 하면서 말했다.
"아까는 어디에 갔다 왔는가?"

問 如何是佛法大意 師云 禮拜著 僧擬進話次 師喚沙彌文遠 文遠到 師叱云 適來去什?處來

무엇이 불법의 큰 뜻인가 묻자, 조주 스님은 주저 없이 '예배'라고 대답했다. 불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예배는 입문자의 첫 수행이고, 결국 마지막에 고승이 되어도 일체 중생에게 '예배'하면서 끝을 맺는다.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는 이미 부처이다. 그런 부처에게 끝없이 서로서로 예배하고 깨닫고 존중하는 정신이 불교이다. 조주 스님이 학승이 하려는 말을 중단시키면서 문원을 향하여 딴 짓하는 말을 한 것은 학승에게, "이외 특별함은 없어. 이것이 불교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5〉

사성제-고제(苦諦)

인과 · 제행 무상 모르는데서 생기는 고통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한 사람, 한 달 전에 산 주식이 10배 올랐다고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에게 '모든 것은 고통이다' 라는 말은 잔치 상에 찬물 끼얹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찰나이고 삶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만년 과장으로 있다가 명퇴당할 수 있고, 명문대 졸업해도 취직 못할 수 있고, 사놓은 주식 휴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잔칫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먹고 살 걱정, 자식 걱정에 나이 들어 이젠 몸까지 아파오고 이빨도 약해져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온갖 망상이 자신을 괴롭힌다. "왜 그때 그렇지 못했을까?",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나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 무명(無明)에 쌓인 어리석은 중생은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인과(因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고제(苦諦)이다. 고제는 이러한 삶의 고통이 진리로서 냉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고통의 진리는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 태어난 자는 매순간 붕괴돼 가고 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고제의 '고'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가르침에 입각한 고통을 말한다.

부처님은 고제를 여덟가지로 분류해 설했다. 먼저 생고(生苦)·노고(老苦)·병고(病苦)·사고(死苦)의 네 가지 고통이 있다. 여기서 '생'은 '살아가는 고통'이 아니라 '태어나는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처음으로 폐로 숨 쉬는 과정을 겪으며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또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의 과보를 받고 인간계에 들어선 것이 되므로 윤회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필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태어나는 고통' 속에는 '살아가는 고통'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애별이고(愛別離苦)와 원증회고(怨憎會苦)가 있다. 애별이고는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생이별 혹은 사별하거나 애착하는 물건 등을 분실 또는 빼앗기는 고통을 말한다. 원증회고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혹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뜻한다. 다음은 구부득고(求不得苦)가 있다. 말 그대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괴로움이다.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느끼는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오취온고(五取蘊苦)가 있는데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망에서 오는 고통이다. 즉 물질[色], 외부의 자극을 감각 신경이 받아들이는 작용[受],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작용[想], 그 밖의 여러 마음의 작용[行],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좋은 것만 갖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느끼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로병사와 애별이·원증회·구부득·오취온의 여덟 가지 괴로움을 합쳐 사고팔고(四苦八苦)라고 부른다.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⑩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붓다차리타〉

죽음, 아, 죽음. 한숨부터 나오지 않는가. 언젠가는, 한번은, 우리에게 닥쳐오고야 말 쯔나미(津波).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같다. 그 쯔나미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누구도 이겨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엄(至嚴)한 진리이자, 자연의 이치이다.

흔히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는 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불교야말로,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래서 불교를 낳은 어머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 죽음을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언제 인지했을까? 내 생각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인지했으리라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겨우, 싯다르타 태자가 이 땅에서 호흡하기 시작한 7일만의 일이었다. 그때는 아직 아무 것도 알 수 없었으리라.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한 소년의 마음자리 한 구석에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고도, 어둡게 자리했을 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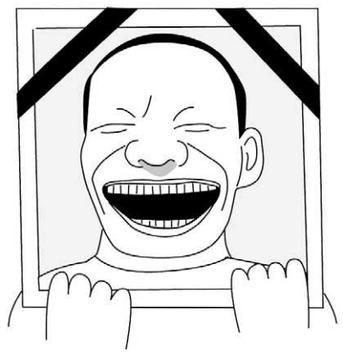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죽음이 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좁은 견문 탓인지 잘 보지 못했다. 그 대신에 등장하는 것이 4대문 밖에서 만난 그 모습들이다. 이른바 사문유관(四門遊觀)이다. 어쩌면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어렸을 적 체험, 혹은 상처들까지 다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늙음, 병자, 죽은 자를 만나고 또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수행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싯다르타 태자가 제기하는 의문은 이러한 고통이 특정한 사람만이 겪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대답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늙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질병의 길에 있으면서도, 마침내는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붓다차리타(Buddhacarita, 佛所行讚)〉에서는, 이때 싯달타 태자가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지를 잘 전하고 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저만치 던져버리고 흥겨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디구나. 죽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태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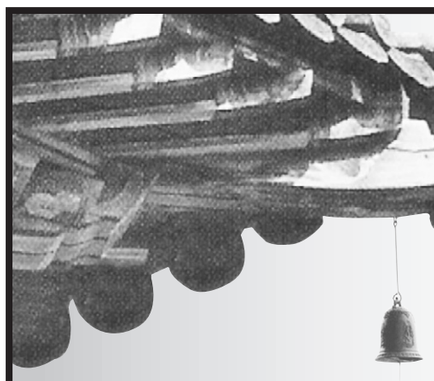
사람들이 부르는 태평가(太平歌)는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저 멀리 밀쳐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하긴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살아간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문제에요,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인가? 그것은 아니리라.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우리 삶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묘약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가 끙끙대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은 가볍게 다가올는지 모른다. 나의 이 고통과 고뇌가 죽음보다 더 심각한가? 이렇게 물으면서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되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리라.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죽음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이라는 화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늘 머리에 "나는 죽는다!"라고 씌어있는 띠 하나씩 동여매고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오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하늘빛과 산 그림자가 분명히 비치네”

영지(3)

청평사에는 고려시대에 조성한 못이 남아 있어 사찰의 지당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청평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는 고려 광종 24년(973) 당에서 온 영현선사(永玄禪師)로 선사는 경운산에 백암선원(白巖禪院)을 창건한다. 그 뒤 문종 23년(1068)에는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한 이의(李顗)가 폐허가 된 백암선원의 옛 터에 절을 지어 보현원(普賢院)이라 했으며, 선종 6년(1089)에 이의의 아들 이자현이 29세 때 관직을 버리고 입산해 산 이름을 청평산(淸平山)으로,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으로 바꾸고 선도량을 일구었다. 이자현은 입산하여 문수원을 중심으로 청평산 10여 곳에 암, 당, 정, 헌 10여 채를 지었으며, 건물주변을 가꾸고 정원을 조성해 수도도량을 만들었는데, 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池園)도 이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평사 못은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 위치가 청평사 남쪽에 있어 남지(南池), 네모난 못이라는 뜻의 방당(方塘),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기 때문에 영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평사 못에 관련된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못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매월당집(梅月堂集)〉 ‘제청평산세향원남창(題淸平山細香院南窓)’ 의 시에는 “네모난 못에 천층의 봉우리들이 거꾸로 꽂혀있고(方塘倒插千層岫)”라 하였다.

또, 구사맹의 〈팔곡집〉에 실린 ‘영지’ 라는 시에는 “방형의 거울은 먼 봉우리를 찍어내고(方鏡印遙岑)”라 하였다.

청평사에는 고려시대 조성 못 있어
1089년 이자현이 중창하며 조성
남지 · 방당 · 영지 등 명칭 다양
오전보다 오후에 투영효과 높아

우담 정시한(丁時翰 ; 1625~1707)의 〈우담집(愚潭集)〉에서는 “봉우리와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산의 암자가 영지에 또렷이 비치는 것이 마치 그림과 같다(邊峯巒石壁 山庵到影池中 歷歷如畵)”라고 하였다.

또한 〈허응당집(虛應堂集)〉 하권 ‘쌍지’ 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못을 파서 옥경을 새롭게 여니 맑아져 하늘의 빛과 산그림자가 못에 분명히 비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청평사 못은 그림자를 비치는 영지이며, 영지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봉우리와 같은 자연적 물상을 끌어와 물에 비치도록 하는 산영지(山影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평사 영지의 투영효과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태양이 비치는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에 영지 북쪽으로 소나무 등 수목들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부용봉과 견성암을 가리게 되어 산의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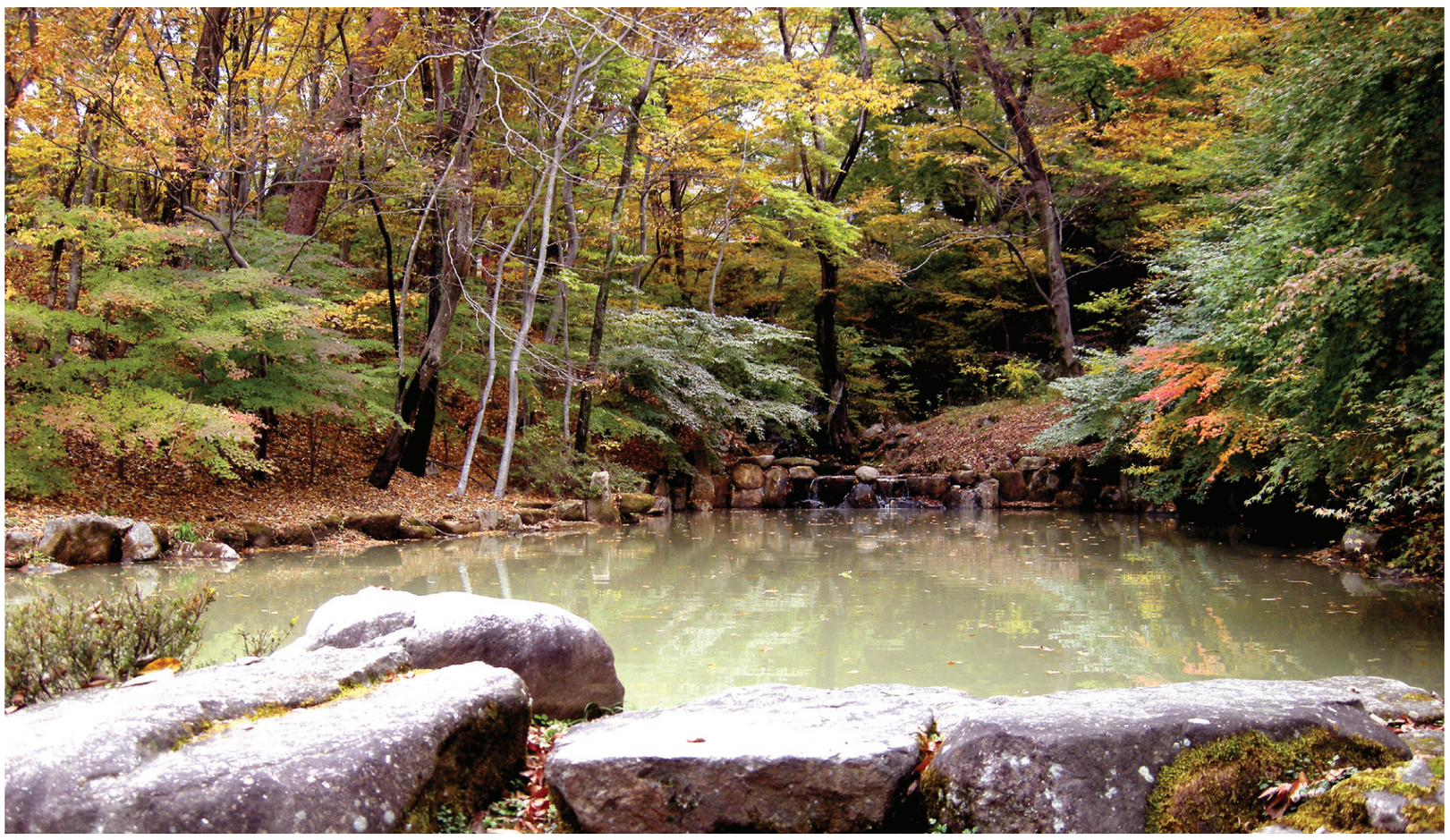
익산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못 역시 영지의 기능을 가진다. 맑은 날 미륵사 남문지 밖 중심축선상에서 바라보면 미륵사 탑과 후면의 산봉우리가 확연히 수면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미륵사 영지는 탑영지이면서 동시에 산영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인사의 계담은 그 이름이 영지이다. 이 계담은 해인사 동측 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서 만든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지’ 라고 새긴 자연석 표지판이 있었다. 옛 문헌을 보면 해인사 후면의 가야산 봉우리가 영지에 비친다는 기사가 있어 해인사의 영지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 영지 역시 주변의 나무가 우거져 지난날처럼 가야산의 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송광사 계담 역시 영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담의 잔잔한 수면에는 임경당 건물이 비치고 우화각과 무지개다리가 비친다. 특히 무지개다리는 수면에 원상을 그리고 있어 영지효과를 통해 불교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작품성이 매우 높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해인사 영지. 이 계담은 해인사 동측 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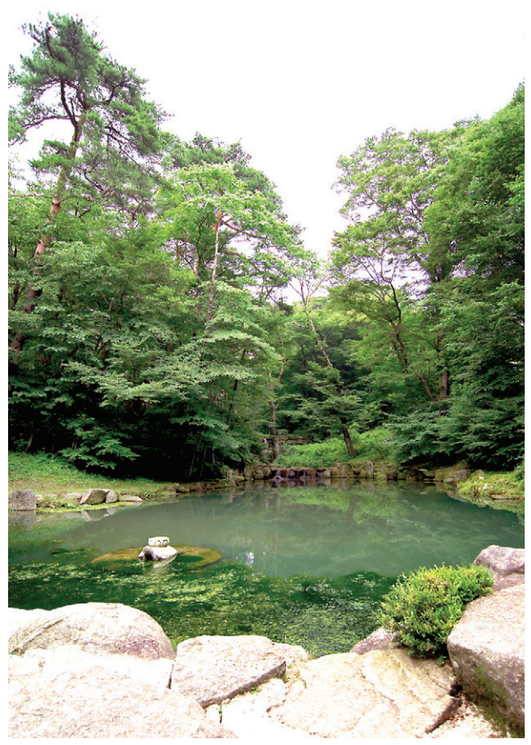
송광사 계단의 영지효과



미륵사 전면 영지에 비친 탑과 산봉우리



청평사 영지에 비친 산봉우리와 주변의 자연



해인사 영지. ‘영지’ 라고 새긴 자연석 표지판이 있었다.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한국의 '나란다 대학' 꿈꾸며 앞으로 앞으로

①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

3월 2일 오후. 중앙승가대학교 캠퍼스가 분주하다. 2012학번 스님들의 입학식 날이다. 가사를 수하고 다소 긴장한 얼굴을 웃음꽃으로 가려 보는 스님들. 축하의 꽃다발과 격려의 말로 새 출발의 다짐을 나누는 도반과 은사스님들이 캠퍼스에 봄기운을 한껏 뿌려 주고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 27명, 박사과정 10명, 학부 신(편)입생 69명. 106명의 스님들이 새로운 도량에 새로이 '출가'하는 입학식 풍경은 다른 대학과 사뭇 다르다. 엄숙한 서원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 총장 태원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학인으로서의 학문연구에 매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다소 외진 곳. 아파트 단지와 금정산 사이에 중앙승가대학교가 위치한다. 세속과 탈속의 그 중간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처의 조건 가운데 '마을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이란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학교 이름에 학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중앙(中央)은 사방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승가(僧伽, Sangha)란 출가자의 집단이다. 그리고 대학교란 종합적인 학문의 연찬과 인격도야의 현장이다. 중앙승가대는 조계종 승적을 지닌 출가자만 입학이 허용된다. 조계종 종립대학(원)으로 학사와 석, 박사를 배출하는 정식교육기관이다.

1989년 7월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설립된 이후 23년. 1979년 의정부 상룡사에서의 '불교중앙승가학원' 설립 발기 모임으로부터 33년째. 그동안 1729명의 스님들이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문학사 학위를 받은 스님이 962명이고 66명의 석사와 6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졸업생의 수와 학사학위 수여자에 차이가 큰 것은 1990년에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각종학교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졸업현황은 조계종 소속 스님들만으로 국한된 인적 구조를 감안하면 종립교육기관으로서의 성과가 자못 크다.

'한국의 나란다 대학을 꿈꾸며…'

중앙승가대의 서원이 담긴 슬로건이다. 5세기 인도 굽타왕조 시대에 건립되었던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 7세기 현장법사가 방문 했을 때 학인이 1만여 명에 교수가 1500여 명이었다고 한다. 12세기 이슬람교도에 의해 파손되기까지 700여 년 동안 세계 불교학과 인문학의 중심이었던 나란다 대학. 그 영광을 다시 밝히겠다는 중앙승가대학의 서원은 오늘날 안팎으로 발전하는 학교의 위상이 대변한다.

중앙승가대는 올해 학부제를 도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재 개설된 학과는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이를 불교학부와 불교사회학부로 나누고 불교학부에 불교학과, 불전번역학과, 문화재학과를 두고 불교사회학과에는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를 두게 된다. 문화재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가 증과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교수 인력의 확보도 5~6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승가교육기관으로서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춘 교육여건을 온전히 갖춘 계기가 되었다는 게 학교의 설명이다.

각 연구소와 부설기관의 역할 팽창도 중



김포 풍무동 종앙승가대학 전경. 중앙승가대는 6개 연구소와 4개 위탁시설, 1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제 도입 내년부터 증과
문화재학과 · 불교상담심리학과

세계대장경 한눈에 열람
복지시설 및 김포불교대 운영

앙승가대가 꾸준히 공력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 중앙승가대에는 불교학연구원과 승가학연구원 산하에 6개의 각종 연구소가 가동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정기적인 학술행사와 논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과 안암어린이집 등 4개의 위탁시설과 15개의 복지시설의 운영은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이라는 설립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 빼 놓을 수 없는 일. 중앙승가대는 지난 3월 6일 '2012년 김포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 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지역불자는 80여 명. 김포불교대학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승인 시설로 운영되며 300여 명의 불자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포교우선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학교의 다양한 기능 배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이사회가 학교부설로 인가했다.

중앙승가대 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보물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바로 대장경 열람실이다. 현재 도서관 1층 마련된 대장경 열람실에는 세계 30여 종의 대장경이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의 대장경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중앙승가대가 유일하다.

중앙승가대가 출가한 스님들만의 교육도량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후원'이다. 선지식을 양성하는 도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불자 대중의 후원으로 풀어야 하는 것. 그래서 중앙승가대는 '시대를 선도하는 승가교육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지식 양성과 불교중흥을 위한 5000원 1계좌 동참 불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승가대신문에 따르면 올 1월 말일 기준으로 5억 82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적립되었다. 이중 8400여 만 원이 CMS로 입금된 것이어서 자동이체에 의한 대중모금이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승가대 후원금은 불교학의 발전에 쓰이는 진정한 '정재(淨財)'이고 보시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공감 확산을 위해 학교와 총동문회, 종단 등이 좀 더 숙고하여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나란다 대학'이라는 중앙승가대학의 서원은 먼 꿈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상사(日常事)'다. 잰걸음으로 도서관과 강의동, 숙소동을 오고가는 스님들의 푸른 눈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김포=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사진제공=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입학생 수련회 발우공양 모습. 3월 2일 106명의 스님들이 새로이 출가하는 마음으로 입학했다.

"시대 변화 선도하는 선지식 양성에 진력"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학부제의 도입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올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충분한 토론이 있어 왔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고르게 갖추었습니다."

중앙승가대 제5대 총장인 태원 스님(사진)은 1990부터 강의를 해 왔다. 누구보다 중앙승가대의 발전 가능성에 자신하고 있고 그만큼 애정과 열정도 강하다. 무엇보다 태원 스님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승가교육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문화재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의 증과를 학교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물질문명이 발달 할수록 사회적 정신 공황은 심화됩니다. 그를 해결하는 길이 불교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의 치료 기능을 극대화해야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타정신의 실현이고요."

태원 스님은 시대 변화를 선도가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공부로 '언어의 벽'을 극복하는 것이라 말한다. 스님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언어교육에 매진할 방침이다.

"불사 가운데 가장 큰 불사는 도를 깨치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위해 중요한 것이 수행자들이 도를 깨치고 그것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승가대학이 바로 선지식을 양성하여 세상의 고(苦)를 치료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우지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명의 선지식이 10개의 법당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태원 스님은 보다 많은 불자들이 중앙승가대 후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글 사진=임연태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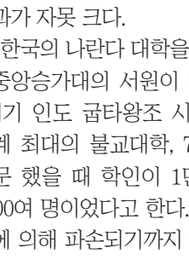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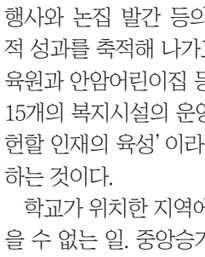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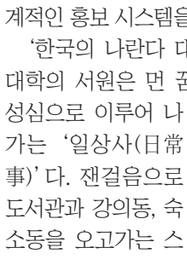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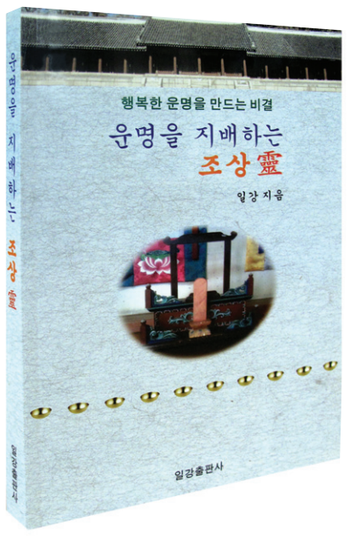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I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한·일 불교계, 일본지진 희생자 1주기 추모법요

한일불교교류協, 9일 카마쿠라 광명사서

지진 피해 컸지만 한·일 양국 유대 실감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도 열려

한국불교계가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사망한 이들의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법요식을 봉행하고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일본 정토종 광명사, 양국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3월 9일 오후 2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카마쿠라(鎌倉)시 코우묘우지(光明寺)에서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제1주기 추모 및 피해지역 복구 기원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前 천태종 총무원장), 부회장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등 한국 측 40여 명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西郊良光) · 부회장 후지다 류조(藤田隆乘) 스님 등 일본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요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후 1시부터 광명사

한 · 일 불교인사 200명 참석
지진희생자 추모하며 우애 다져
영산재 시연서 함께 눈물 흘려

법당에 모여 동북부 대지진 피해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시청했다. 법요식은 니시오카 료코 스님의 개식사로 시작됐다. 먼저 일본 측 법요의식 ▷삼봉청 ▷참회게 ▷표백문 및 추모 · 발원문 낭독 ▷개경게 ▷회향 ▷일체정진게에 이어 한국 측 법요의식은 ▷추모사 ▷영산재 및 살풀이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요식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부회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국민과 불교계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의연히 대처하던 일본 국민에게 한국 국민은 감동했고,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을 보여준 한국 국민에 대하여 일본 국민이 감동한 것은 이심전심의 따뜻한 화답이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또 "서방정토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희생된 영가와 그 남겨진 가족에게 항상하시길 기원드린다"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발원문을 낭독,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은 감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심각한 피해를 낳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은 세계 각국과 지역에서 보내주신 많은 원조와 국경을 초월한 유대를 실감한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동아시아 불교권의 황금의 유대로 맺어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러분의 큰 자비심은 일본국민을 격려하고 복구를 위한 큰 추진력을 주셨다"고 전했다.



광명사에서 진행된 추모법요식에서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영산재를 진행하고 있다.

추모사 직후 진행된 영산재는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도현 스님(천태종 책임노전), 석용 스님(천태종 부책임노전), 진철 스님 등 천태종 범음범패보존회 스님 7명이 맡았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이서예 씨는 한국 전통의 살풀이춤을 시연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은 이날 법요식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일본국민이 흘린 눈물과 굳건히 참아온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강한 의지와 재건의 힘으로 회향되고 있다"며 "한국 불교도는 일본 국민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측은 법요식 전날인 8일 저녁 6시 한국 스님 및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를 위해 가마쿠라시 프린스호텔 연회장에서 만찬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 교류회 스님과 여성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만찬에서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지난 1월 입적한 지관 스님과 2009년 양국불교 교류 30주년을 축하하던 일이 눈에 선하다"면서 "양국 불교계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7일 일본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일본 전통음식체험을 주제로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위령재는 한 · 일 불교 우정 표현"

한일불교문화교류協 이사장 정산 스님



"한국 불교계가 커다란 아픔을 겪은 일본을 위로하는 것은 한국 불자들이 일본 불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두터운 정(情)의 표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들의 1주기를 맞아 양국 불교계가 봉행한 위령재 및 지진피해 복구 기원 법요식(3월 9일)에 앞서 8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은 일본 방문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산 스님은 "한국 불교계는 작년에 일본을 찾아 지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한 바 있다"면서 "한 · 일 양국 불교계는 33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교류를 하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기에 위령재는 1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해 다시 일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한 · 일 양국 불교계는 역사적 상처와 계속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정산 스님은 "일본에는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요,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 불교계가 일본 불교계와 일본인을 위로해주는 것은 바로 가족의 정(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 일 불교, 일원상처럼 같이 갈 운명"

일한불교문화교류協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



"양국 사이에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일원상처럼 같이 할 운명입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은 3월 8일 동일본 대지진 1주기 추모 위령재와 지진피해 복구 기원법요식을 봉행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결국 함께 운명이며, 적극적인 화합만이 해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니시오카 스님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1년을 되돌아보며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불행이 다 끝났다거나 복구가 된 것은 아니다. 불행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 한국불교계가 잊지 않고 이곳 일본을 찾아 추모 법요식을 또 한 번 치러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국 불교계가 힘을 합쳐서 그 비극을 이겨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니시오카 스님은 7일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있었던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여성불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월정사 · 日 선광사 평창올림픽 힘 모으기로

4월 1일 한국서 협약식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월정사, 평창군, 일본 나가노시, 선광사(善光寺)가 힘을 모은다.

평창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카마쿠라 광명사가 마련한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1주기 추모법요식을 하루 앞둔 3월 8일 일본 카마쿠라 프린스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정사와 선광사, 평창군과 나가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주지 정념 스님을 대신해 7일 일본을 방문해 나가노 선광사 주지 와라쇼류 · 총무 다카카즈 후쿠시마 스님, 와시자와 쇼이치 나가노시장을 만나 주지 정념 스님 명의의 자매결연 · 교류협력 요청 공문과 이석래 평창군수의 서신을 전달하고,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월정사는 선광사에 보낸 공문에서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고, 양 사찰간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귀 사찰과의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면서 "귀 사에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고 있어, 월정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구한다"고 자매결연과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선광사는 일본 3대 사찰 중 하나이며, 일왕이 다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월정사는 4월 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광사 주지와 총무, 신도, 나가노시장 등 15명을 초청했다. 협약식은 1일 월정사에서 열리며, 월정사는 선광사, 평창군은 나가노시와 각각 업무협약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협약 체결 후 선광사 총무 다카카즈 스님은 평창군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과 불자, 평창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의 준비 상황과 실패 요인 등에 대해 강연한다. 또 일본측 인사들은 월정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한다. 나가노시장의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정 조율 중에 있다.

원행 스님은 "월정사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이 남긴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 · 문화 ·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선광사에 자문을 요청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는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선광사 동종 타종으로 시작된 점을 참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상원사 동종 타종으로 시작하길 희망하고 있다. 원행 스님은 "월정사는 평창의 대표적 사찰이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지를 관리하는 유서깊은 도량으로 개막식을 열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취재단 제공

봉 조동종 종조 동산존자 양개대화상 다례재 및 덕담당 심월 대선사 제5대 승정원장 취임법회 행

✻일 시 : 불기 2556년 3월 29일(음 3월 8일) 오전 11시
✻장 소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수락산 도선사내)

추대 봉행 위원장 : 총무원장 대은
추 대 위 원 : 해륜. 덕성. 원봉. 보경. 광혜. 혜천. 우담. 해권.
봉 행 위 원 : 법화. 혜광. 혜각. 혜공. 혜오. 청운. 정민. 무일. 혜법. 고우. 소원. 혜산. 송담. 소담. 월광. 청정. 법문. 시권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02)2091-0408 / FAX 02)952-0408 홈페이지 : http://www.조동종.kr

美 대학 내 종교모임 늘고 있다

아타카大서 불교 · 가톨릭 모임 활발
외국인학생 美 대학생 종교성 자극한 효과

미국에서 탈종교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일부 대학가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교내 종교 모임의 다양성은 물론 수도 많아지고, 그 활동 역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양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해하려는 대학생들의 노력이 종교학 관련 강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매체 이타칸(theithacan.org)은 3월 7일자 보도를 통해 "이타카대학(Ithaca College)부설 종교관에서 재학생들의 종교 모임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칼스턴 마틴슨(Carsten Martensen · 대학 부설 종교관장) 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학 부설 종교관에서 매주 3번 이상의 종교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종교 모임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타칸은 UCLA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청년기와 종교-대학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7년간 연구한 결과,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년들 보다 종교에 더 관심을 보이며, 개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했다. 아티칸은 "동시대 대학생들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길 바라고 있다"며 "어떤 종교이든 그 공동체는 이런 대학생들의 쉽게 찾는 아울렛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마틴슨 교수는 "이타카대학의 경우, 종교관 이용 빈도를 생각하면 불교와 가톨릭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이들 두 종교 모임의 규모와 횟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만을 고집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 마틴슨 교수는 "이는 각기 다른 종교 전통을 따르는 학생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종교 모임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틴슨 교수는 "종파를 초월해 종교 모임을 만들고 헌신하는 것은, 종교를 회통하는 가르침인 나눔과 사랑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美 대학가에서는 좌선을 하고 명상하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한편, 이타카대학 불교공동체(IC Buddhist Community) 대표 크리토퍼 아케르도 2세(Junior Christopher Accardo)는 "학생 스스로 포교나 선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SNS도 효과적인 포교나 선교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히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이 모여 종교 모임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활성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모든 활동에 다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는 개신교공동체 대표 헌터 탐 2세(Junior Hunter Tom)는 "미국 대학 내 외국인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다른 관점을 폭넓게 접하게 되고, 이 과정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종교적 자극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탄, 국민의 51% "행복하지 않다"

부탄중앙硏 조사결과 발표…국민총행복지수위 반발

'행복의 나라'로 불리는 부탄이 행복하지 않다.

온라인 매체 허프포트스(huffingtonpost.com) 미국판(U.S. Edition)은 3월 3일 부탄중앙연구소(Center for Bhutan Studies)의 최근 '행복도 조사결과'를 인용, "부탄 국민의 51%가 아직 행복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허프포트스는 이와 함께 부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의 조카인 이왕 핀다리카(Yiwang Pindarica · 24) 왕자의 말을 인용,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층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들에게 불교와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는 큰 의미가 되질 못했다"고 전하고, "'행복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9%만이 부탄 정부가 1972년 내세운 행복조건(국민총행복지수)에 부합할 뿐"이라고 풀이했다.

부탄방송(Bhutan Broadcasting Service) 역시 이번 조사결과를 보도하며 "정부는 종교와 자연에 의지한 행복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부탄 국민은 윤회를 믿는 착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그 다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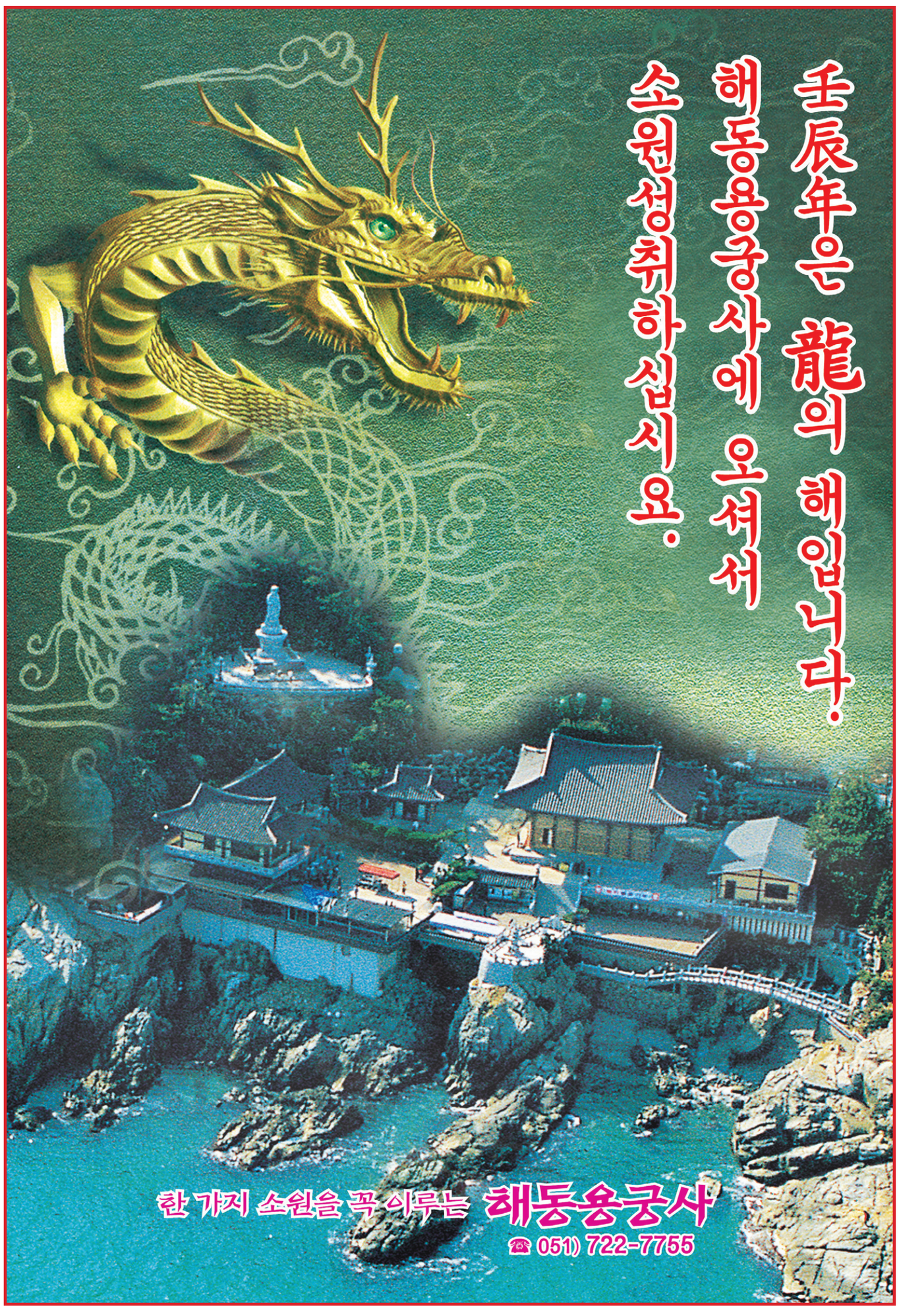
이에 대해 부탄 정부의 국민총행복지수 위원회 트씨팀(Tshiteem) 대변인은 "부탄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7142명 중 90%가 '행복하다'고 응답했다"며 부탄중앙연구소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불교는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이며, 부탄 국민 대부분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탄은 '행복한 나라'였으나 최근 국민 51%가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해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이하 GNH)는 1972년 부탄 정부가 '행복은 국가 경제력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데서 내세운 행복의 개념으로, 2007년 4월 OECD는 국민총행복을 목적에 따라 평균행복(Average Happiness), 행복수명(Happy Life Years), 행복불평등(Inequality of Happiness), 불평등조정행복(Inequality-Adjusted Happiness)의 4개의 세부 행복지수로 구분하고 각 국가의 GNH 정도를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GNH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0월 "부탄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 범죄, 폭력, 마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부탄 정부는 경제가 탄탄해야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독특한 시각의 탁월한 선불교학자

세계의 불교학자(10)

베르나르 포르 美 콜롬비아대 교수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교수는 프랑스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불교학자이다. 파리대학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정치학 · 종교학을 연구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 등에서 10여 년간 아시아 종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1988년 스탠포드대학 종교학과 재직 후, 스탠포드 불교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콜롬비아대 교수로 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콜롬비아대 교수로 지내며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강연을 맡고 있다. 포르 교수의 강연은 대체로 불교 전통과 그 주변 문화적 요소들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2004년 일본 교토와 나라를 오가며 일본의 성산(聖山) 숭배의식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학문적 평가는 그가 창의적인 선불교 연구자라는 것이다. 그에게서는 문헌학에 치우친 불교학자들이 보여주는 연구범위의 편협함이나 전방위적 지식의 결핍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진다. 또, 종교연구자들이 이론적인 담론 생산에 치우친 나머지 가지기 쉬운 문헌학적 소양의 결핍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베르나르 포르 교수가 종교사학자로서 또는 동아시아 불교연구자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자는 인도불교 · 티베트불교 연구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문헌학자여야 한다는 부담없이 일면 자유로운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연구는 방법적으로 전통적인 역사기술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선사상 관념을 해체 · 비판한다. 포르 교수는 이를 위해 세밀하게 수집한 방대한 분량의 2차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프랑스 학풍의 영향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에게서 불교연구에 민족지학 자료까지 채택했던 드미에빌(P. Demieville)의 경향을 비롯해 1950년대 뒤몽(L. Dumont)의 그룹에 모였던 구조주의적 인도학자들, 프랑스 철학자 푸코를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주목할만 하다. 그만큼 베르나르 포르 교수에게서는 프랑스의 지적 풍토가 배어 나온다. 베르 교수의 연구자료와 방법론에서는 확실히 혼종적인 연구성격이 보인다.

세계2차대전 후 미국 아카데미 내에서 선불교 연구는 북종선 연구 중심의 초기 선종연구와 일본불교 특히 도겐(道元)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전자는 돈황문헌과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의 연구에 자극 받은 결과였다. 후자는 미국 내 일본불교의 영향과 그에 따른 교토학파의 철학적 저작들에 대한 지적인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양쪽 주제 모두에 영향을 받고 또 비판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후일 단행본으로 출판된 〈전통을 향한 의지:북종 선에 대한 비판적 계보(The Will to Orthodoxy: A Critical Genealogy of Northern Chan Buddhism〉가 그 예이다. 책에서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 훈련 과정과 출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책에서는 야나기다식의 전통적인 역사비평의 연구경향도 보인다. 즉, 신수(神秀) 이래의 정치적이고 지적인 맥락을 보여주고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를 통해 만들어지는 북종선맥의 '정통성'을 살폈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는 책을 통해 〈능가경〉 계통의 조사들의 어록을 다루며 북종선의 어록들을 경전의 위치, 즉 정통성을 지닌 경전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불교와 다른 학파들과의 상호의존적인 복잡성을 그 근거를 제공했다. 전체적으로 지와 관, 돈과 점의 수행, 성과 속의 구분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북종선의 절충주의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포르 교수의 이러한 절충주의는 북종선이 신회로 대비되는 남종선과 달리 독립된 〈단경〉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이 책은 일본에서 공부한 대표적인 미국 선불교학자 존 맥크레이(John McRae)의 연구 성과물인 〈북종선과 초기 선불교 전통의 형성(The Norther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early Chan's Tradition〉(1986)과는 시기적으로나 연구 결과적으로도 동일선상에 있다.

창의적인 선불교 연구자 학문평가
전통 역사 기술 초월해 선사상 비판
프랑스학풍 영향…독특한 연구방법
서양식 선불교 연구 보여줘 호평

베르나르 포르가 선불교연구자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즉각성의 수사학 The Rhetoric of Immediacy〉(1991)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야나기다의 학문적 그늘 아래 있던 일본식 연구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진정한 '서양식' 선불교 연구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불교 연구의 소재부터 새로웠다. 그는 기존 선불교 연구에서 주로 취급했던 순수한 역사적 자료들을 선택하는 대신, 승려들의 환술법이나 기적현상, 불교 장례법, 불교 미이라 숭배현상, 꿈과 섹스 등의 소재 등 과거에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연구했다. 그리고 포르 교수는 이러한 종교적 현상들이 선불교 전통 속에서 함께 존재해 오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와 병합시켰다.

베르나르 포르 교수의 불교연구 특징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정리된다. 그의 대부분의 저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국의 자료들이 한꺼번에 활용되고 있다. 그 자료가 갖는 시대적인 간격도 매우 넓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이론적인 분석이 덧씌워진다. 다소 위험하게 보이는 이러한 서술방식이 서구의 불교학자들에 의해서도 거의 큰 비평 없이 수용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지식의 폭을 말해준다.

조동섭 기자

달 밝고 바람 맑으니 이것이 본래면목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⑯ 조계산 호랑이들

경허 스님의 명성이 방방곡곡을 울릴 즈음 송광사에서 스님을 청했다.

경허 스님을 불사 점안, 즉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고 불상의 안정에 점을 찍는 의식의 증명법사로 초청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의 무애행이 파격적이라 스님을 초청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스님의 경지를 알고 있는 대중들에 의해 초청된 것이었다.

자연히 송광사 점안법회는 큰 관심을 끌었다.

바랑에서 돼지 뒷다리 꺼내니
황소만한 호랑이 법당 난입
경허 스님 법당 밖 바위에 가부좌
호랑이들 설법 듣듯 스님 앞에 엎드려

송광사에서는 증사단(證師檀)을 호화스럽게 꾸민 후 경허 스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경허 스님의 점안을 보기 위해 대사찰인 송광사와 그 주변의 말사, 암자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법당을 가득 채웠다.

이윽고 경허 스님이 나타났다. 그러나 경허 스님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소리 죽여 말하는 이들은 경허 스님을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측이었다.

"아니 어쩌시려고……."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측은 경허 스님을 초청하자던 대중들이었다.

법당 안에 들어선 경허 스님은 대중 앞에서 성큼 단상으로 올라갔다. 스님은 먼저 공양주를 불렀다. 그리고 메고 온 바랑에서 난데없이 술병과 돼지 뒷다리를 끄집어냈다.

"이거 얼른 삶고 데워 와!"

법당 안에 모인 스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증명법사로 오신 스님이 술과 고기라니? 특히 증사단에는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었다.

이런 경허 스님에 대한 불만은 특히 젊은 스님들 사이에 더욱 크게 일었다.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는 '증사고 뭐고 미친 주정뱅이를 쫓아내자'는 공론마저 일었다. 이런 동요는 노장 스님들의 만류로 겨우 진정됐다.

그러던 순간이었다. 황소만한 호랑이들이 법당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증사단 앞에서 경허 스님을 끌어 내리려던 스님들에게 호랑이들은 눈앞에서 시퍼런 안광을 내뿜었다.

경허 스님은 주장자를 끌고 법당 밖 넓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바위에 올라앉은 경허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았다.

여러 마리 호랑이 중에 두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경허 스님이 앉아 있는 바위로 다가왔다. 바위에 올라간 호랑이들이 경허 스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경허 스님은 여전히 묵연 삼매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호랑이들은 이런 스님 앞에서 마치 설법을 듣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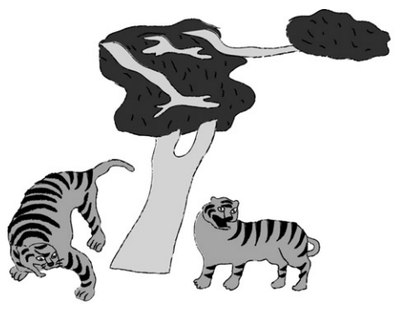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은 사태 변화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경허 스님은 한참 만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 다 물러가 해탈문에 들도록 하여라."

경허 스님의 우렁찬 말이 떨어지자 호랑이들은 모두 일어나 조계산(曹溪山)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다. 경허 스님은 그 후 증사단으로 올라 무상의 묘법을 설했다.

"술과 고기 맛이 기가 막히니 이곳이 고불(古佛) 도량임을 알겠다. 분명 물은 맑고 산은 푸르리라.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것이 본래면목(本來面目)의 소식이 아니겠는가. 천상에서 내려오는 부처들이 곧 그대들의 불성(佛性)이로다. 그 불성에 눈뜨지 못한 자 오늘에야 눈을 뜨리라."

경허 스님은 그렇게 말한 뒤 불상에 점안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조계산 속으로 호랑이처럼 사라졌다. 대중은 사라져가는 경허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⑰ 〈대방광불화엄경〉의 소식

하루는 경허 스님이 오대산 월정사를 지나게 됐다. 당시 월정사 방장으로 있던 인명(寅明)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화엄경〉 설법을 청해 3개월간 월정사에서 화엄경 법회를 진행됐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승속이 청법하는 자리에서 경허 스님은 의연히 법좌에 올라 말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이라."

경허 스님은 먼저 대(大) 자에 대해 설법했다.

"대들보도 대(大)요, 댓돌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숫대도 대요, 담뱃대도 대니라."

경허 스님은 곧이어 방(方) 자에 대해 설하길

"근 방도 방이요, 지대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북 사방도 방이니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광(廣)자로 법문을 이어나갔다.

"쌀광도 광이요, 찬광도 광이요, 연장광도 광이요, 광장도 광이니라."

불(佛) 자에 대해 "등잔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화롯불도 불이요, 번갯불이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며, 횃불도 불이니라."고 말했다.

화(華) 자에 대해 "매화도 화요, 국화도 화요, 탱화도 화요, 화병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화엄경〉도 화니라"고 설법했다.

엄(嚴) 자에 대해서는 "엄마도 엄이요, 엄살도 엄이요, 엄정함도 엄이요, 화엄도 엄이니라."

또 경(經) 자에 대해서는 "면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인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니라"고 말했다.

경허 스님의 자유로운 노래에 대중은 모두 흥미를 느꼈다. 경허 스님은 이어 〈화엄경〉에 대한 심오 무변한 대의진수(大義眞髓)를 3개월 간 설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 · 박구원

그리고 메고 온 바랑에서 난데없이 술병과 돼지 뒷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3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3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법정 스님은 마음을 여는 '시작' 같은 어른

어깨춤 추는 선무당 임의진 목사

"제 가슴은 예수인데 머리는 맑시즘입니다. 그래서 조·중·동하고는 불편하고, 글도 한겨레나 경향신문밖에는 받아주지 않아요. 빨갱이라고. 어떤 동물이 빨간 빛깔을 처음 알아보고 가장 귀하고 영양가 있는 열매를 먹게 된 순간 사람이란 존재가 되었다고 해요. 빨갱이가 좋은 건데." 강진 남녘교회에서 십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병풍산 자락에다 흙집을 짓고 안데스 고구마라는 야콘이나 블루베리, 감자 농사를 지으며 그림 그리고 노래도 하며 어깨춤 추는 선무당 임의진 목사(45). 혼자 살기에 집안 일이 적지 않다. "집에 있으면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요 산밭 일구고 일이 많아요. 장작도 패야 하고 개들도 돌봐야 하고 빨래하지, 밥하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던 임의진 목사. '예수를 닮아가고 부처를 닮는 삶은 뜻 없는 삶이고, 우상숭배다. 참 삶이란 임의진으로 사는 삶'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목사였다가 떠돌이별이 되어 이것저것 다 해요. 글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스스로 '어깨춤 임의진'이라 부르는 가무歌舞에 능한 신바람 목사 임의진은 신선이 돌아오는 회선재回仙齋에서 선무당仙舞堂으로 산다. "선무당, 난 진짜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나를 좋아하지 마라. 그런 이름 없음이 주는 즐거움. 묻히는 삶, 비껴서는 삶이 귀하게 느껴져요. 주목받지 않음이 종교인으로 사는 삶인데, 스타목사가 아닌 거름목사, 꽃이 되기보다는 거름이 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법정 스님은 거름 같은 분이세요. 저한테 세상에 벽을 만들지 말고 문을 만드는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예전 선비들이 시서가무詩書歌舞에 능통하듯이,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막고 안으로 깊어지는 길을 찾아가다보니 예술인이 되어가요. 연민으로 경직된 세상, 불평등을 해체하고 해소시키는 일이 사제가 할 일이거든요."

임의진 목사는 무등산 증심사 일철 스님과 무등산 개발을 막는 일로 만나 투쟁을 함께하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단 사람들이 뜻을 모아 만든 '무등산풍경소리'란 음악회를 진행했다. 올해 4월로 100회를 맞는데 유수한 가수들이 노래하고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을 이야기하는 음악회로 소중한 광주문화자산이다. 미황사 금강 스님과도 서로 종을 달아주는 인연을 맺은 종교를 뛰어넘은 길동무 사이다. "일철 스님과는 띠동갑인데 제가 동생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산책을 할 때도 남자 둘이 손잡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만, 무등산풍경소리음악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3년 간암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해남 미황사는 창건한지 천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절로 모셨는데, 범종불사를 한다고 해서 남녘교회는 신자들이 성령강림절에 낸 헌금 23만 7천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보탰어요. 그랬더니 미황사에서 교회 종을 달아주셨어요. 타종식날 스님에게 먼저 종을 치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막아서요. 교회 종인데 목사님이 먼저 쳐야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스님들은 다 동방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 먼저 치셔야지 어떻게 목사가 먼저 치느냐고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러 먼 길 오신 동방박사라는 말에 단박 박사님이 치셔야지 그래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교단 소환 명령이 떨어지고 한겨레에 기사가 나가면서 죽이겠다는 전화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법정 스님은 임의진 목사가 목회하던 남녘 강진에 가끔 다녀가셨다. 백련이 지닌 깊은 기품을 좋아하셨던 스님은 강진군 성전면 조그만 금당연못에 핀 눈부시도록 새하얀 백련을 무척 아끼셨다. "금당연못이 우리나라 백련 원류에요. 제게는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해준 연못입니다." 류시화 시인 연락을 받고 법정 스님 연꽃 마지에 동참한 임의진 목사에게 스님이 말을 건넸다. "임 목사, 잘 지냈어요?" "스님 덕분에 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무슨 덕분. 늙은이는 기도발이 약해." "저는 기도는 않고 바흐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스님 책에 보니까 바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무반주 첼로. 모든 게 무반주 첼로예요. 저 바람소리도 그렇고 찻물 내리는 소리도 그렇지요. 단순 소박하고, 검박하고 맑아요."

법정 스님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누리는 자유로움 좋아했기에, 영혼이 자유로운 임의진 목사를 만나러 오면서 자연스레 그리스인 조르바를 떠올렸다. "법정 스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조르바 캐릭터라고. 권정생 선생님도 저를 아껴주셨는데, 제게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예수에게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가장 부럽다고 하셨어요. 수행자 가운데 결혼까지 하는 개신교 목사가 가장 진화된 모습이지요. 종교인이 할 일은 궁극에는 종교를 없애는 데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수행자가 평범한 세속에 끼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임의진 목사, 남녘교회에서 10년 목회 생활을 할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일이 신자들이 내어놓은 돈으로 살아가는 일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예수를 닮아가고 부처를 닮는 삶은 뜻 없는 삶이고, 우상숭배
참된 삶은 자기답게 사는 삶
꽃이기 보다는 거름이 되길



임의진 목사는 동네에서 임氏로 불린다. 그는 적적한 삶이 자신을 더 깊게 한다고 말한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법정 스님이 계셨어요. 얼굴 팔려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임목사답게 살라고 이르셨어요."

""제 캐릭터가 은둔 캐릭터에요. 그렇지 않으면 호방한 쪽으로 흐르기 쉽죠. 제가 TV 출연 따위를 좋아했더라면 오늘 저는 없었을 테지요. 저도 철없을 때 텔레비전을 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법정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여성지에 모습 드러내지 말고, 얼굴 팔리려 하지 말고, 세상에 대해 엄격하고, 임목사답게 살라고. 그러면서도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면서,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르셨어요. 잡은 하늘 줄을 놓지 말라고. 그 뒤로 이제껏 TV출연을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기를 지켜가려고 해요. 더 숨으려고 애쓰는데 글을 쓰다보니까 인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삿됨은 많이 가두고 거룩함에는 더욱 문을 열려고요." 자유인이 되고자 출가를 한 법정 스님은 단순하고 간결한 삶 안에서 자유를 찾아, 가장 절제된 수도승으로 남았다. 절제가 없다면 자유로움은 빛을 잃는다.

"법정 스님도 때에 따라 큰 욕을 해대셨어요. 스님이 4대 강이나 환경파괴 문제를 아주 격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어른도 계신데 스님은 흐트러지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셨어요. '이건 아니다!' 분노하고 결기를 세워주신 스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수행자는 사회 마지노선이잖아요. 하한선. 그걸 스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나 석가모니하면 평화로운 모습만 떠올리지만 그 분들이야말로 세상 멱살을 잡아 뒤흔든 분들이었다.

임목사는 '조르바' 캐릭터
예수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목회를 하며 부담스러웠던 일은
신자들이 낸 돈으로 살아가는 일

임의진 목사는 법정 스님 삶에서 특별히 경계 없음을 배웠다고 말씀한다. "스님이 당신을 가두지만 그 까닭은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승려로써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경계가 없으셨어요. 어느 해인가. 성탄절 전에 길상사엘 갔더니 밖에다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고 하는 펼침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점심공양 자리에서 법정 스님이 '예수 왔다고 펼침막도 붙여줬으니까. 임목사 많이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시작 같은 어른이세요. 스님은 저를 보시면 언제나 불일암 같은 교회 잘 하고 있느냐고 안부를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명동성당에 가신 스님 모습만 떠올리지만, 작은 암자 같은 남녘교회에 오신 스님도 계셔요." 임목사는 법정 스님은 당신 씨앗을 던져준 분이라고 한다.

"스님이 〈오두막 편지〉라는 책을 내시고 나서 제책 〈참꽃 피는 마을〉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서 신문광고를 같이 했습니다. 감히 제가 스님하고 한 지면에 나란히 오르는 영광을 누렸죠. 스님이 책에 사인해서 주시면서 '읽을 것 없다. 임목사 글은 펄펄 뛰는 삶이 있는데 내 글에는 삶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몸 둘 바를 몰랐어요. 스님은 좋은 찻잔만 보면 갖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이뻐. 옛날에는 여자도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마음에 없고 찻잔에만 마음이 있네.' 그러시면서 지금도 좋은 글을 보면 나도 저런 글을 써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드신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게도 이미 좋은 게 많은데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지요." 그런 삶이 스스로 생각해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임목사. 요즘 러시아 정교회 수도승 은수자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 3층 목각탑
높이 85cm
가로, 세로 35cm
가격 5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세로 20cm
가격 35만원

- 黑龍의 해, 흑룡족자로 만사대길 -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에 집안 및 사업장 벽면에 흑룡족자를 걸어놓으면
힘찬 용의 기운으로 사업번창, 소원성취, 건강기원, 삼재소멸(쥐띠,용띠,원숭이띠)



▣ 흑룡족자 : 폭 60cm 길이 93cm
재질 : 비단천 / 가격 3만원

⇒



용 확대사진



▣ 오색 매듭팔찌 / 가격 2,500원
윤달이 드는 해에 다섯가지 실로 매듭한
팔찌를 합장하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 해상용왕 높이 82cm
문수동자 높이 70cm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좌우협시불)
재질 : 마블(특수불)
가격 70만원
(해상용왕, 문수동자 1set)



▣ 독성나반존자
높이 74cm
재질 : 마블(특수불)
가격 50만원

고 전 상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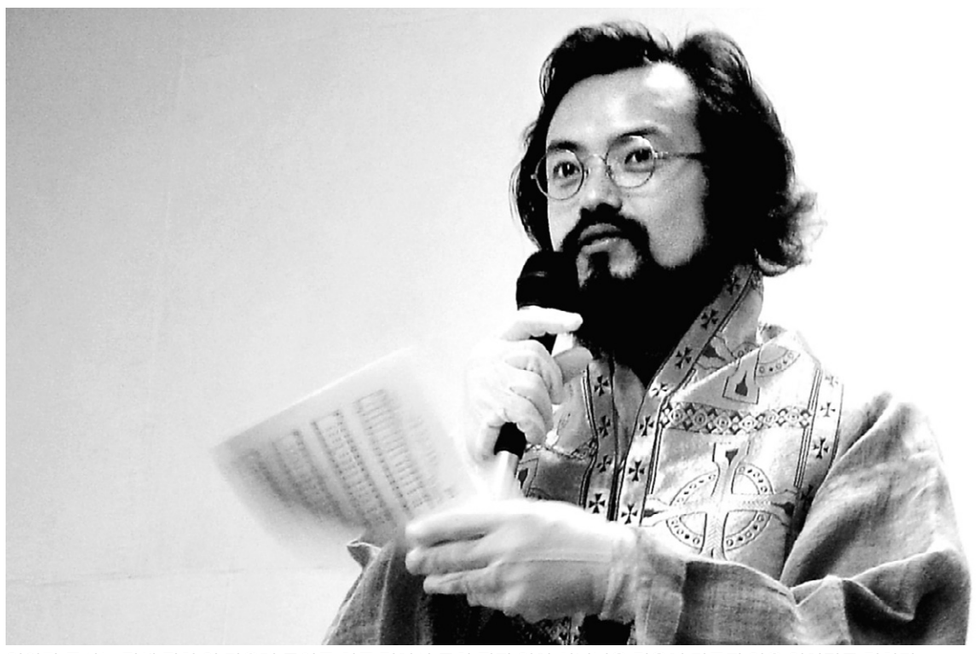
주문 문의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법정 스님과 임의진 목사



임의진 목사는 평생 잘한 일 가운데 교인들 헌금 걷어서 교회 짓지 않아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다.

隱修者, 은둔수도자들 책을 읽으면서 은신처에 숨어 사는 삶을 음미한단다. "문패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선 그저 임씨라 하죠. 뿌듯해요. 그런 삶이 저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법정 스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겨요. 한 달에 열흘은 서울 가서 음반회사 일을 보면서 조금 벌어요. 밥벌이를 해야 하니까요. 법정 스님이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탈 때 과속을 해서 딱지가 날아왔다고 그러셨는데 서울을 벗어날 때 통쾌해요. 되게. 적적한 삶이야말로 저를 더 깊게 하고 혼자 누울 때 그 서늘함이 제 영혼을 어루만지고.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삶이."

임의진 목사는 평생 잘한 일 가운데 교인들 헌금 걷어서 교회 짓지 않아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은 일이란다. "남녘교회는 있던 교회를 그냥 쓴 거예요. 사람들에게 형식이 필요하니까 공간도 필요해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 안에서 종교생활을 했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연을 적게 맺으려고 해요. 더 좋은 친구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찾기보다는 있는 친구하고 잘 지내면 되잖아요. 모자라지만 더 욕심부리지 않고, 제자를 두지 않는 삶도 참 행복해요. 그 점에서는 법정 스님보다 훨씬 행복해요. 여행자로 혼자 도보여행하고 가는 거니까."

3세계 전사로서 로마국가보안법에 맞서는 삶을 살다간 예수 삶이 옳았다는 신념을 가진 임의진 목사. "제 삶이 작은 게릴라 투쟁이에요. 저는 주류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3세계 월드뮤직. 스페인노래나 포르투갈노래, 멀리 아프리카노래를 골라서 들려주는 일을 해요. 요즘엔 노르웨이노래 수입한 걸 편집하고 있어요. 다양성을 만들려는 투쟁이지요. 수염을 기르는 것도 다양성 투쟁 가운데 하나에요. 수염을 기르니까 인사동파로 오해를 많이 해요. 남녘교회에 있을 때 한복을 입고 주일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니까. 그랬더니 주사파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제 안을 들여다보면 음반이고 악기고 다 외국이에요. 나라밖 게 어디 있고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비빔밥이에요.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저 같은 목사도 하나쯤 있어야 하죠.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리라 여기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도 있어야 해요. 삶이, 호흡이 기도인데 달라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욕심 있는 기도는 기도가 죄에요. 요즘 제 기도는 '그만 둘게요. 포기할 게요. 안 할게요.' 에요. 행여나 또 인연이 생길까봐."

스님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셨다
수행자는 사회 마지노선
스님은 당신 씨앗을 던져준 분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갔다며 예수 자살론을 폈다. 확신범,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내 모두를 거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판을 깨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러시아 볼세스키 혁명처럼 거대제국, 캐피털리즘을 깨뜨리는 힘에요. 기존 가치를 언제든지 부정하는,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아니다. 더 나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꿈꾸게 하고 또 꿈을 깨게 하고 또 꿈꾸게 만들고, 자꾸 틀을 깨는 데 있어요. 법정 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도 방외方外이지만 뿌리가 본류에 있어요. 전통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 찾아? 절대 아닙니다. 전통을 가져 오되 전통에 들러붙어 있는 세속주의를 걷어내서 오늘 어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저 경전을 따라 되뇌는 일은 시체운반이죠. 법정 스님이 남다르셨던 까닭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청빈하게도 사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누구나 알기 쉽고 따뜻한 현대말로 풀어서 들려주신 일이에요."

지난해 10월 5일 조계종단은 한글 〈반야심경〉 표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모든 법회에서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법정 스님 노력이 크세요. 대중이 그걸 원하게 만드셨죠. 저도 그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인데 법정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아름답고 오묘한 내용을 대중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불교가 어려우니까 내가 해석해준다' 는 거룩한 사람만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경전을 우리 모두에게 돌려 주셨어요. 〈숫타니파타〉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없구나. 법정 스님이 불교 현대화에서 가장 큰 화두를 던지신 분이다. 스님이 참 큰일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법정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일은 스님에게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정 제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제 길을 닦아나가는 일이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에요. 절집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저는 바깥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불자라니까요. 저는 불교도 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살다보니까 그림하지, 노래하지, 시인, 수필가, 동화작가이기도 해요. 예수동화를 썼는데 이번엔 붓다 동화를 쓰고 있어요. 이 부처님은 기적을 하지 못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냥 우리 동무인데 연민이 너무 많아, 사람들 아픔을 같이 느끼려는 동무에요." 신바람을 일으키는 어깨춤꾼 임의진 목사는 "내 시를 가지고 내가 노래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 음반 〈멜랑콜리 맨〉을 내고 3월 25일 오후 4시 유나방송 담마홀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임의진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내 박노해 시 '회향廻向'.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처가 위대한 건 /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 고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 부처가 부처인 것은 / 회향했기 때문이다 // 그 모든 것을 크게 되돌려 / 세상을 바꿔냈기 때문이다 … 그대 /오늘은 오늘의 연꽃을 보여 다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사색의 안마



동국대 명예교수

거리를 걷다 보면 안마나 마사지 간판이 눈에 띈다.

안마는 고대 중국의 침 · 뜸과 더불어 발달한 한방의료의 물리요법으로서 안교도인법(按蹻導引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래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수나라의 〈병원후론(病源候論)〉에 당시 도사(導士)들 사이에 성행했던 양생방법에 안마가 소개되어 있다. 당나라의 〈천금방(千金方)〉 권27 양생편과 〈천금익방(千金翼方)〉에 안마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 어원은 억안조마(抑按調摩)로 지압 · 마사지와 함께 일점압박(一點壓迫)의 압자극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합압을 하여 생체에 작용해 압반사로서 신체조직 · 내장기능의 변조를 조정시킨다. 안마의 명칭은 시대변천에 따라 안교(按蹻) · 추장(推掌) · 마사지 등으로 불렀고, 일제강점기에는 지압이라 불렀다.

마사지란 말은 아라비아어의 '압박(mass)' 과 그리스어의 '주무르다' 에서 기원한 것이다. 손으로 몸의 순환계 · 신경계 · 근육계에 생체반응을 일으키도록 누르거나 두드려 기능의 상태가 달라짐을 조정한다거나 질병의 치료를 하는 시술(施術)이다. 물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업소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오늘날 안마는 상당히 변형돼 향락문화의 한 유형쯤으로 간주하게 됐다.

옛적부터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몸의 치료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술 또한 도외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몸의 기능 못지않게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성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참된 스승이라고도 한다. 성인들은 생계를 꾸리는 데 치중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조금도 관심을 끌지 않았다. 진정한 삶의 역설은 우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우리 곁에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 유형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체험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 때 마음에 환희가 따르게 된다.

붓다의 자비는 무슨 색깔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아마 흰빛이 아닐까. 사람들은 흔히 흰빛을 아무 빛깔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모두 포함한다. 흰빛은 존재하는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이다. 흰빛과 같이 자비의 속성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대를 무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비는 증오 분노 질투 탐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合)이고 총화이다.

진실한 자기의 발견은 사색에 기초한다. 누에는 열심히 먹고 배설을 거듭해 마침내 누에고치 속에 자기 몸을 가두어 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세계이다. 명(明)과 무명은 손바닥과 손등의 작용과 흡사하다. 마치 손을 쥐면 주먹이라 하고 손을 펴면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나 게를 보고 있노라면 느끼는 바가 많다. 그들은 등에 몇 톤이나 되는 수압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인간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수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무명의 누더기를 벗고 자기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라는 작은 구멍으로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숨을 쉬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수륙중생의 삶과 그 궤(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흰색은 모든 색 섞인 빛깔
부처님 자비도 흰빛과 같아
분별않고 상대를 무한히 수용
사색은 흰빛으로 가는 자기 정화

이 세상에 제일 큰 소리는 우주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흔치않다. 아마 제일 큰 소리는 내면의 소리일 것이다. 사색의 묘미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데 있다. 내면은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큰소리이다. 나 외의 모든 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말해주는 소리를 역력히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는 신기하게도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가 된다. 사색은 무수한 주파를 보내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려 애쓰지 말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고 말이다.

붓다의 사색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험을 하였으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사색하는 일이다. 사색은 자기점검이며 자기정화 작업이다. 사색을 통해 무명의 실타래는 단번에 싹뚝 잘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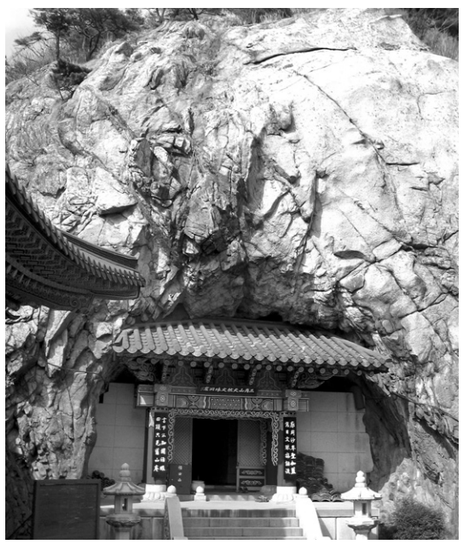


왕이 향 올리고, 중국 사신은 종사 안녕 기원

지혜의 도량 삼각산 문수사

삼각산 문수봉 아래 문수사
이승만 대통령 잉태케 한 기도도량
빼어난 경치, 고려시대 탄연 · 이장용과
조선시대 북학파 이덕무 등 풍류 읊기도


문수의 지혜는 외도를 조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향을 가르쳐준다. 서울의 사찰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문수사 대웅전


문수사의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 500나한을 함께 모시고 있다.

삼각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신라 때는 부아악(負兒岳)으로, 화산(華山)으로도 불렀다. 잇닿은 봉우리와 겹겹한 산봉우리가 높고 낮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비류(沸流)와 온조(溫祚)가 남쪽으로 내려와 이곳에 올라 이제 살 만한 땅을 찾았다고 했을 만큼 좋은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남경(南京)으로 불리며 중요시돼 한때 천도 계획까지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 삼각산 비경을 노래한 시가 많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색도 "소년 시절 책을 끼고 절간에 머무를 제, 돌다리에 뿌려지는 샘물 소리 고요히 들었네. 멀리 보이는 서쪽 벼랑에 밝은 빛 반짝반짝, 두어 마디 종소리 저녁 햇빛 향해 치네"라는 삼각산에 대한 시를 남겼다.

공민왕 때 언관을 지낸 이존오(李存吾)도 "세 송이의 기이한 봉우리 멀리 하늘에 닿았는데, 아득한 대기에 구름 연기 쌓였네. 쳐다보니 날카로운 모습 장검이 꽂혔는데, 가서 보니 들쭉날쭉 푸른 연꽃 솟았네. 언젠가 두어해 동안 절간에서 글 읽을 제, 2년간 한강가에 머물렀네. 누가 있어 산천이 무정타고 말하던가. 이제 와서 서로 보니 피차에 처량하네"하며 자신의 시에 삼각산의 비경과 세월의 무상함을 남겼다.

삼각산 주봉은 백운대이다. 그 옆의 인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는 까닭에 삼각산이라 한다. 그런 지명이 일제시대 이곳에 있던 북한산성을 따서 북한산이라 바꿔 부르면서 지금은 모두 그렇게 부른다. 북의 백운대에서 남으로 문수봉 · 보현봉에 이르는 능선은 길고도 아름답다. 산세가 좋아 일찍부터 비경과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읊은 시가 많다.

일찍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던 탓에 봉우리마다 불교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수봉 밑에 있는 문수사는 서울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듯싶다. 이름만큼 의미도 크다.

문수보살이 누구인가? 여러 보살 가운데 으뜸이 되는 상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쓰고 있는 오발관(五髮冠)과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검(利劍)은 문수의 지혜를 상징한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지혜의 증득에 있음을 시사한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다려지는 선지식이다.

문수보살 신앙은 인도에서 다섯 봉우리의 산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며 그 명호를 지성을 칭념하면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 했다. 이것이 티베트, 중앙아시아로 전해져 많은 영험 사례를 만들어 냈다.

중국에서 문수신앙은 동진(東晋) 이후 점점 증가하면서 당나라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신라의 자장 스님이 중국 청량산에서 문수대성을 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오대산 신앙의 확립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의 문수보살 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먼저 재난을 멈추게 하는 현세구복적 신앙관이 두드러지며, 둘째 동자현신(童子現身)을 통한 어리석음의 타파, 셋째 우리나라가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고 하는 불연국토사상 등이다. 이런 신앙관은 고려, 조선에 이어지면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현실화 시키려는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문수사는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문수봉 밑에 자리하고 있다. 지혜를 안고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봉을 바라보고 앉은 대웅전은 세월의 무게만큼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이다. 문수사의 사격이 제대로 전해지는 않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 겪어온 전쟁과 화마 탓이다. 별로 남아있지 않은 자료 속에 그나마 고려시대 문수사를 묘사한 글이 있어 다행이다.

고려 초 탄연(坦然)의 시에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틈으로 뚫고 가고, 샘은 구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라고 했다.

작은 암자 문수사의 고요한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달 밝은 밤 문수봉과 보현봉의 고운 자태를 보는 듯 아름답다. 이런 탄연의 시가 있음으로써 문수사는 1109년(예종4) 탄연이 창건했다는 설을 넘어 그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문수사의 경관을 노래한 시는 고려 후기에도 있다. 이장용(李藏用)이 이곳을 찾아 절경과 자신의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신종 4년(1201) 태어나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고려 문벌귀족의 대표인 이자연(李子淵)의 6대손이다. 이자연은 불심이 깊어 아들을 출가시켰다. 그가 당시 왕실 사찰인 현화사 주지인 덕소이다. 더 나아가 손자인 이자겸도 불심이 깊어 그의 아들 의장을 출가시켰다. 그 역시 현화사 주지를 지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인 이장용 역시 불심이 깊었다. 원종 10년(1269)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하자 원나라에 가서 원종을 복위시키고 돌아왔다. 그러나 왕이 폐립될 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이듬해 파면 당했다.

벼슬을 놓고 세상을 유랑할 때 삼각산 문수사를 들렸다. 고요한 적막 속에 있는 사찰을 보니 인생사 무상함이 복받쳤다. 자신의 시에 "벼슬길 그만두려 하나 어리석어 어찌 하리, 좋은 일 가시기 쉬우니 더구나 애석하도다"라는 표현과 "인생들 무어라 허덕이나. 쉽사리 의관 벗지 못함은"이란 표현으로 신세를 달랬다.

그는 삼각산 문수사에 들러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을 묘사했다. 예나 지금이나 문수사는 오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돌층계가 들쭉날쭉 90층이 되는 문수사의 전경은 기이해 세상에는 없는 청련궁(靑蓮宮)이며 크게 슬기로운 진인(眞人)의 집이라 표현했다. 지금 문수보살을 모신 석굴은 돌이끼 아롱지고, 수풀 속의 감실로 단청이 눈부셨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석굴 앞에 전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장용은 그런 전각을 보고 법계로 들어가는 입구라 하였다. 또한 옛날 선왕이 어향(御香)을 올렸고, 지금도 중국 사신이 와서 종사의 안녕 기원한다는 것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다.

조선조 북학파의 이덕무(李德懋)가 21세 때 친구들과 북한산 사암 11곳을 다니며 감회의 글을 남긴 것이 기유북한(記遊北漢)이다. 문수사를 참배한 그는 석굴을 따라 들어가니 물방울이 비 오듯 옷을 적신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불상 좌우에는 5백 나한을 모셨으며, 이곳을 문수사 또는 보현사라 부른다고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문수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인연이 깊다. 그의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기도한 이후 그를 낳았다. 문수의 지혜가 감응한 것일까?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힘든 환경에도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보다는 이박사로 불렀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생각 역시 큰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한때 독재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의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누구에게나 공과는 있다. 자유당을 이끌며 행한 독재는 과오이다. 그러나 먹을 것 하나 변변하지 못했던 경제와 6 · 25를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국가를 이끈 것은 공이다. 게다가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보지 않았던 민중들이 아니던가. 문맹률이 높아 이해력이 부족한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게 하는 것은 웬만한 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그가 82세 이곳을 올라 현판을 쓴 일이 있다. 기독교를 믿었지만 자신의 태동이 있었던 곳이기에 지나칠 수 없었나보다. 문수의 지혜를 빌어 나라를 다스렸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줄지 않았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작금의 정치를 보니 그런 지혜가 있는 지도자의 출현이 간절하다.

지금도 문수사는 화려한 전각이 없다. 세간의 여느 암자와 비교해도 규모가 작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동안 불러온 문수봉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암자이다. 문수보살은 보살사상의 근원이다. 문수의 지혜는 외도를 조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향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세속과 열반이 하나이고 대립과 갈등의 종식이 문수보살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불교신앙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돈타래 7.0∮× 34cm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cm



육각초 7.0∮× 34



연화 大 9.5∮× 11cm, 연화 中 9∮× 10cm, 연화 小 7∮× 6.5cm



밀납연화 小 7∮× 6.5cm

New 신제품 흑룡초



크기 ∮7.5 × 29cm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435㎜×300㎜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18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영가 /방수등표大
판매가 35,000원
- 비닐+등표+집게
- 9.6cm×22cm
- 100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공단등(6cm)	@2,5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1Box)
• 공단등(8cm)	@3,000원 (50개이상)	• 비닐만월등(국산)	170,000원 (1Box)
• 공단등(10.5cm)	@5,000원 (24개이상)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 (1Box)
• 공단등(13cm)	@10,000원 (12개이상)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 (1Box)
• 공단등(20cm)	@35,000원 (4개이상)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1Box)
• 바림등(6cm)	@2,700원 (50개이상)	• 청사초롱등(100개)	270,000원 (1Box)
• 바림등(8cm)	@3,300원 (50개이상)	• 비 단 접 등(10.5cm)	340,000원(100개)
• 바림등(10.5cm)	@6,000원 (24개이상)	• 비 단 접 등(12cm)	350,000원(100개)
• 바림등(13cm)	@12,000원 (12개이상)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바림등(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칼라등(30cm)	@90,000원		

방수전선(한줄50구)
23cm / 25 cm / 30 cm 5줄이상@ 65,000원
50 cm 1m / 2 m 기타주문생산



LED전구 A형
110,000원[국산]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5W/8W)
@ 450원 [국산]
1BOX: 100개
제조원: 동진전구



봉축카드[21종]
@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봉투 : 19×13cm



연잎(일반)/바림/신칼라(천)
5,500원/ 7,000원/ 25,000원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PVC등표
20,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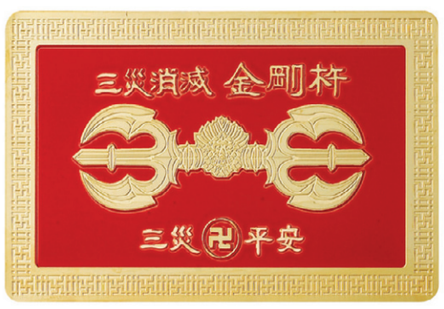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인연과 은애는 덧 없는 것

모구관자도(母狗觀子圖)


김홍도의 모구양자도 (90.7㎝×39.6㎝, 간송미술관 소장)

어미개가 새끼강아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 그림은 90.7cm×39.6cm의 단원 김홍도가 그린 내리그림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이다. 원래는 모구양자(母狗養子)라 하여, 어미개가 자식을 기른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의 내용이 물론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도 기르는 과정의 일환이므로 별 무리없는 명칭이기는 하나 젖을 먹이고, 직접 핥아주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보다 바라보는 것이므로 관(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부처님 자비(慈悲)의 크기에 버금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니면 같을 지도 모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돌아보면, 아무리 지극한 사랑도 부처님의 자비를

김홍도가 그린 '모구양자도'

새끼 향한 어미개 사랑 담아

따를 수는 없다. 인연과 업보의 설화들을 보면 그 내용은 더욱 절절해 진다.

충청도 어느 절에 삼천배(三千拜) 스님이란 별호(別號)로 불리는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스님은 절에 들어온지 20년 동안 산문(山門)밖이나 바깥세상을 상징하는 해탈교(解脫橋)를 한 번도 건너가지 않고, 절 안에서 매일 삼천배를 했다. 그 연유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 스님은 젊은 시절 일본으로 유학가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경에 도착해서 짐을 풀은 곳이 어느 하숙집이었다. 그 하숙집에는 갓 태어난 새끼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스님이 워낙 개를 좋아해 하도 예뻐하다 보니 강아지는 주인보다 스님을 더 따랐다.

스님이 다른 하숙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강아지가 스님에게서 워낙 안떨어지려고 하니, 하숙집주인이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이사간 하숙집에서도 몇 년을 키웠는데, 이 스님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보통 현해탄(玄海灘)을 건너는 관부연락선이 주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 배에 강아지를 태울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을 아는 스님은 키운 지 5년이나 되는 개를 고민하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먼 곳을 소풍을 나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놀다가 혼자만 돌아왔다.

며칠 후 그 개가 온 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짐을 싸는 스님의 집으로 찾아들어 오는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다. 스님은 순간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한다. 물이나 먹이를 줘도 안먹고 가만히 앉아 스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가는 개를 보면서 스님도 가슴이 아팠다 한다.

스님은 한국에 돌아와 일제말기의 엘리트로서 고향 면장을 지내면서 양가집 규수에게 장가들어 금지옥엽 외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5살 생일 때 밖에 나가 놀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아들 때문에 부인은 대들보에 목을 매고 자살하고, 이 스님은 전국을 거지꼴을 하고 찾아다녔다. 어느 날 묘향산 보현사에 들르니, 주지스님이 삼칠일(21일)만 잠을 안자고 기도하면, 자식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말에 21일을 잠을 안자고 기도했다.

기도 마지막 날 사시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순간, 마당에서 "아빠!"하는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다 보니, 사랑하는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서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마당의 아들에게로 달려가니 아들은 갑자기 산길로 내달린다. 아들을 쫓아 산길을 가다가 막다른 곳에서 아들은 휙 돌아서서 싱긋 웃다가 갑자기 펑하는 소리를 내며, 일본에서 버린 강아지로 변해 사라져버렸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스님은 그 일 이후로 세상을 덧없이 보고, 출가하셨다 한다. 인연과 은애(恩愛)는 실로 무섭고 덧없기도 한 것이다.

중광 스님 10주기 추모전 '非·色·非·空'

3월 26일까지 갤러리 아트링크서
필묵·서예·도자 등 30여 점 전시

중광 스님(1935~2002)은 '걸레 스님'이나 '매드몽크(mad monk)'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주로 기인적(奇人的)인 삶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정규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화단의 이단아이자 파계승으로서 그의 화업은 생존당시 극과 극의 평가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매드 몽크'로 미국에 소개한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학 동양학과 교수였다. 이렇듯 국내 화단의 이면과 세상의 평가에 초연하게 '괜히 왔다 간다'는 말을 남기고 중광 스님은 6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갤러리 아트링크는 3월 25일까지 '중광 10주기 추모전-非·色·非·空'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중광 스님의 삶과 예술의 전모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광 스님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극찬마저도 중광 개인에 머물러 있었다. 다양한 작품 장르나 주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의 이해보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평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중광 스님 예술 전반에 드러나는 노골적인 성(性)의 문제만 해도 관객입장에서는 터부와 인간의 본성 사이에서 늘 충돌했다. 선(禪)의 문제 또한 달마나 학에 국한된 것인지 아크릴이나 도자 행위예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인지 여부가 늘 혼란스러웠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작가 개인의 성취나 정체성은 물론 중광 스님 예술의 사회적 평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선(禪)을 코드로 성(聖)과 속(俗), 무법(無法)과 유법(有法), 동양과 서양을 넘나든 스님의 삶과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는 주제 면에서 동심 성 어머니 종교 자아는 물론 도구재료적인 측면에서 붓과 먹은 물론 브러쉬와 아크릴 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필묵으로 그린 달마와 학을 비롯해 서예와 아크릴과 브러쉬로 그린 추상과 구상의 유화작품 도자 테라코타 등 장르별 대표작 30여 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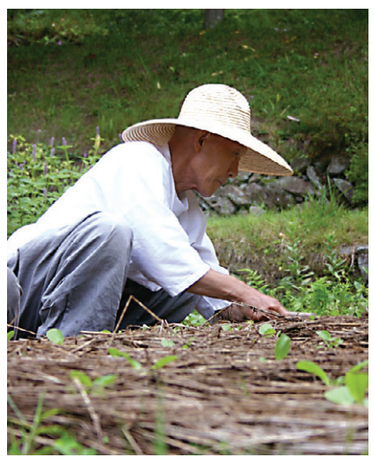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통해 기인이나 이단을 넘어 선을 코드로 삶 예술 종교가 하나가 된 대자유인 중광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아트링크는 "이번 전시는 중광 예술에 있어 전통이나 선의 문제, 그리고 서구미술의 영향과 소화 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며 "특히 획을 모든 예술의 근본으로 간주하는 서예의 입장에서 선과 어떤 관계 속에서 중광 예술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지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02)738-073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손수 채마밭을 가꾸신 법정 스님

MBC스페셜, 법정 스님 제2주기 다큐멘터리 방영



자연주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던 법정 스님은 늘 자연과 교감했다.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손수 채마밭을 가꾸며 간소하지만 충만한 삶을 추구했다.

법정 스님 입적 제2주기를 맞아 스님의 삶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이 방영돼 눈길을 끌었다. MBC 스페셜은 3월 9일 '법정 스님의 채마밭'(이현숙 연출)을 방영해 수행자·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법정 스님, 그리고 인간 법정 스님에 이르기 까지를 보여주었다.

제작진은 법정 스님 입적 직전까지 머물렀던 강원도 산골 오두막을 취재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통해 입적 이후 하나 둘씩 밝혀진 스님의 면모와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마지막 까지 스님의 곁을 지켰던 주치의와 그의 최후 목격담을 들려주었다. 또한 고된 투병 중에도 남몰래 독거노인들을 도우며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제주도 마을 등 끝까지 언행일치의 삶을 보였던 법정 스님의 모습도 담아냈다. 엄격한 자기질서와 일식이찬(한 상에 반찬을 두 가지 이상 올리지 않음) 등으로 대표되는 법정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공개됐다.

차(茶)에 대한 법정 스님의 남달랐던 애정과 법정 스님표 국수레시피까지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삶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렸던 스님의 삶을 담았다. 프로그램은 MBC 홈페이지(www.imbc.com)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운)는 11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했다.

최근 음반 〈무소유의 노래〉를 발표한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법정 스님을 대표하는 산문집 〈무소유〉 〈홀로 사는 즐거움〉 〈아름다운 마무리〉 〈오두막 편지〉를 노랫말로 담아냈다.

피리와 대금, 해금 등 우리악기와 아코디언이 함께 어우러져 법정 스님의 말씀을 잔잔하게 전했다.

이나은 기자

서정시인 문태준, 5번째 시집 '먼 곳'



전통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서정 시인인 문태준(42)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먼 곳〉(창비 刊)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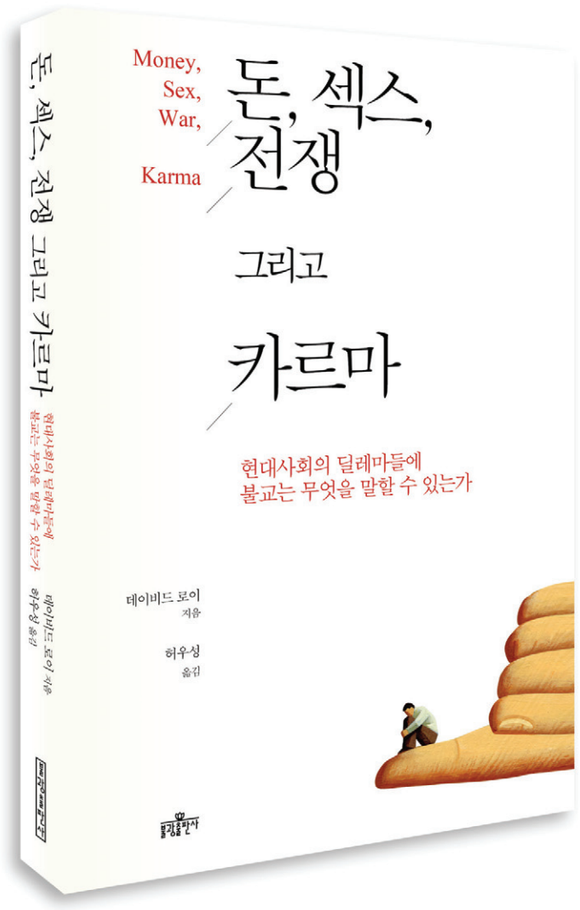
토속적 정서를 바탕으로 탁월한 언어감각과 특이한 시풍으로 서정시학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던 문태준 시인이 내놓은 4년만의 작품이다.

이번 시집 〈먼 곳〉은 이전 시 세계와는 색다른 면모와 한걸음 더 진화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체로 거른 듯 더욱 정갈해진 시어와 티 없이 맑고 선명한 이미지에 불교적 사유의 깊이가 도드라진 감성적인 시편들이 눈길을 끈다. 사물을 바라보는 세밀한 관찰력, 느림의 삶에 대한 겸허한 성찰, 인생의 무상함을 관조하는 고요한 마음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실려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이나은 기자**



장애인 삶 우리와 다르지 않아… '달팽이의 별' 관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후원자·자원봉사자들은 3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화 '달팽이의 별'을 단체관람했다. 영화 '달팽이의 별'은 달팽이처럼 오직 손가락 끝으로 세상을 보고 듣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영찬 씨와 척추장애로 남들보다 아담한 몸집이지만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커다란 순호 씨가 만들어가는 빛나는 사랑이야기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데이비드 로이 지음
허우성 옮김

240면
값 15,000원

불교, 현대사회의 딜레마들에 답하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에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묘지는 인생의 대학습장…마음 다스려져요”

대담 : 불교와 죽음과 문학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출간

세계 대문호들의 삶과 죽음을 천착해온 맹난자 수필가가 최근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수필과 비평사 刊)를 펴냈다. 몽테뉴, 헤세, 임어당, 소동파 등 52명의 대문호들이 묻힌 묘지를 둘러보고 그들의 삶과 문학세계 그리고 죽음관을 작가의 불교적 사유를 담아 풀어냈다.

본지는 〈그들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 출간을 계기로 3월 5일 본사 회의실에서 ‘불교와 죽음과 문학’을 주제로 저자 맹난자 수필가와 김홍근 문학박사의 대담을 갖고, 불교의 생사관이 동·서양 문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명했다. 정리=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맹난자 수필가(오른쪽)와 김홍근 박사가 대담에 앞서 조계사 경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홍근 박사는 …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동대학원 졸업,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문학박사 졸업. 現 한국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저서로는 〈참선일기〉 〈보르헤스 문학전기〉 〈활과 리라 – 옥타비오 파스의 시론〉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등이 있다.

맹난자 수필가는 …
이화여대 국문학과, 동국대 불교철학과 수료. 현대수필문학상, 남촌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前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前 에세이문학 발행인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아름다워라〉 등이 있다.

김홍근 박사(이하 김): ‘52명 작가의 묘지기행’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순례의 기록입니다. 독자는 이 ‘죽음의 사례집’을 읽음으로써, 결국 ‘삶의 사례’라는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죽음’이라는 화두를 참구하시게 되셨는지요?

맹난자 수필가(이하 맹):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동생의 죽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머니.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신 시부모님의 용태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마치 백골관(白骨觀)을 명상하듯 죽음과의 대면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김: 책제목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는 위대한 작가가 잠든 묘지를 찾아가, 현장에서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눈 저자의 체험을 고스란히 드러낸 말로 보입니다. 하고많은 장소 중에서 유독 ‘죽음의 장소’에서 오히려 편안함과 인생의 오의를 느끼신다는 선생님은 참으로 별난 분 같습니다.

맹: 우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죽음 쪽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의 대학습장이지요. 공원 묘역에 깃들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하잘 것 없어지고 하심이 된 듯 마음이 순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김: 엔도 슈사쿠에 대해 쓰신 글 제목이 ‘오늘까지의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은 무엇 하나 없었다’인데요, 기독교를 믿는 작가로서 이런 ‘번뇌즉보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가톨릭 작가가 불교와 기독교 간의 깊은 소통을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맹: 엔도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소설가로서 이분법적인 기독교 사고방식에 회의를 품고 있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불이(善惡不二)’ 사상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은 둘이 아니듯, 죄와 구원도 둘이 아니라 표리일체라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 그 사람의 재생의 가능성과 희망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의 악수를 지켜보았다면, 우리는 이 양심적인 작가의 회심의 미소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 책에서 “작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영혼을 정화시키는 씻김굿과도 같은 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문학무당’ 같아 보입니다. 대작가들의 사생관을 추적하면서, 과연 본인은 어떤 씻김굿의 업장소멸 체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맹: 묘지 앞에 설 때나 그 작가에 대해 글을 쓸 때는 그의 영혼이 내게 이입되기를 바랐어요. 더 많이 더 아프게 느끼고 싶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상처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은 모파상이나 보들레르를 찾아갈 때 고등학교 시절 남동생의 무덤에 기대 허난설헌의 〈곡자(哭子)〉를 읽어주면서 내 슬픔을 순화시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그분에 대한 진혼이자 내 안의 트라우마(상처)를 녹여내는 업장소멸과도 같은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김: 죽음과 무상은 불가에서도 발보리심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소동파는 나이 40세 전후하여 정치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투옥 당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동파가 불인요원(佛印了元) 선사와 상총조각(常總照覺) 선사에게 참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김홍근
독자에게는 ‘삶의 사례집’
묘지기행 ‘씻김굿’ 이라면
업장소멸 체험을 하셨나요
죽음 학습하는 소감은?

맹: 선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동파에게 “여기에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 거사께서는 편한 대로 하시죠” 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파는 “그럼 스님의 좌대를 빌려서 제 앉을 자리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선사는 “저는 출가한 사람으로 지수화풍 사대가 모두 비었고 오온도 존재하지 않으니 어디에 앉으시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말문이 막힌 동파는 약속대로 그의 옥대를 풀어 선사에게 드렸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화두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동파였다면 선사를 깔고 앉아보겠습니다만, 김 박사님 같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절하고 그 자리에 공손히 앉을 뿐이지요.

맹: 그 뒤 소동파가 상총 선사를 찾아가 법을 청했을 때, “대관은 어찌 무정(無情)설법을 듣지 않고 유정(有情)설법만을 들으려 하십니까?”라는 한 마디에 그는 ‘무정설법’이란 화두를 안고 달리다가 어느 계곡에 이르러 우렁찬 폭포소리에 막혔던 가슴이 확 뚫리고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때의 게송이 “계곡물소리는 모두다 장광설이고[溪聲便是長廣舌] 산색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오.[山色豈非清淨身]”입니다.

김: 소동파는 계곡 물소리를 듣는 순간, 주객탈락의 체험을 하고 무정설법을 깨달았군요. 한편 선생님께서는 또한 ‘주역(周易)’에 대해서도 평생을 바쳐 공부해 오셨는데요, 소동파의 〈적벽부〉에 보이는 ‘현상, 본체, 중도묘용’의 대목을 주역의 ‘변역(變易), 불역(不易), 이간(易簡)’으로 풀어주시겠습니까?

맹: 〈적벽부〉에서 동파는 뱃놀이를 하는데 어느 객 하나가 슬프게 퉁소를 부는지라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루살이의 삶을 천지간에 의탁한 거와 같고 아득한 창해의 좁쌀 한 알이라. 우리네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장강의 끝없음을 부러워한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아는가?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다지만 그러나 일찍이 가는 것만이 아닌 것을. 가득 참과 비움[盈虛]이 저와 같으나 마침내 소장(消長)할 수 없음이라.”

즉 영허소장(盈虛消長)은 현상계의 작용일 뿐, 본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현상계의 본질은 〈반야심경〉의 부증불감(不增不減)처럼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역의 첫 번째 원칙인 변역(變易)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상계는 영허소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그 이치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 주역의 두 번째 원칙인 불역(不易)입니다. ‘이간(易簡)’이란 쉽고 간단하다는 건괘와 곤괘의 공능(攻能)을 말한 것입니다. 천지의 도는 쉽고 간단하다는 뜻인데, 선가에서 말하듯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평상심을 가리킨 것입니다.

김: 임어당은 셰익스피어를 두고,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널리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는 대자연 그 자체와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이 ‘자연에 순응하는 인생’은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의 소위 로망인데요, 운명에 통달한 노련한 생의 달관자인 셰익스피어의 말년과 사생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맹: 초등학교 학력 밖에 없던 그가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극단의 대표가 되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와 명예를 일구어냅니다. 그러나 한풀이처럼 보이는 성공 뒤에 다 이룬 자의 무상함을 절감하며 그는 고향에 돌아와 만년을 친구들과 어울려 소탈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로 지내던 그는 마치 선지식 같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수필가로 활동해 오셨기에, 1580년에 간행된 〈에세〉로 ‘에세이’ 장르의 비조가 된 몽테뉴와 작가로서의 친밀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을 읽고 그의 낙관적인 수필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 중의 한분으로 손꼽히는데요, 몽테뉴 그리고 임어당과 더불어 선생님의 수필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맹: 몽테뉴는 초기에 금욕주의적인 스토아철학에 경도되어 죽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라고 강조했으나, 나중에는 모두 자연에 맡기고 그저 자연에 따르라고 합니다. 쾌락주의자인 임어당은 현세의 삶에 모든 가치를 두고 이 지상을 있는 그대로의 천국으로 보았습니다. 문학은 작가 정신의 성장 기록표입니다. 문학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작가들의 지고한 정신을 만나면, 문학이 곧 구도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맹난자
내면 상처 씻겨 내려갔어요
카잔차키스 자유 붙들었고
공초는 자유를 걷어찼지요
익은 과일처럼 낙과할 터

수필은 허구가 허용되지 않는, 작가 내면의 탐구로 이어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 좋은 수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 일본의 바쇼나 그리스의 카잔차키스는 여행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글쓰기와 여행 그리고 죽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맹: 여즉인생(旅則人生)이라며 인생 자체를 하나의 시간여행에 비유했던 바쇼. 그는 길을 떠남에 매번 비장했습니다. 당시 여행조건이란 생환(生還)을 확신할 수 없는 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오로지 시인으로서 하이쿠의 시적 세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으며 문학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작가들에게 여행이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영혼의 창과도 같습니다.

카잔차키스 역시 백혈병을 앓으면서도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오디세우스 처럼 많은 나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랭보, 에드거 앨런 포, 톨스토이, 두보, 바쇼, 김삿갓도 여행길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생이며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김: 공초 오상순 선생과 카잔차키스 두 분의 묘비명이 모두 ‘자유’를 노래한 것이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동서의 대자유인이었던 두 분의 묘비명을 소개해주시고, 문학과 자유와 죽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초선생의 마지막 말씀, “자유가 나의 일생을 구속했구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요?

맹: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나는 자유이므로.” 이것은 카찬차키스의 묘비명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테마도 ‘자유’였습니다. 한편 공초 선생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무정처, 무소유의 생활로 자유를 추구해 왔음에도, 마지막에는 “자유가 나의 일생을 구속했구나!”라는 할을 던집니다. 카잔차키스는 끝까지 자유에 붙들려 있었는데, 공초는 그 자유를 걷어찬 것입니다. 즉 무심(無心)을 도라 이를 때 벌써 무심이라는 한 겹 관문을 두르게 되듯, 자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본래 무아(無我)인데 따지고 보면 어느 자리에 속박과 자유가 따라 붙겠습니까? 선생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묘비명의 시구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魂)!’ 우리의 존재가 가합(假合)인 그 실체 없음을 아셨기에 어디에도 주(住)하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위에 보금자리를 틀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지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김: 저로서는 요즘 같은 책의 홍수 시대에 이렇게 진지한 저작물이 나와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책이 제17회 신곡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겠지요. 칠순을 넘기신 선생님은 책에서 ‘등짝에 바짝 붙은 죽음과 동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몸으로 죽음을 학습’하시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맹: 몸으로 체감하는 것 만큼 정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증세를 겪으며 오온의 해체를 짚어보게 됩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그대로 땅 속에 묻히는 심정으로 드러눕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 나는 한줌 흙으로 화(化) 하겠지. 한줌 흙으로 세월과 더불어 스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자 상상 속에서 내 몸이 산화 되는 게 느껴집니다. 늙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죽음의 수용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노쇠를 겪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무르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아무 불만 없이 낙과(落果)하려고 합니다.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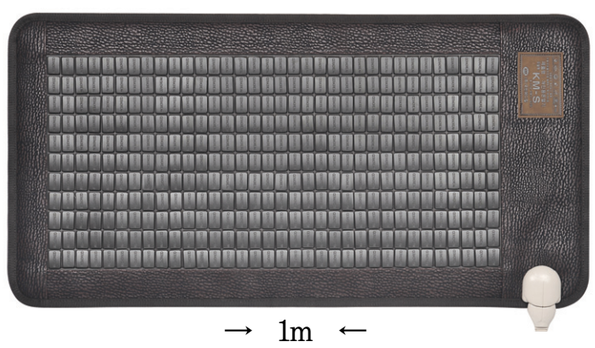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炆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 현대적으로 해설한 길잡이

이중표 교수가 말하는 삼귀의에서 사홍서원까지



불교란 무엇인가
이중표 지음
종이거울
1만4000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전남대 이중표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지내며 불법홍포에 힘써온 인물이다. 이중표 교수는 최근 〈불교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책은 저자가 1995년 불교방송에서 100일 동안 교리강좌를 진행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저자는 책 머리에서 "책은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 시대의 답변이다. 바꾸어 말하면 불교를 현대적으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크게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 책임이 첫째 불교학자들에게 있단다. 불교를 이해하고 싶은 대중의 욕구는 많은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 책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책은 삼귀의에서 시작해 사홍서원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저자가 삼귀의는 불교의 출발점이고, 사홍서원은 불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답한다.

"참된 진리에 의지해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서 모든 불자가 함께 부처님 세상을 이뤄가는 것이 불교이다"라고.

조동섭 기자

우리의 어머니, 바다로 초대합니다

바다 사나이의 바다에세이



바다와 어머니
조정제 지음
교음사
1만2000원

"바다 해(海)자의 한자 의미가 심오합니다. 바다 해자를 파자해보면 삼수변(氵)에 사람 인(人)자, 그 속에 어머니 모(母)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다의 키워드는 물·인간·어머니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나이가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정제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가 그이다. 저자는 최근 수필집 〈바다와 어머니〉를 펴냈다.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한국해운신문에 연재했던 글들과 저자가 전원생활을 하며 써놓았던 수필이 담겨 있다.

책은 7부로 나뉘어져있다. 제1~4부는 저자가 10여 년전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불곡산 중산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와서 자연과 더불어 지낸 일들이 담겨있다.

제6부 '독도로 가는 길'과 제7부 '바다,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에서는 바다의 푸짐한 사랑과 적조 현상 등을 통한 바다사랑의 메시지를 담았다.

저자는 "바다에 관련한 글들은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수필적인 문체로 표현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아무래도 서정성이 약하고 딱딱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책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다. 앞부분은 자연 속의 삶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에세이이다. 이는 뒷부분에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자연주의 맥락의 전주곡이나 서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책장을 열면 바다를 향한 저자의 초대장이 펼쳐진다.

한편, 책의 판매수입은 전액 '바다 살리기 국민운동'에 사용된다.

조동섭 기자

동화로 만나는 부석사 창건 설화



"그제 밤에는 무덤을 토굴인 줄 알고 편안히 잠을 잤네. 또 어젯밤에는 마음을 굳건히 하니 귀신도 물리칠 수 있었지."

며칠 만에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원효가 말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 갖기에 달린 것이라네. 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만 돌아가겠네."

원효는 신라로 되돌아가고 홀로 남은 의상은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탔단다.

"신라시대 의상 스님은 불법을 공부하러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머나 먼 뱃길에 병을 얻어 선묘 낭자의 지극한 간호를 받았는데, 어느새 선묘 낭자는 의상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나 부처님만을 모시기로 마음 먹은 의상은 공부에만 몰두했지요. 어느날 당나라 대군이 신라를 치려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의상은 고국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돌아가기로 했어요. 도중에 선묘 낭자의 집에 들렀으나 만나지 못한 채 서둘러 귀국하는 배를 탔어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선묘 낭자는 의상을 지키고 싶다는 소원을 빌며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선묘 낭자의 몸은 서서히 용으로 바뀌었는데…. 의상을 돕고 지킨 선묘 용은 이제는 부석사의 수호신이 되었답니다." -본문 중에서

신라의 고승 의상 대사는 화엄종을 일으켜 한국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용이 된 선묘낭자〉는 부석사 창건설화인 의상 대사와 선묘 낭자의 이야기를 동화로 재연한 책이다. 선묘 낭자는 의상 대사를 향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승화시켜 용이 돼 의상 대사를 돕고 지킨 설화를 동화로 재연한 책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용이된선묘낭자
김춘옥 글
이선주 그림
봄봄
1만2000원

불교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한눈에

불교의 이해는 붓다 이해하는데서 시작
부처님 고향 인도의 문화부터 알아야

불교문화는 2500여 년 불교역사와 함께 한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율장 수행 의례 사찰의 4개장으로 분류해 기술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김미숙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불교문화1 2〉를 펴냈다. 책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발원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널리 퍼져나간 불교의 문화적 이해를 돕는다. 때문에 책에서는 인도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상을 통해 불교문화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불교의 이해는 붓다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붓다의 고향,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책은 그러한 맥락에 잇대어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경전과 율장 속에 담긴 문화이야기와 수행, 기도, 의례 문화 등에 대한 해설을 장을 구분해 수록했다. 또, 전등사, 용주사 등 사찰을 문화이야기로 풀어놓았다.

책의 경전과 율장 속에 담긴 문화 이야기에는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면면이 녹아 있다. 또한 해인사, 석굴암 등 국내 사찰 소개에는 주요 사진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로 풀이돼 흥미를 더한다.

저자는 "샤키야무니 붓다는 부자, 초능력자, 성현 등 인도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을 모두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 위대한 삶을 찬탄하고 추종하는 마음들이 2500여 년 불교문화라는 거대한 바다를 채워놓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 책은 그 대양 언저리에 발을 담가본 몇 방울의 거품에 불과하다."



불교문화1.2
김미숙 지음
정우서적
1만6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29~3/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5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족사
6	마음수업	이광정	휴
7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8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9	불교 문화로 읽는다	자현	민족사
10	허공을 부수어라	묵산	비움과소통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밥을 통해 인연의 법칙 공부

선재동자 닮은 '삼례' 통해 듣는 밥에 숨은 놀랍고도 맛있는 철학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다.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식욕(食慾)을 어찌 해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곰탕에 꽃 한송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밥 한 덩이, 도를 이루기 위해 먹는 죽 한 그릇 등 모든 밥에는 한 인간이 가진 삶의 태도와 철학이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글짓기를 전생의 업(業) 내지는 고행(苦行)으로 생각한다는 저자 함영은 '생각 없이 글쓰기'를 꿈으로 가진 글쟁이다. 책은 저자가 '곰탕에 꽃 한 송이 꽂기'를 좌우명으로 갖고,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을 읽고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게 된 후 먹거리에 관해 집필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가 지금까지 기획 · 연재한 밥과 삶, 밥과 철학, 밥과 사람 등 인연법을 주제로 한 이야기에는 '스님들의 소박한 밥상' '알콩달콩 공양간'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스타들의 소박한 밥상' '밥상만사' '삼례의 미얀마 여행기' 등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30명 스님들의 음식이야기와 그에 얽힌 수행담을 소개한 〈밥맛이 극락이로구나〉와 공양주들의 삶의 애환과 요리비법을 엮은 〈인연으로 밥을 짓다〉가 있다.

책은 '삼례'라는 철부지 주인공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밥의 미학을 말하고 있다. 삼례는 정성껏 돌보던 장미와 작별하고 별을 떠도는 '어린왕자'처럼, 법을 구하기 위해 53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는 〈화엄경〉의 '선재동자'처럼, 은하철도999를 타고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다니는 '철이'처럼 여행을 다닌다.

맨발의 노스님과 한겨울에 먹는 아이스크림, 굴곡진 삶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순박한 모습이 인상적인 티베트에서 망명 온 스님이 만들어준 수제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가 정성스레 끓인 곰탕 한 그릇, 울퉁불퉁한 손으로 나붓나붓 감자를 썰어 끓여준 엄마의 감자찌개 등.

삼례는 이 여행을 통해 우리가 무얼 하든 어떻게 살아왔던 밥과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우리는 밥과 사람들 속에 존재하며, 인생의 쓴맛 단맛이 모두 밥 속에 들어 있음을 깨닫는다.

호기심 많고 그리움 많고 삶이 궁금했던 삼례는 사람들과 나눈 밥을 통해서 매 순간 이뤄지는 인연의 법칙을 깨닫는다.

책은 밥이 삶과 깊이 어우러질수록 인생은 보다 찰지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식에 담긴 진리가 곧 삶에 대한 통찰이 된다는 메시지도 일러준다.



삼례가 미얀마 파옥 선원에서 만난 갓 출가한 샬리 미요

방금 밥을 먹고도 다음 식사 때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여자들의 놀라운 밥욕망과 마르크스도 깨닫지 못한 밥노동 속에 숨은 사랑, 원효 스님도 무릎을 칠 밥맛에 대한 통찰은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가슴 뭉클하다.

책에서는 그 속에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 펼쳐진 살아있는 철학, 실천하는 철학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밥과 사람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음식을 통한 존재와 삶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이 책

식욕에 대한 진솔한 탐구
일화에 섞인 밥담 풀어내
삶에 대한 메시지도 엿보여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철학

은 독자로 하여금 음식을 단순히 먹는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다.

자연과 음식과 사람들의 사연 속에서 새로 태어난 밥은 단순한 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저자가 만난 60그릇의 밥은 각각의 사연과 함께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진솔하고 재미있게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다 보면 오늘 내가 먹는 밥 한 술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저자는 말한다.

"삼례가 배달한 예순 그릇의 곰탕을 부디 끼니나 때우고자 대충 드시지 마시고, 그대의 아밀라아제와 깊이 어루어질 수 있도록 꼭꼭 씹어 드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래서 예순 그릇에 꽃혀 있는 예순 송이의 꽃 향기를 더불어 음미해보시길 권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곰탕에 꽃 한 송이
함영 지음
웅진뜰
1만5000원

신화가 된 아름다움

세계의 위대한 명건축 24선



경회루



퀼른 대성당

건축물의 예술적 표현에 주목해
위대한 건축물은 한편의 드라마

피라미드 만리장성 앙코르와트 파르테논신전 자금성과 경복궁 경회루의 공통점은? 인류문화사에 남을 명건축물이라는 점이다. 건축은 일상의 삶 속에 스민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건축물들은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다.

김개천 교수(국민대)는 선(禪) 등 동양의 사고로 건축물을 짓고 읽고 있다. 김교수는 최근 세계의 위대한 명건축 24곳을 가려 뽑아 풀이한 책 〈미의 신화〉를 펴냈다.

책은 '신화가 된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미의 신화〉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또, 책 속의 건축물들이 우아하고도 광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The Grand Beauty'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건축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스스로를 예술이라 하지 않고 온갖 배설물들을 쏟아낸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간 속에 존재하게 하며 인간 존재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괴리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책에서 말 없는 건축물에 예술적 환상을 더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선정한 24개의 위대한 건축들은 인류가 만든 '예술적 표현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서 뽑어져 나온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눈으로 보는 해석을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창의적인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인류문화유산을 설명한 많은 책들이 역사 등 과거에 집착했던 것과 달리 책은 현재에 충실하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미의 신화〉는 과거를 이해하고 알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때문에 책에서는 건축에 대한 자질구레하다고 표현될 만한 설명과 건축용어 등은 보이지 않는다. 누가 언제 설계했는지 간략히 언급은 돼 있어도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책이 〈미의 신화〉이다. 대신 책은 '왜 그 시대에 그러한 건축을 지었는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등 미적 시선으로 문제의 핵심과 본질만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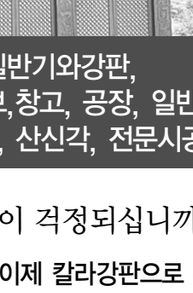
저자는 "책을 쓰면서 느낀 위대한 건축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들은 선진 문화적 환경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등장했다는 점이다"라고 말한다.

▷하셉수트 장제전 ▷판테온 ▷콜로세움 ▷성 소피아 대성당 ▷알람브라 궁전 ▷이쓰쿠시마 신사 ▷타지마할 ▷성 베드로 대성당 ▷종묘 정전 ▷베르사유 궁전 ▷영국 국회의사당 ▷퀼른 대성당 ▷뵤도인 ▷몽생미셸 수도원 ▷바위의 돔 ▷천단 등. 책 속의 건축물들은 순서와 무관하게 읽어도 무방하다. 사진만 보고 넘겨도 좋다. 이 책은 읽고 분석하기 보다는 건축과 대화를 하는 책이다.

이 책을 본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은 "김개천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의 시각을 세계사의 지평으로 넓혀 각 시대, 각 민족의 위대한 건축들이 각기 어떤 미학을 갖고 있고, 그 시대의 이상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평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위대한 건축물 앞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인이 되어 위대한 건축물을 찬미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조동섭 기자



미의신화
김개천 글
컬처그라퍼
2만3000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수행하라

날마다 행복해지는법 100가지



〈일일시수행(日日是修行)〉은 100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책에는 불교식 수행법에서부터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 붓다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을 깨트리는 재미를 준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서 수행에 힘쓰는 사람은 훌륭하다. 단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엄격하게 절제하는 마음가짐이 존경받을만한 일이다. '맛에 대한 욕구를 다스려 약간의 양식만으로 몸을 지킨다.' 그러한 수행자들의 음식이 진정한 사찰음식이다"와 같이.

책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이 내 인생을 별 볼일 없게 만들도록 두지 마라 ▷불행의 씨앗을 골라내는 지혜 ▷기도보다 더 빠른 길은 스스로 달리는 것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역자 원영 스님(동국대 외래교수)은 "스스로 치열하게, 매일매일 올바른 방향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일일시수행(日日是修行)이다. 하루하루를 좀 더 나은 삶,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수행하듯 살아가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매시지이다"라고 말한다.

일일시수행 | 사사키 시즈카 지음 | 원영 옮김 | 아름다운 인연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You can just call me Sunim"

승가대학 영어교과서 출간



국내외에서 영어로 불교를 소개할 일이 생활화 되고 있는 때, 〈불교영어〉 교재가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정)는 2012년 개편된 승가대학 표준교과과정 2학년 1학기 필수교과목 '불교영어' 교재로 〈불교영어 초급1〉을 출간했다.

책은 불학연구소에서 기획 · 편찬한 것으로 사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상의 대화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은 "최근 템플스테이와 각종 불교 행사, 모임 자리에서 외국의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거나 불교를 소재로 한 대화를 나눌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필요에 따라 개편 표준교과 과정에서 '불교영어'를 개설했고, 이번에 교재로 〈불교영어초급1〉을 편찬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제1부 영어회화, 제2부 불교 교리, 제3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 단원과 단원 사이의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선시 또는 경구를 실어 영어 독서의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 책은 다른 영어교재와 달리 한글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영어가 나오는 점이 독특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과 착안된 것이다.

조동섭 기자

암자 부지 안내



자아를 찾고 불타이념을 홍포하시던
스님들의 노후 무료 쉼터를 마련 하고자
마복산 아래 청정 암자 부지를 양도 합니다

위치 :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58
임양 9800평, 바다인접, 면소재지 근접
☞ 항공사진으로 살펴보세요 ☜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기에 사암 주지 권한으로
운영합니다

총 무 원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 011-677-8525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나라의 '신물' 혹은 '보물'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용이 옥대를 받들고 왕에게 바치니

1. 신라의 삼보

고조선 이래 각 나라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신물(神物)을 창안해 냈다. 통치자는 기물의 조성을 통해 '신'(성)의 각성(覺性)을 부여받으려 했다. 통치자가 신에게 다가갔을 때 그 신의 기운이 담긴 신물은 신과 동일시되었다. 해서 신물은 그 주인되는 신의 분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물을 갖는 이는 신의 대리자 혹은 신 자체이기도 했다. 고조선의 신물은 '다물활'이었고 고구려의 신물은 '다물활'과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이었다. 최씨 낙랑국의 신물은 적군의 침입을 놀랍게 알려주던 '자명고'였다. 신물이 사라지자 낙랑은 고구려에 망하고 말았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신의 소리를 내는 영물(靈物)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지엄한 소리를 내는 청동방울이 울리면 신의 강림이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방울을 흔드는 자는 신을 마중하는 의전(儀典)의 주재자였다. 점차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제사장과 통치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치자는 여전히 신성(神聖)의 권위를 빌기 위해 신물을 창안해 내었고 그것을 매개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신라 진평왕 때 등장하는 천사옥대(天賜玉帶)와 황룡사 장육존상(丈六尊像)과 황룡사 구층탑(九層塔)의 삼보(三寶)와 신문왕대 이후 등장하는 만파식적(萬波息笛)과 거문고[玄琴]의 이보(二寶) 역시 이러한 역할을 한 신물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조선 이래 신물은 신과 동일한 존재
고조선은 '다물활' 고구려는 '청동거울'
통치자는 신물로 자신의 권위 확보

〈삼국유사〉 '기이'편 '천사옥대' 조목에서는 제26대 진평왕이 즉위 원년에 상황(上皇)의 천사(天使)가 내려와 옥대를 전해주었다고 전한다. 왕은 교묘(郊廟)와 대사(大祀) 때는 으레 이 띠를 띠었다고 한다. 그 뒤 고구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도모하다가 신라에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황룡사 구층탑과 천사옥대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책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2권 경명왕 5년 조는 왕이 천사옥대가 보관되어 있다는 천존고(天尊庫)로 추정되는 남고(南庫)를 열어보게 했다. 하지만 천사옥대가 보이지 않자 따로 날을 잡아 재계하고 제사를 올린 뒤에야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또 '만파식적' 조목에는 "신문왕이 문무왕 해중릉에 나아가 그 산에 들어가자 용이 검은 옥대[黑玉帶]를 받들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하사하고 사람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이 문득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간직해 두었다.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이 낫고, 가물 때는 비가 오고, 장마 때는 개이며, 바람이 가라앉고 물결이 평온해졌으므로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고 부르고 국보를 삼았다고 전한다.

2. 왕권강화의 기제

살펴본 것처럼 천사옥대는 신라의 중고기인 진평왕 대에 조성한 신라 삼보의 하나였다. 그런데 신문왕대에 다시 흑옥대(黑玉帶)가 등장하고 있다. 이미 하나의 옥대가 있는데 다시 새로운 옥대를 조성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에 대해 중대 무열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왕권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사옥대 설화를 재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신문왕 이후 진골왕들도 흑옥대를 착용함으로써 비로소 나라 제1의 사당 신궁(神宮)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신궁에 제사지낸 때는 동왕 2년 1월이고 흑옥대를 받은 시기는 같은 해 5월이어서 이 견해는 수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후대자료인 〈동국여지승람〉의 '경주고적' 조목에는 '옥대'만 나올 뿐 〈삼국유사〉의 표현 그대로인 '흑옥대'와 '천사옥대'와 '성대'(聖帶)가 아니어서 어느 것인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만파식적' 설화는 〈삼국사기〉 32 '악지'에도 등장한다. 신문왕 때에 동해에 홀연히 한 작은 산이 나타났는데 모습이 거북머리와 같고 그 위에 한 줄기의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고 이름을 만파식(萬波息)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이런 이야기가 있으나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덧붙이고 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 조목에서는 이 사건을 신문왕 10년의 일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이 사건은 신문왕대가 아니라 효소왕 대의 일이며, 만파식적은 효소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학자도 있다.

〈삼국유사〉 '원성왕' 조목에는 왕의 아버지는 대각간 효양이 선대로부터 지녀온 만파식적을 왕에게 전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정원(貞元) 2년 병인 10월 11일에 일본왕 문경(文慶)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다가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물리고 사신을 보내 금 50냥으로 피리를 보자고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에는 상대(上代)의 진평왕 때에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듬해 7월 7일에 (일본왕 문경이) 다시 사신을 보내 금 1천 냥으로 청하기를, "과인이 그 신비로운 물건을 보기만 하고 그대로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전과 같은 대답으로써 이를 거절하고 은 3천 냥을 그 사신에게 주고 금은 돌려받지 않았다. 그 피리는 내황전(內黃殿)에 간직하였다고 한다.

이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만파식적은 신문왕대에 이뤄진 것일까 아니면 효소왕대에 이뤄진 것일까. 위의 맥락을 종합해 보면 만파식적은 신문왕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중대 왕실이 중고기 왕실의 상징을 계승함으로써 무열왕계가 왕위 계승의 적자임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무열왕계는 중고기의 신라 삼보를 이으면서도 고구려로부터 전해진 현금(玄琴)과 만파식적에 만만파파식적을 가작(加爵)함으로써 삼한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신라 하대에 중고기의 천사옥대와 중대의 만파식적의 존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 진평왕 때는 천사옥대와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구층탑의 삼보가 있었다. 옛 황룡사 터의 모습

왕권강화 위해 천사옥대 설화 재편성
왕위 계승 정당화 위해 '만파식적' 지어
무열왕 신물로 삼한의 정통성 겸해

3. 나라의 상징

신물은 〈삼국유사〉 '기이'의 서문에도 나오는 '부명'(符命)이자 '도록'(圖籙)과 같은 상징적 기물이다. 일연이 "옛날의 성인은 그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일으켰다"고 한 것처럼 신물은 예(禮)와 악(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주요한 기제였다. 해서 신물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통치자와 그 주변에서 주도한 '이미지 메이킹'의 산물이자 통치자와 제사장 사이를 매개하는 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국가에서 신물을 창안한 것처럼 진평왕 대에 창안한 신라 삼보 역시 사직의 상징이었으며 이보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신기한 기물이었다.

고래로 피리로 대표되는 소리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은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소리'는 물리적인 음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지만 왕실은 의례와 음악을 통치에 적극적으로 원용해 왔다. 중고기의 신라 삼보 중의 '천사옥대'는 허리띠였고, 중대의 이보 중의 '만파식적'은 소리를 내는 피리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여러 신물 가운데 허리띠나 소리를 내는 피리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는 신 혹은 하늘을 상징하는 신물과 교감하면서 백성을 통치하였다. 때문에 통치자의 권위는 사회 바깥의 신 또는 하늘에 가탁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었다. 진평왕은 신라 삼보를 만들어 내었고 중대의 무열왕계는 이를 계승하면서도 고구려로부터 전래해온 현금과 만파식적이라는 또 다른 상징을 만들어냈다.

신물 가운데에서 천사옥대는 '하늘이 내려준'[天賜] 허리띠였고, 만파식적은 '용이 받들고 온'[龍奉來獻] 대나무로 만든 피리였다. 이처럼 옥대와 피리는 모두 바깥의 권위에 의탁한 신물이었다. 통치자인 왕은 이러한 상징을 만들어냄으로써 내적으로는 힘[力]의 권위를 확립하고, 외적으로는 세(勢)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결국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이들 신물은 대외적으로 고구려와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대내적으로는 백성들과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중고기와 중대 왕들이 만들어낸 나라의 상징은 대대로 계승 발전되면서 위용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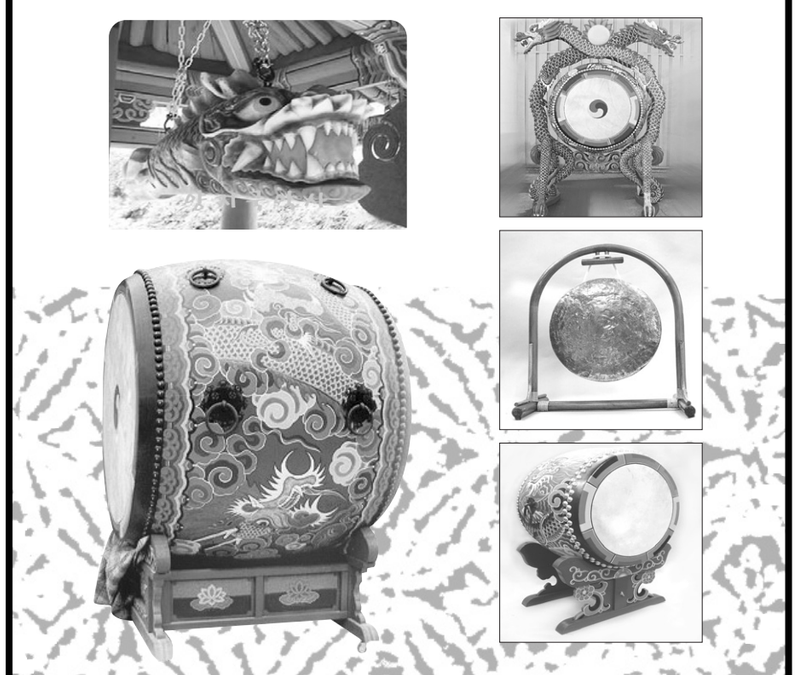
신물은 백성 통치 위한 '이미지 메이킹'
고대 통치자는 신물과 교감하며 통치
신물은 외적의 침략도 막아내

황룡사에는 신라 삼보 중 두 가지가 간직되어 있었다. 한 절에 두 가지 삼보를 비정하고 간직할 수 있었던 까닭은 황룡사 구층탑 건립을 주장한 안홍(安弘)과 이 절의 사주(寺主)이자 또는 구층탑 건립을 건의하고 지휘 감독한 자장(慈藏)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고려 태조 왕건은 천사옥대만을 넘겨받았다. 아마도 황룡사 구층탑은 고려 수도로 옮겨올 수가 없는 것이었으며, 옮겨오기 쉽지 않은 황룡사 장육존상 역시 선덕왕이 영묘사에 장륙상을 새로 조성해 모심으로써 신라 유일의 장육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국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삼보 가운데 천사옥대를 넘겨받음으로써 신라 중고기 이래 신라 왕들이 계승 발전시켜온 문화적 전통까지 이어받을 수 있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한 뒤에 남을 가르쳐야 한다.
지혜로운 이라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뒷풀이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연말정산 발급 사찰로 등록

사암, 신행단체
신규 등록 접수
단체명은 한학선원(사)로
등록됨
041)544-4441
도평 스님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웰강 .황토.상황. 氣토굴.쑥 뜸방

특허받은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 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www.wellgang.co.kr
가맹점 모집 011-573-4438

역학 개인지도

1. 사주,궁합,택일,조상,성명학
2.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3. 음양오행의 근거로 강의합니다
4. 단기간 완성
5. 개인 및 그룹지도
6. 출장강의도 환영함 (사찰포함)
010-4237-90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65세 이하, 경험자 우대)
010-8934-60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상주)
054-535-0005

신심있는 비구니 (30~40대) 스님 모십니다

(삼척 대덕사)
011-9416-7743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여주 청운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문경 쌍용사)

010-8819-8988

삼 혼 칠 백 기 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기도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불교의식(전통소리 안정사) ◆ 사물 ◆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연수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2563-5550

천도재. 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8-220-056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작은 암자
운영도 가능함)
011-574-3303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가야공원 내)
051)891-1051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짓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 향화청 (짓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교종 부산서부종무원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남양주)
011-9491-9227

보살님 모십니다 법당도 보시고, 포교도 하실 분

(숙식도 가능)
부산 사하
051)204-8494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영 혼 결 혼

배우자를 찾습니다
나이 35세(女)
10년전 병환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사는 엄마 합장 -
054)383-8553 / 010-8585-4908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무문총림 영평사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관광 버 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승복·전통복식 32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2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겨울신상품 특가세일
— 목화솜면누비 —
적삼 200,000원
동방 250,000원
※손누비 특별주문 받습니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절 연 공 고

일붕신문 2012년 3월 1일자(제388호)
15페이지 하단 우측 한국불교법화종
중앙종회 의장 박웅 명의로
체탈도첩(승적박탈)된

1949년 4월 15일생
속명(정동일), 법명(혜등)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67
(삼성여고 후문 성불사)
전 화 : 051)204-8494 / 011-685-8989

위 자에 대한 2011년 4월 1일 건당
수계에 대한 사승지간에 대하여 절연함.

2012년 3월 14일

영취산 법화정사 조실 박혜량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안 약사사
- 신청자 : 무안약사사 신도회장(이옥례)
무안약사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서찬호)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대사동길 1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 할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연락처 : 무안 약사사(061-453-2422)
무안 약사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서찬호 010-4640-8787)

석가탑 인연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2미터, 높이 8미터)

■ 제작년수 : 약 60년 (가로 1미터, 높이 4미터)

- 연 락 처 -
016-249-0546

불자정보 26 | 879호 | 전면광고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10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남
- 법당 : 64평
- 요사 : 10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6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스님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순천 왕지동 부근
- 대지 690평, 임야 500평, 요사채 1층 37평, 2층 25평
- 도심산속에 있는 최고의 사찰
- 운영하실 스님만 전화요망
- 전세도 가능

061)722-9114 / 011-611-583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에 4층, 전체 80평
- 법당: 삼존불 모셔져있음, 방2, 창고방1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436-3447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

011-623-4487
011-229-41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리시
- 실평수 30평 3층건물에 2층
- 법당, 삼불부처님 방2, 공양간 1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903-38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성로
- 3층법당 30평
- 2층 요사채 30평, 방2, 공양간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상담후 결정

070-8917-4219
010-3902-0708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옥탑,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3억 5천만원(절충가능)(대출1억 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남향)
- 총평수 613평 중 대지 350평
- 별도부지 263평
- 건평 1동 130평(옥상사용가능)
- 방4, 대형방3, 심야전기보일러 수세식화장실 3, 주차시설완벽 큰도로 30m, 집기포함
- 가액: 6억 8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11-813-9104

명 당 사 찰 터

경주 남산 풍수와 환경 완벽함

뒤산에는 큰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건축허가 토목공사

돌담장까지 완성

등기면적 623평 실제사용 850평됨

평당 63만원

010-5014-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도심속 조용한 산밑
- 남향 , 지하수 사용
- 대지 186평, 법당 건평 목조 25평
- 요사 26평, 주차 10대가능
- 가액: 4억 9천만원

010-6554-61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2층)
- 30평가량
- 법당,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삼존불, 맞춤탱화 등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277-01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창원시 도계동
- 평수 40평, 법회즉시가능
- 스님 개인사정상 급 양도
- 시설 최상
- 가액: 전세 1,500만원 (시설비포함) 월 50만원

010-3118-1174

포교원안내

- 위치:경북 청도
- 대지 160평(텃밭있음)
- 법당(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산신단, 각 단 후불탱화 모셔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원 (시설비있음)

010-6276-9667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만촌동
- 총평수 42평
- 법당22평,방3
- 삼존불, 지장보살
- 즉시 법회가능
- 전세금 5천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사정상 급히 인계함

010-3506-2282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
- 비구니 스님이나 수행정진하는 신심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8620-88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4평
- 법당 15평,산신각, 2평
- 시설: 주방10평, 방 5개
- 주변경관은 산세수려함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 950만원

010-2208-77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 시내 포교요지
- 선원, 철학원, 살림집도 가능
- 대전역 중구청간 도보 10분거리
- 3층, 법당1, 방2, 넓은 홀
- 실내화장실2, 다락1, 시설깔끔
- 약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150만원

016-606-5658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간사찰
- 부지 2천 5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영천에 임야 2만 2천평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토 굴 안 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봉수산
- 부지 700평, 건물 20평, 심야 보일러, 방2, 목욕탕1, 부엌1
- 산세수려하고정진하기좋은명당터로서 요양 및 별장터로도 좋음
- 홍성군청,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IC가까움
- 가액: 1억 6천만원

010-2422-250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3층 건물 3층,
- 평수 25평
- 시설: 법당1, 방1, 부엌1, 화장실1
- 시설비 2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010-4526-705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남이면 소재
- 총 680평 중 대지 280평
- 건평 40평 요사채2동
- 1동 -방3,거실겸주방, 목욕탕,화장실2
- 1동 - 방1, 거실1, 목욕탕, 화장실1
- 현 임시 법당으로 사용
- 법당, 불사자재 다량보유,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7천만원

010-5114-017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010-7154-6654

포교원안내

- 위치:경북 청도
- 대지 160평(텃밭있음)
- 법당(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산신단, 각 단 후불탱화 모셔짐)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원 (시설비있음)

010-6276-96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 대지 250평
- 법당 25평(삼존불) • 종무소 10평,
- 전체조립식건물,요사채방5개
- 난방시설(전기,기름,화목)겸용
- 집기일체완비 인계
- 큰길에서 5분거리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16-290-6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원주 도심포교원
- 구옥 -안채, 법당, 스님방 1,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마당,
- 주위에 주차공간 넓음,
- 구옥별채 - 산신각, 화장실, 방1, 주방, 창고
- 보증금 200 월55만, 시설비 1,100만원

010-4028-3622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2천

- 위치 : 경기
- 부지 : 32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3억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삼존불 후불탱화, 인등 230불,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 거실1, 공양간 1, 다용도실, 해우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0-8669-5665

경 남 진 주 암 자 안 내

- 동진주문산 IC에서 5분거리 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20평 조립식(아미타삼존불, 지장소불200불)집기일체드립니다
- 상담실8평, 공양실11평, 요사채 35평(적벽돌 철근슬라브) , 삼성각8평, 창고 20평, 대지 200평
- 밭. 남의 땅이지만 여유로운 200평 무상보시 사용가능
- 가액: 2억1천7백만원(대출 8000만원가능)
- 연락이 안될 경우 문자 남겨주세요

010-2326-12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앞으로 교통 좋음)
- 평수 : 3층중에 2층 47평 (법당 ,주방 , 방2 ,화장사워실 2 ,실외 화장실 有)
- 구조 : 법당겸 참선선원(교양대학)으로 사용가능하고 실내구조가 넓고 한실문 창호로 마감된 아늑한 한실 분위기
- 시설비 2,000 / 보증1,000 월 50
- 부재중엔 문자남겨주세요

010-8554-3568

편 안 한 토 굴

- 위치: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 대지 200평, 방3, 거실1,실내화장실,건평 32평,
- 법당11평, 삼존불 정남향, 마당잔듸, 주차 8대가능
- 가액: 4천 6백만원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방1, 차실, 공양간 넉넉, 화장실2,다용도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832-5074

경기북부(심원사 인근) 사찰안내

여법한 사찰 비구니 스님에게만 드립니다

- 토지 400여평, 건물90평으로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석불 법당과 산신각 동향, 요사채는 남향임
-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도량 뒤에는 하천이 흐름
- 경제적 어려움없이 40여년동안 운영된 사찰
- 연로하셔서 법회보시기 너무 힘겨워 새로운 스님에게 좋은인연으로 2억 3천만 받고 내려 놓습니다

010-3305-4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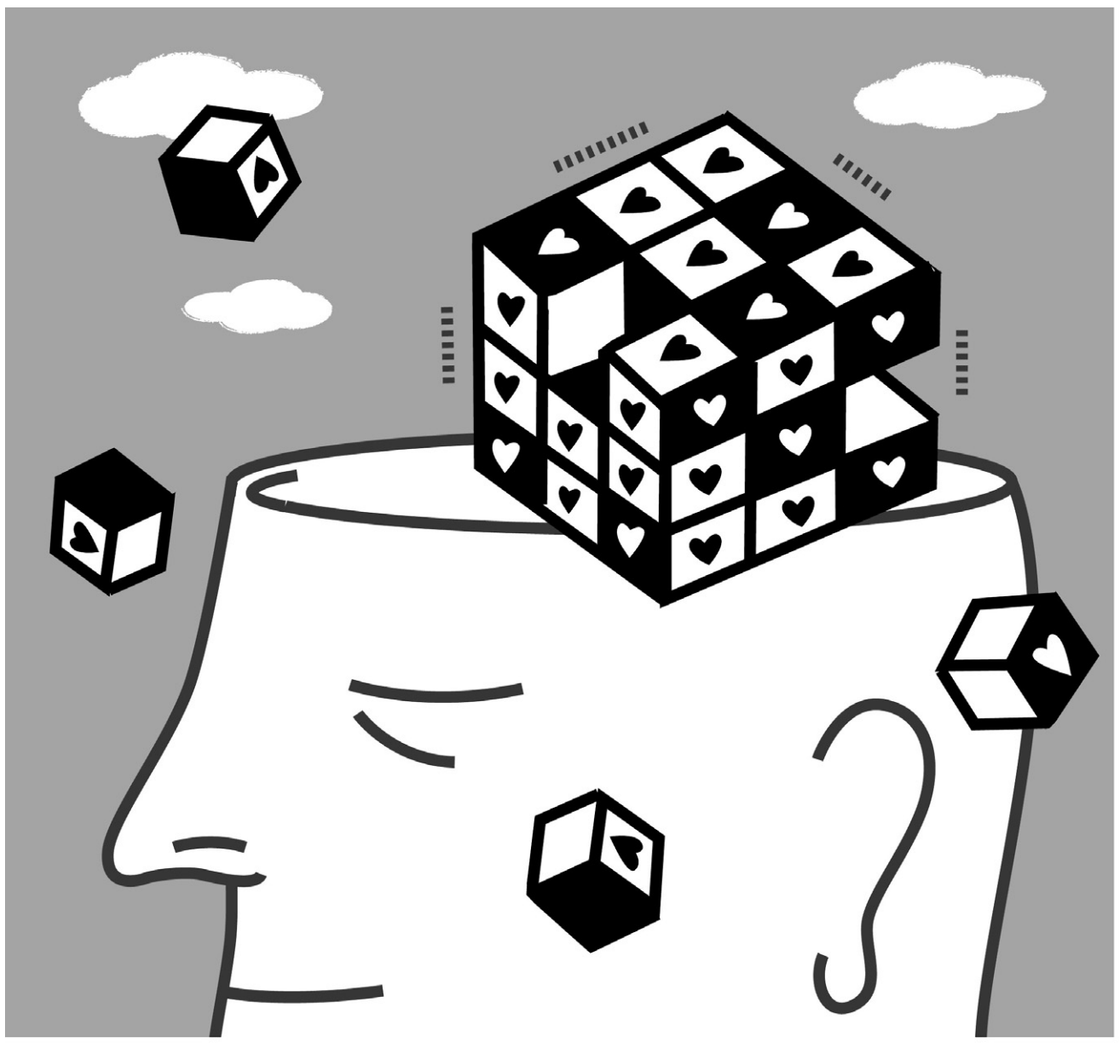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공연히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또한 겉모습만 치장하지도 말라 – 대반열반경 –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뻬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2〉 마음이 존재의 핵심

마음이 모든것 지배하며 마음이 모든것 창조한다



예를 들어 마음을 챙기는 방법을 설하신 〈염처경(念處經)〉이나, 산만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신 〈생각쉬기경〉,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요 경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불교와 깊은 동반자

불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심리학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마음의 복잡한 작용들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보다 불교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며, 따라서 심리학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와 깊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현대 심리학과 연관이 있느냐' 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불교는 분석적(分析的)인 면보다는 치유적(治癒的)인 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지성을 넘어서서 삶 그 자체의 실제 경험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하여, 누구나 마음 속 깊이 공통되게 앓고 있는 질병들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벌이는 일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통찰하고 있었기에 부처님은 자연히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이자 과학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이 진리들을 찾아낸 방법은 현대 심리학에서 실험주의자들이 쓰는 방법과는 분명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해 내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고, 실험주의자들의 연구에 의해 점점 더 확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관한 한 불교에서 하는 탐구는 과학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과 물질(名色)의 성질에 관한 부처님의 설명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해탈, 즉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내면생활이 인간 행동의 발생 과정에서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적 현상들에 그토록 역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유신론(有神論)적인 종교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신입니다. 비유신론(非有神論)적인 불교에서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기독교 바이블은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시작되는데, 불교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법구경(法句經)〉은 첫 구절이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느님 말씀은-사실상 모든 유신론적 종교의 신들의 말씀이 그러하듯이-신, 하늘, 즉 구원(久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부처님은 해탈 체계에서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사람들을 분별(分別)과 탐구의 길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내적인 힘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과업에 몰두하도록 촉구하여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필요한 노력을 쏟아 자신의 해탈을 성취하도록 하여라. 여래들은 다만 그 길을 일러 줄 뿐이니라."(〈법구경〉)

마음의 자유라는 이상(理想)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마음의 중요성부터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마음의 자유를 신장, 수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왜 그다지도 절실한지 그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이끌어 갑니까

모든 힘 중에서도 마음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힘은 다른 어떤 힘도 능가합니다. 마음 그 자체가 힘 바로 그것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벌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힘을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교는 물질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계가 정신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람 마음의 크나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인도(引導)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법(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구여! 세상은 마음(생각)에 의해 인도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모든 것이 마음이란 한 가지 법의 지배하에 있느니라."(〈증지부〉 Ⅱ권)

마음 또는 식(識)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행복, 선과 악, 삶과 죽음 같은 모든 심리적 경험들을 어떤 외부적 작인(作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자답게 사는 삶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깨끗이 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일생은 자기완성에 이르는, 자기 발전과 자기 정화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결과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나 논리적인 추상, 심지어 심사숙고마저도 실천과 결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의 도덕적 특질이나 불교심리학은 저 영원한 진리인 고(苦), 즉 일체 유정물이나 일체 경험적 실존들의 불만족성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 노력하여
해탈을 성취하여라
여래들은 그 길을
일러 줄 뿐이다"

고통 · 즐거움 · 행복 · 선악 등
외부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

"오로지 한 가지를 나는 가르친다. 고와 고의 종식을"(〈중부〉22경 Ⅰ권)

이 명백한 말씀을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을 적용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苦)와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부처의 깨달음이란 다름 아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四聖諦)' 즉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苦 · 集 · 滅 · 道)인 것입니다. 여타의 가르침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이거나 좀 더 상세히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부처들이 한결같이 가르치신 부처 특유의 가르침이니라"(〈율장〉 '대품' Ⅰ권, Ⅱ권. 〈장부〉 Ⅰ권. 〈중부〉 Ⅰ권. 〈증지부〉Ⅳ권.)

부처님은 실질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무생물계보다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존재의 신비를 벗기는 것, 생성(有)의 문제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삶의 영원한 진실인 네 개의 진리를 완전무결하게 파악함으로써 이 일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고'의 문제를 삶의 보편적 현실 문제로 설명해 주어, 사람들이 '고'의 벽찬 힘을 느끼고 확인하게끔 만들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설명하며 또 무엇을 설명하지 않는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첫째 관심사는 단순한 사고의 유희나 황당무계한 상상의 영역을 떠도는 따위가 아니라, 둑카(dukkha, 苦) 즉 불만족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것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으로 참된 지식 여부를 가려 할 것입니다.

'이 배움은 정신적 평화와 고요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식(識)과 상(想)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色) 속에 세계와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나는 천명하노라."(〈상응부〉 Ⅰ권)

여기서 '세계'란 말은 둑카(苦)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은 오온(五蘊)으로부터, 즉 이 한길 몸과 마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온과 '고'는 하나이지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자문자답하십니다.

"오취온(五取蘊,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집착의 무더기)이 바로 '고'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상응부〉 Ⅲ권)

불자정보 879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지하철에서 2분거리
• 자연부지 건물 허가됨 300평
• 하천부지 약 300평
• 법당, 요사채 70평
• 가액: 답사 후 결정
011-574-3303

포교원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교원안내
•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농수산물 시장 건너편
• 총평수 50평
• 3층건물의 3층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40만원
010-9278-9049

암자안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암자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148번지
• 전 3,000평 내에서
• 대지 210평, 법당 30평
• 요사채 24평, 창고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상담 후 결정)
010-9004-721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벽
•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010-4668-655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주방,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5백만원,월100만원 가액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 사용평수 50평
• 삼존불, 지장보살, 인등, 소불
• 주차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2500만원
• 상담후 절충
051)701-723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 중앙로
• 의정부역 지하철 10분거리
• 경전철 5분거리
• 2층 건물의 2층, 총평수 25평
• 옥상방 사용가능,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1억 8천만원 (은행융자가능)
031) 846-1028
010-3780-5856

사찰(급)안내
•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법당 28평, 단청완료
• 산신각 2평 단청완료
• 요사채 약 80평,(방6개) 심야전기
• 창고3개, 주차 50대이상
• 가액: 8억(조정가능)
• 평수 대지, 개인도로 673평, 답 100평
010-6409-8114

사찰안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
010-2503-0776

사찰안내
• 위치 :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 대지 196평
• 주자창, 텃밭 175평, 법당 15평
• 야외 지장보살입상, 요사채방5, 심야보일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769-7029

사찰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제물포
• 4층 33평
•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약간
070-8910-5161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현우경' 이야기 (11)

코끼리의 죽음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이고…

잠부드비파에 대광명이라는 왕이 있었다. 대광명왕에게는 이웃나라에 절친한 왕이 한 명 있었다. 둘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가질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은 신하들과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새끼 코끼리를 발견했다. 코끼리는 백옥같이 하얗고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왕은 코끼리를 보자마자 그 모습에 반해 코끼리를 궁으로 데려왔다.

"코끼리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우니 대광명왕도 코끼리를 보면 좋아 할 것이다."

대광명왕은 코끼리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대광명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조련사를 시켜 코끼리를 훈련시키라고 명했다.

조련사는 대광명 왕의 명령을 받고 코끼리를 훈련시켰다. 얼마 후 왕은 조련사를 불러 물었다.

"코끼리는 훈련이 잘 됐는가?"

"코끼리는 제 말이면 무슨 말이든 다 듣도록 훈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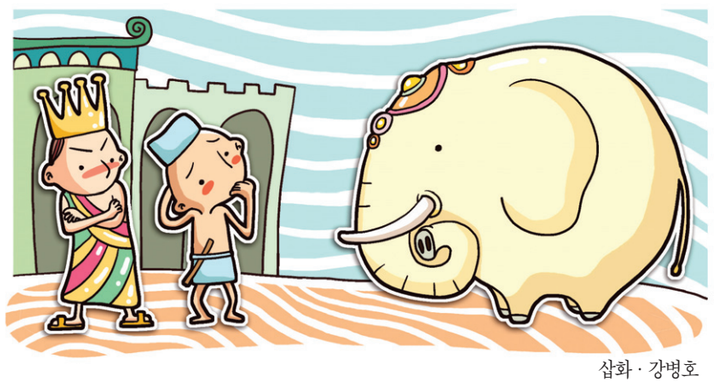
왕은 조련사의 말에 안심하고 성 밖 경치를 즐기기 위해 코끼리를 타고 나갔다. 그때 갑자기 코끼리가 난폭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왕의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겨지고 온 몸에는 상처가 났다. 왕은 이러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어서 이 코끼리를 멈추어라."

조련사는 달리는 코끼리의 뒤를 쫓으면서 왕에게 나뭇가지를 잡고 코끼리에게 떨어지라고 말했다. 왕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나무에 매달렸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왕은 궁으로 돌아왔다. 왕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화가 났다.

"나를 해치게 하려했던 너와 코끼리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

며칠 후 코끼리가 다시 궁 안으로 돌아오게 됐다. 조련사는 왕을 찾아가 간청했다.



삽화 · 강병호

"이 코끼리는 오직 전륜성왕만이 얻을 수 있는 코끼리입니다.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코끼리가 잘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난 코끼리를 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고를 내고도 너와 코끼리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저를 버리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옵니다. 그래도 저와 코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코끼리를 다루는 모습을 한 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조련사가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조련사는 코끼리를 왕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옆에 대장장이를 불러 세워뒀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철을 빨갛게 달구라고 지시했다. 조련사는 코끼리에게 명령했다.

"달궈진 철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머리를 찢어놓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직시한 코끼리는 죽기 전 눈물을 흘리며 왕을 바라봤다. 하지만 왕은 전혀 코끼리를 용서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코끼리는 코로 철을 집어 삼켰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왕은 깜짝 놀랐다.

"죽음을 따를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코끼리인데 어찌 숲 속에서는 그런 행동을 제지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오직 몸만 다룰 수 있지 마음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다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있단 말이냐?"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다 다룰 줄 아십니다."

"부처님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인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수행하고 공덕과 지혜를 갖춰 자신과 미혹한 중생들마저도 잘 다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서원을 했다.

"앞으로 부처가 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중생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옥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서원을 세우자 하늘에서 하늘사람들이 내려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철을 먹은 코끼리는 아난다요, 조련사는 샤리푸트라였다. 나는 당시 대광명왕이었다. 그때 코끼리가 잘 훈련돼 순종하는 모습은 나로 하여금 발심하게 해 불도를 구하게 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콧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얀마 성지순례

▣ 5월, 6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해외 파견 견습생 2 명
◆ 국내 연수 견습생 2 명

◇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종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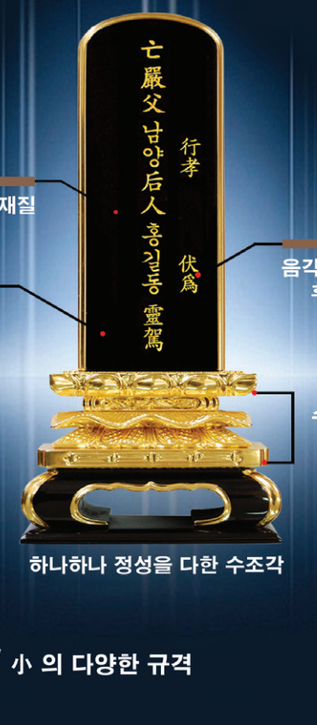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이 제품은 국제품질 시스템 ISO 9002 규격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인증번호 AC-01808)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대행 스님

깔축없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오늘 첫째 일요일날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빡빡,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내고 몸이 움죽거리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 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따지고 보면,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동산에 한 물건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 배를 하든지 천 배를 하든지 삼천 배를 하든지 또 일 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니 업보가 많으니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느니 운명이 이렇느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씌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씌워 주기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면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씌워졌다면 여러분도 씌워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촉촉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새달에, 훗달에 어떠니저떠니,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여(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바로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끝간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끄달려서 속고 삽니다. 속아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간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잘 들으세요. 팔만대장경이 글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빛, 햇빛! 묵은 빛을 갚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모두들 조상 따로 두고 부처님 따로 두고 그러는데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개구리 어머니가 새끼 개구리 둘을 업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져서 뒤집혔는데 엄마를 따라가려고 바둥바둥하더라고요. 어미 개구리는 거기 멈춰서서 사람의 어머니처럼 "빨리빨리, 얼른 오너라." 하고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자식이 어머니를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부처란 얘기예요. 마음! 마음이 있다면 행이 나오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유생 무생이 다 그렇단 얘기죠. 사생이 다 그렇다 이 소립니다. 태로 낳는 거라든가 알로 낳는 거라든가, 화해서 낳는 거라든가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거라든가, 사생이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해골 무더기에다 절을 했다는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사생자부이신데 어찌 해골더미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흙과 물은 어머니로 비유하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로 비유했어요. 흙이라는 데서, 물이라는 데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인간까지, 100%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는 거냐. 말로 이론으로는 전부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우주 근본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는 뜻은, 보세요. 잘 펼쳐 놓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일에 지쳐 쓰러져서 죽어 가면서 그 자식을 다 기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어미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어머니만, 소의 어미만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 어미도 그렇고 코끼리 자식도 어미를 찾는 그 가긍한 마음이 있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럴지언댄 어찌 그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소극적으로 요 개별적인 나, 요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이 아닌 뜻을 아신다면 너 나가 없이 찰나찰나 나투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마따나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벌을 봐도 그렇고 개미를 봐도 그렇고요. 개미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생기면 어딘가 말없이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없이 말을 전달해 가지고 우우 모이게끔 해 놓거든요. 인간도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내 식구를 전부 몰고 가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에 가득 싣고 왔으면 식구들이 몽땅 가서 모두 들고 들어오듯이, 개미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믿는다고 해서 밥이나 떡이나 해 놓고 빌고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지장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독성 따로 있고 용신 따로 있고 지신 따로 있고 조왕 따로 있고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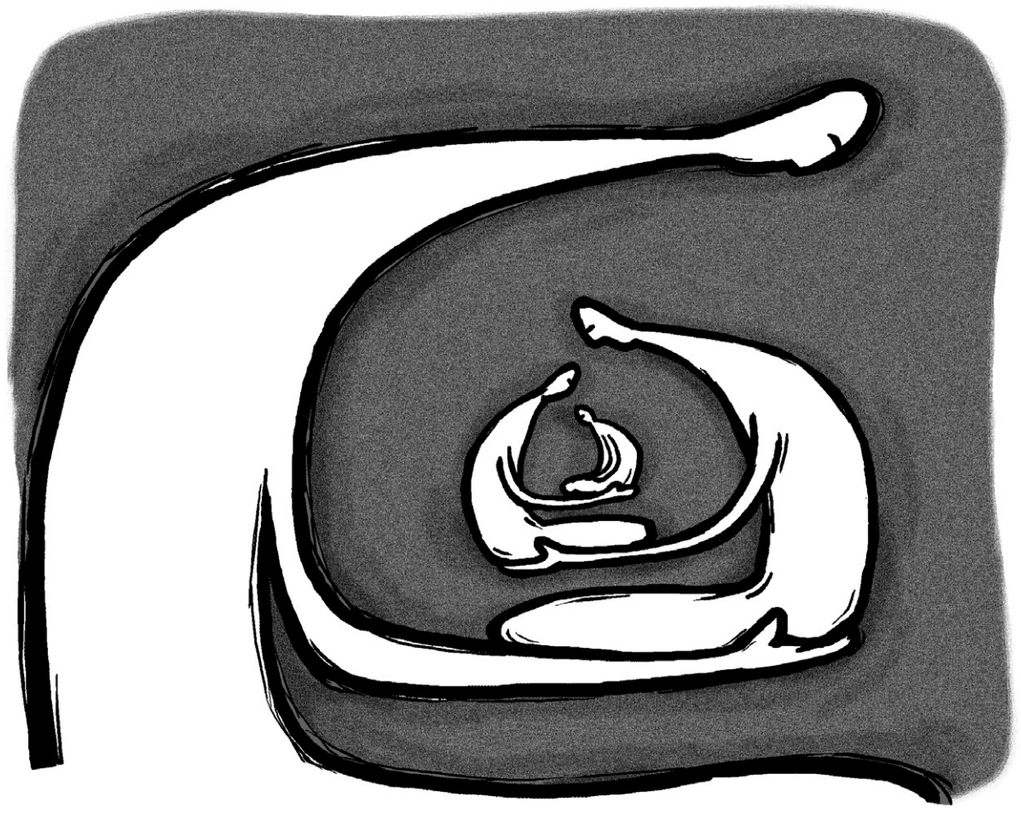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 인 모 집 (서 울 범 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참회진언 특허 성불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붓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타올도매/인터넷 웹하드(데이콤, www.webhard.co.kr)에서 보세요
(아이디 hce4936 비밀번호 658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목신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소견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삼십이상의 구족함과 삼십이응신의 구족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고 들이는 데 조금도 걸림 없는 구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은 항상 나투면서, 사람에게만 나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나투어요.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돼 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나툴 때에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가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관세음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라는 건 마음 깊은 속에 보배와 같은 것이 흙 속에 묻혔다고 해서 바로 지장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요.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늙었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꽉 찼기 때문에, 한 물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효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간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돛대고 이건 사공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면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유스럽게 떠 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합니까.



그러나 짊어지고 나온 것이, 즉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콩씨 얘기 했듯이 말입니다. 작년 콩씨를 심었더니 올해 콩나무로 화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콩나무에 콩이 열렸지요. 작년 콩씨는 화했잖아요. 한 찰나에 화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무조건 없는 거라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없어요. 현재는 공해 버렸다 이 소리에요. 공해 버렸다. 그러니 짊어진 게 없어요. 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된 행이 있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도 짊어진 것이 없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짊어졌다고 해 놓고 짊어짐을 받는 거죠. 깔축없이 자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한 게 없습니까? 허허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계율을 알고 교양을 알고 상식을 알고, 그리고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계율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250계나 380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을 필요도 없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름지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움죽거리는데 인간이라면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계율이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인간으로 나왔다면 다 아는 바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넘을 것이 없이 뛰어넘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네 없네, 과거의 업보가 있네 없네, 팔자가 있네 없네, 조상의 탓이네 아니네, 동쪽이 무슨 뭐 삼살방이 들었네, 올해 삼살방이 들어서 집을 못 짓네,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네 하고 잠재의식 속에 아주 구태의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미신짓을 하니까 미신이 되죠, 네? 미신짓을 하지 않는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날이면 그게 바로 좋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고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 놓고 막힘을 받고, 구덩이를 파 놓고 구덩이 속에 빠져서 울고 그럽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다' 할 때는 '허허, 주인공! 병을 나게 한 것도 네놈이니 낫게 할 수 있는 놈도 바로 네놈이 아닌가!' 하고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그렇게 멋진 도리와 그 멋진 불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도 그렇고, 선조들이 그렇게 법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쓰러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생각도 없어요? 또 한편 우리가 물을 쓰지 못하면 죽는데 물한테 고마운 줄 몰라요? 불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근거지가 되는 거름이에요. 우리들 생활의 거름이고요.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었을 때는 자기가 여기 법당에 왔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없어요.

나는 이날까지 잘해 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해 본 예가, 손을 꼽고 타의에 빌어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죠.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구요. 그러니 만약에 공에 빠진다면 공의 노예가 될 것이고 물질에 빠진다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과학으로써 첨단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 없이 과학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발전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물질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마음으로, 정신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물질에 말려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몸뚱이, 저 모습에 말려들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너희가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네 마음을 안다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툼 또한 둘이 아니니라." 나툼이 둘이 아닐지언댄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반을 못했는데 그냥 죽는다고 열반인가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한다면 열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어린애를, 핏덩어리를 낳아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해요.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 천차만별의 그 뜻에 응하고 응해 주는 그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땅히 세 번 아닌 세 번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강렬하게 팽개칠 수 있는 아마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거다 이겁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차만별로…, 애들은 애들대로 점점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이 위로는 푸른 잎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우린 지금 걷고 있다 이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평발이기 때문입니다, 평발. 발이 납작해서 평발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한발로 디뎠기 때문에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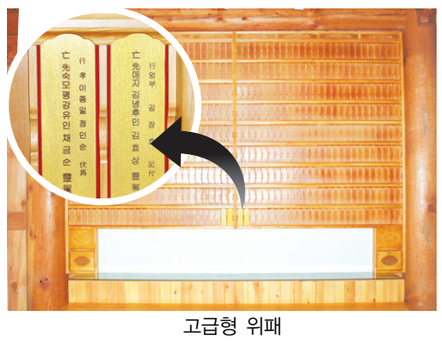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불자 세상보기

불교계도 '우리와 함께 울어요'



진오 스님
사단법인 꿈을이루는 사람들 대표

초기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에는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출가 스님과 재가 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불살생 계목과 연결돼 있다.

살생은 사람이나 짐승 따위의 생물을 죽이는 행위인 반면 불살생은 생명의 무한 가치를 강조한 점에서 불교의 존재의미가 폭넓게 담겨 있다. 특히 불살생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닌 자비종자를 끊는 원인이 되고, 일체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기준이므로 불자는 평화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14일째(3월 8일 현재) 단식 농성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국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중이다.

이런 가운데 4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북한인권단체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 우리와 함께 울어요)가 주최한 탈북자 북송반대 콘서트에 50여 명의 연예인이 참가해 탈북자 북송 반대를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같은 각종 단체들도 중국대사관에 탈북난민 북송중단 촉구서한과 항의 집회를 열고 있고, 정부에서도 미국과 공조하여 중국당국의 탈북난민 지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로 보는 강제 북송의 원칙에 인권적인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친북한 정책으로 강제송환이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 듯 하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쉼터'에서도 이번 중국당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누었다. 충격적인 것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100일간의 애도기간 중에 중국 공안(경찰)에 잡힌 북한주민 30여 명이 강제 추방된 후 공개처형 됐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11~19세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또래 이탈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연변지역 조선족 동포 가운데 포상금을 타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밀고하거나 심지어 북한 당국에서 탈북을 가장한 주민으로 위장하여 생계를 위해 넘어간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강제 북송이 되면 예전에는 1년에서 10년간 수용소에서 형벌을 받는 정치적 탄압을 넘어 더 이상 북한 이탈주민이 없도록 공개 처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집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간 2000여 명의 북한주민은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

불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이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굳이 정치현장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권의 관점에서 종단의 입장표명이 빠를수록 죽임의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와 북한 당국의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중국의 북송정책을 규탄하는 방법 이외에 불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원광 법사의 살생유택(殺生有擇)처럼 생명에 대한 죽임에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삼국시대의 혁신적인 세속오계를 참고하면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사문은 생물을 죽이지 않고, 생물을 죽이게 하지 않으며, 생물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중아함〉 우담바라경의 말씀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지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사부대중 칼럼

배려와 존경이 아름다운 사회 만든다



오심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월은 참 바쁜 계절이다. 해가 하루가 다르게 길어지고는 있지만 하루해가 짧은 것은 여전하다. 그래도 겨울보다는 길다. 동지에 즈음한 해를 두고 옛 어른들은 가을걷이는 하루한번 폈다 구부리면 참(일 하다 먹는 간식)시간이 돌아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깊은 산골 사찰에는 겨우살이를 보내고 봄을 맞아 기지개가 한창이다. 삼동결제에 먹을 음식이며 난방준비, 방 마다 방한 비닐준비 등이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바삐 움직인 것이 어제일만 같은데, 시간은 화살과 같다.

요즘 여러 종단에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한 포교사, 법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본다. 이 분들이 이구동성이라해도 무방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있다.

"이 시대에 존경하고 어른으로 섬길만한 스승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스승이 없는 수행자나 신자들은 행동이 여법하지 못하고 믿음도 중장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가르침을 내리셨다.

"제자들이여. 스승은 제자에 대하여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사제가 서로 공경하여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 같이 이 교단에 진취(進趣)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적시에 일어나 신발을 벗고 상의를 갖추고 스승께 세숫물을 올리고 스승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스승이 자리를 뜰 때에는 자리를 걷고 청소하고 스승의 입안에 혀처럼 부족함이 없이 도와드리고 존경해야한다. 또 스승은 제자에게 경을 읽게 하고 질문하게 하여 가르치고 사랑하며 제자를 도와야 한다. 제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친절하게 대하며 제자가 슬퍼할 때 정성으로 위로하고 모름지기 제자를 위해 염려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 제자 수가 늘어남에 위아래도 없어지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지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스님은 삼보 중에 하나다. 그런데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이 길거리에서 스님을 마주치면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는 스님이라서 그런지 외면하기 일쑤다.

아는 스님이라도 멀리서 보고 모른 체하면서 움츠려 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필자가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혹여 굳이 신도들에게 인사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스님에 대한 합장은 불자로서 삼보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첫걸음이다.

포교사도 마찬가지다. 괴색 옷을 입고 길거리를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승복은 아니지만 포교사 단복은 종단에서 부처님법을 홍포하기 위해서 지정해준 단복이다. 이 단복은 신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저 옷을 입은 이를 일반불자보다는 조금 높이 쳐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포교사 단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피운다거나 상스러운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떠들고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대다수 포교사나 법사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스님들도 포교사들도 승복이나 단복을 입었을 때는 스승으로서 위의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불자들은 승복을 입은 스님이나 단복을 입은 포교사들과 마주 했을 때 깍듯한 예의로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처님께서는 "스승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도리이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현자"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스승을 친견하려거든 자신의 모습을 한 없이 내려놓고 하심으로 스승을 찾으면 바로 눈앞에 스승이 보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아름다운 불제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내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이 법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의기양양해 하지 말고 모름지기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모습이다.

요즘은 봄산행이 한창 좋은 계절이다. 산에는 반드시 사찰이 있을 것이다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사찰에 들러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신심을 증장 시키는 것도 불제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여느 사찰에 가보면 절에 좀 오래 다녔다고 사찰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예의 없이 행하는 이도 더러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삼보정재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을 조금 안다고 방에서 큰소리로 떠든다던지 예의 없는 버릇을 하는 이도 더러 볼수 있다. 소위 말하는 아주 꼴불견스런 일이다.

늘 여여한 마음으로 삼보에 예경하고 공경하며 스님이나 법사들은 늘 신도님을 부처님 대하듯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스님은 삼보의 하나로서 마땅히 예배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아상이 높아서 위 아래도 구분치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서로가 배려와 존경으로서 늘 아름다운 불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社說

불교가 개혁 꿈꾸는 이유

부처님은 무상(無常)의 법문을 설했다. 상주(常住)하는 것이 있다면 "제행이 무상하다"는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태어난 즉시부터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무명에 가려진 이에게 변화는 죽음을 상기시킨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항상한 줄로만 알던 카스트 제도를 타파했다. 신분제 뿐 아니라 생사를 유전하는 윤회고마저도 박차고 나와 열반에 이르렀다. 주체적 ·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많은 이들이 불교의 변혁을 외쳤다.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용성 · 만해 선사 등이 대표적이다. 스님들은 현실을 철저히 깨부수고 생각으로 정법의 새 집을 지었다. 그 설계도가 조선불교유신론 등이다. 이들의 뒤를 광덕 휴암 등이 뒤따랐지만 불교계의 현실은 여전하다. 스님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그린 설계도는 완전한 집을 짓지 못한 채 빛바랜 도면으로 남아 있다. 왜일까?

계간 〈불교평론〉이 통권 제50호를 기념해 '한국불교 개혁을 꿈꾸다'를 주제로 전권특집호를 펴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허부터 휴암까지를 재조명했다.

〈불교평론〉 홍사성 주간은 권두언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거기에 불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 평론에 기고한 이들의 목소리에 불교계의 살 길이 있다. 변해야 불교가 산다.

국가조찬기도회 중단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무릎기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가슴에 성경을 품고 등장했다. 특히, 특혜시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행사에서 설교했다.

제스처는 소프트했지만 입은 여전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의 고민이 더 있다. 그것은 정치 교육 문화 종교에까지 스민 갈등이다"라는 발언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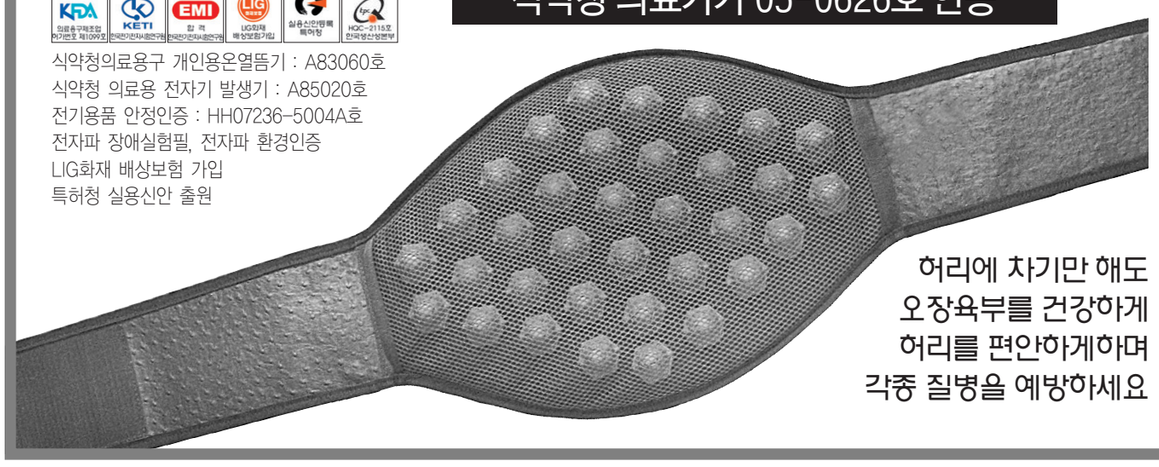
오 목사도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설교를 통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개신교인들이 단결해 대통령을 지켜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불자들은 작금의 종교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 때문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더 세게 비판하지 않음은 다수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기 때문이다. 공인은 공인이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 권리보다 앞선 의무가 있다.

최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이다.

이 대통령과 개신교계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역사 · 헌법 · 국민을 우롱한 만행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조고각하(照顧脚下)하면 대오각성(大悟覺醒) 한다. 저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안되면 불교계가 나서서 할(喝)하거나 방(棒)해주는 것도 자비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15,000원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준히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좋아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러 좋은제품은 만나게되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앉이 돌고 서거나 쭈지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읍니다.

아직 정액에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폐소이 소심게 여겨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읍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500분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